

코로나 시대의 청소년 성장지원

A stylized white virus icon on a blue background, featuring a central circle with two dots and several protruding spikes.

코로나19 확산 및 이후 사회변화에 따른
청소년정책의 대응방안

코로나 시대의 청소년 성장지원

김현철 외

목차

프롤로그

I

코로나 시대 청소년 성장지원의 현상과 방향

01. 우리 사~이 괜찮아요? : 재난을 마주한 우리의 '연결' 그리고 '거리'	12
02. 코로나19로 더 간절해진 마을의 교육력	16
03. 코로나 시대의 다문화가정 교육, 새로운 가능성을 보다	21
04. 포스트 코로나, 새로운 질서를 꿈꾸며	25
05. 비대면 시대, 청소년지도사가 풀어야할 과제	30
06. 청소년안전망은 멈추는 일 없이 가동되어야 한다	34
07. 화상상담, 화면 너머 우리가 연결되다	39
08. 히어로 청소년을 도울 변신 로봇이 필요하다	43
09.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청소년지도사	47
10. 비대면 시대의 청소년 활동, 재도약은 가능한가?	52
11. 청소년들의 지역사회 참여와 청소년 활동의 공진화(coevolution)	58
네트워크	
12. 코로나 시대의 청소년정책은 어디로?	62
13. [코로나 탈출기] 청소년 활동, 코로나에서 살아남기	66
14. 포스트 코로나, 새로운 적응과 대안 모색	71
15. 코로나19 상황, 은둔형 외톨이들의 외로운 항변	76
16. 국제연합(United Nations)의 코로나19 대응과 청소년	93

II

코로나 시대의 진로교육은? 한국과 일본의 사례

01. 서울 남성중학교 사례	103
02. 고등학교 진로교육 사례	108
03. 코로나 시대의 진로센터 진로교육 : 성북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사례	111
04. 코로나 사태 속의 진로교육 : 일본 구마모토시의 대응	114
05. 코로나 시대를 맞이한 사이타마 우라와 상업고등학교의 진로교육	117
06. 코로나 이후의 진로교육 전망 : 「사회에 오픈된 교육과정」의 새로운 형태 「커리어 챌린지 데이 On-line Meets」	120

디지털 원주민(Digital Native)의 날개짓으로

전세계 코로나 바이러스를 다 합쳐도 1킬로그램 남짓이라는 미물,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인류를 큰 시름에 빠지게 했다. 코로나 상황의 장기화로 시름은 점점 깊어가고 긴 터널의 끝은 보일 듯 말 듯 하지만, 발걸음은 이미 뉴노멀 시대로 향하고 있다. 바이러스는 4차 산업혁명을 앞질러 미래사회로의 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술의 문제를 넘어 ‘오래된 미래’의 가치에 눈 돌리고, 앞만 보고 달려온 근대인들의 삶을 성찰하게 만들었다. 이미 하나의 트렌드가 된 미니멀리즘, 단샤리(斷捨離)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문화로 승화시키려 하고 있다(관행적으로 해오던 행사나 집단적인 의례 또는 관습에 대한 생각도 바뀌놓고 있다). 재난지원금으로부터 시작해서 기본소득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코로나발 사회정책은 사회정책의 지형을 바꿔놓게 될 것이다. 기존의 사회정책을 해체(destruction)시키고 재구조화(restruction)하는 일이 불가피해질 듯하다. 청소년정책도 예외가 아니다. 청소년정책은 뉴노멀 시대를 쫓아갈 수 있을까? 앞서 갈 수는 없을까? 디지털 원주민(Digital Native)들이 활개칠 수 있는 장을 만들 수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1 이 글은 2021년 2월 26일 여성가족부와 청소년정책연구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청소년정책토론회 「코로나 팬데믹, 그리고 청소년」의 기초발제 원고 “청소년정책, 코로나 딛고 뉴노멀시대로 한 걸음”을 김현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장이 재구성하여 집필하였음.

격차, 코로나 블루 그리고 열린 가능성

1년이 넘는 긴 시간. 청소년들은 어떻게 지냈을까? 학력격차는 더 벌어지고, 적지 않은 청소년들이 우울, 불안, 무기력감을 호소한다. 교사들의 고군분투에도 교육결손을 막을 수는 없었다. 긴급지원팀이 가동됐지만, 결손의 틈새를 메우기에는 역부족이다. 가정에서 부모와 함께 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가족 내 갈등은 늘었다. 부모들의 고충도 크다. 아동학대 사건이 줄을 잇고 있다. 사건보도로 모든 상황을 알 수는 없지만 시스템 부재의 상황은 명백히 드러났다. 세상을 체험할 기회와 얼굴을 맞대고 뛰어 놀 시간은 줄어들었다. 당연히 규칙적인 생활은 흐트러지고, 잠은 늘었다. “잠이 많이 는 것 같아요.”² 부모들에게는 참기 어려운 시간들이다.

하지만 잠이 늘었다는 것을 반드시 나쁘게만 볼 것도 아니다. 만성적인 수면부족 상황에서 언제 이렇게 또 해방을 맞볼 수 있을까? 규칙적인 삶을 강요해온 근대적인 시간과 근대교육의 시간표를 잠시 멈춰 세우는 것이 가능해졌다고 하면, 그래서 나아가 근대인들이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과 근대교육의 판을 재편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면 마냥 나쁜 신호는 아닐 것이다. 이미 근로시간은 유연해지고 있으며, 주4일 노동도 실험대에 올랐다. 이런 변화는 이미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미래사회 변화로 예견되던 것이지만, 근대적 시간(모던 타임즈)을 해체시킬 호기를 맞게 되었다. 미네르바 스쿨이 근대적 학교시간을 해체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당분간은 학교도 근대적인 학교의 시간표도 굳건하겠지만,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원격수업이 보편화되면 시간표는 개별화되고(성공여부를 떠나서 고교학점제도 개별화를 목적으로 한 것이다), 대안적인 교육의 선택지도 넓어질 것이다.

학력격차가 벌어졌다지만 학습결손이나 문화적 결손을 보상적인 학습지원으로 메울 수 있는지 여부는 오래된 논란거리다. 공적인 서비스가 격차의 심화를 막을 수는 있어도 격차 자체를 해소하는 데 성공했는지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학력지상주의가 강력하게 작동하는 한 격차를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비대면 상황의 확장세

2 신나는애프터센터가 청소년 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면접조사결과를 보면, 청소년들은 공통적으로 잠이 늘었다고들 한다. 다만, 갇힌 신세의 고충을 토로하는가 하면, 지금의 상황에 잘 적응하는 청소년들도 있다.

는 격차를 심화시킬 가능성과 함께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확장시킬 가능성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무성의하게 채워진 온라인 원격교육은 청소년들의 학습동기를 저해하고, 학습시간을 통제하지 못하는 교사들도 난처하게 만들지만, 역동적인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들도 있다. 박람회나 토론회 등 온라인으로 대체된 청소년 프로그램들이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경우도 있지만 더 많은 참여와 흥미를 유발하는 경우도 있다. 지금의 상황이 좋다는 청소년들도 제법 있다. 민츠라는 여고생은 뉴욕타임즈 칼럼을 통해서 교실의 방해꾼들 없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원격교육을 예찬한다.³ 민츠의 경우와 같은 국내사례들도 보고되고 있다. 방해받지 않고 오히려 집중도를 높일 수 있었다는 사례도 많다. 이주배경 청소년들이나 학교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잘 이루어진 교육사례도 있다.⁴ 체험에 크게 의존해왔던 진로교육이 비대면 상황에서 더 다양해진 사례도 있다. 그렇다고 무기력에 빠지거나 블루를 경험하는 청소년들의 상황이 가벼운 것은 아니다. 민츠의 학습을 방해했던 아이들의 상황은 어떨까? 왜 누구는 좋고, 누구는 코로나 블루를 앓는 것일까? 어떤 온라인 진로박람회는 규모만 컸지 참여도 낮고, 성과도 없는 반면 어느 진로박람회는 참여도 높고 성과도 오프라인 박람회를 능가하는 것은 왜일까? 개인적인 성향도 작용할 것이다. 좀 더 자기주도적인 청소년들에게 비대면이나 원격수업은 오히려 득이 될 수 있다. 긍정적인 사례들은 공통적으로 ‘상호작용’이 중요하게 작용했다는 점을 보여준다. 온라인이라서 잘 되는 것이 아니고, 온라인이라서 안 되는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상호작용이다. 성공적인 사례는 온라인을 통한 상호작용의 장점을 살린 경우다. 고전적인 수업의 방식을 그대로 온라인으로 옮겨 놓으면 좋은 수업이 되기 힘들다. 디지털 원주민(Digital Native)들이 좋아하는 것은 온라인 그 자체가 아니다. 박람회나 체험활동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언젠가 코로나가 완전히 극복되면 오프라인 활동은 상당부분 회복되겠지만, 온라인 활동과 온라인 교육의 가능성

3 Mintz, Veronique(2020.5.5). ‘Why I’m Learning More With Distance Learning Than I Do in School’(<https://www.nytimes.com/2020/05/05/opinion/coronavirus-pandemic-distance-learning.html>)

4 장훈성(2020). ‘코로나 시대의 다문화가정교육, 새로운 가능성을 보다’와 홍문화(2020). ‘포스트 코로나, 새로운 질서를 꿈꾸며’(김현철 외, 2020, 「코로나 19 확산 및 이후 사회변화에 따른 청소년정책의 대응방안」,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을 경험한 것은 귀중한 자산이 되었다. 온라인 상황에 놀랍도록 잘 적응한 청소년들의 사례나 그런 상황을 도출해낸 디지털 크리에이터들의 가능성이 무게감 있게 다가온다. 청소년도 현장 전문가들도 진화했다. 이런 가능성을 확장하는 일이 비대면의 가능성을 더 넓히고 저출산의 파고가 위협하는 상황을 청소년정책이 앞질러 가는 길이다.

디지털 크리에이팅으로 리드하자

화상회의 기술을 포함한 디지털 기술의 진전 덕에 비대면 상황에 대처할 수 있었다. 우려했던 트래픽이 큰 변수가 되지 않을 정도로 인터넷 인프라는 잘 갖추어졌다. 포노 사피엔스의 손엔 스마트 폰이 쥐어져 있다. 문제는 인프라의 부족이 아니라 애자일(Agile)의 파토스(Pathos) 부족이다. 언제나 그렇듯이 기업의 생태에서는 혁신 자체가 경쟁력이며, 지금은 디지털 혁신이 경쟁의 핵심키다. 디지털 혁신의 파토스는 애자일이다. 상황에 대해서 얼마나 유동적이고 민첩하게 대응하느냐가 기업의 생존을 결정하는 반면, 공공 부문에서는 그만한 치열함은 없었다. 여전히 공급자 중심의 사고가 지배적이다. 위키피디아가 지식생산의 판도를 바꾸었지만, 학교교육은 지식을 여전히 무겁고 더딘 국가교육과정과 교과서에 담고 있다. 공공의 청소년 프로그램은 어떠한가? 지금까지는 창의와 창조보다는 안전과 인증이 더 강조되었다. 반면 민간부문에서의 다양성과 혁신성은 공공부문을 위협할 정도다. 경계가 무너진 디지털 세계의 확장으로 경쟁자들은 더 많아졌다. 교사들도 디지털 크리에이터가 되지 않으면 생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청소년지도자들도 마찬가지다. 시설이나 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프로그램들은 비대면 상황의 확장으로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 교실의 벽도 무너지고 있다. 온라인 콘텐츠는 더 이상 한 학교, 한 기관, 한 지역의 전유물로만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온라인 콘텐츠 공유 플랫폼이 다양해진 지금 생태에서는 각자 도생으로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은 구태한 방법이다. 온라인 콘텐츠 시장은 강자만이 살아남는 정글이 되어가고 있다. 이런 변화는 청소년들에게는 나쁘지 않다. 창의적이거나 경쟁력 있는 콘텐츠만 살아남는 생태가 조성될 것이기 때문이다. 마을이 단지 ‘집이 거기에 있

을 뿐'인 공간⁵이라는 말은 디지털 세계의 상황을 잘 보여준다. 디지털 원주민(Digital Native)들은 지리학적 마을이 아니라 디지털 마을에 살고 있는지 모른다. 사회서비스도 지리적 한계를 넘어 디지털 공동체의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다. 재외동포청소년에 대한 국내 상담가들의 온라인 상담서비스가 대표적인 예다. 이제는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가능성이 열리고 있다. 길어진 비대면 상황이 열어준 가능성의 세계다. 이제는 더 쉽게 더 가볍게 세계와 소통할 수 있게 되었다. 청소년들도 세계시민으로서 연대하기 쉬워졌다. 참여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도 좋다.

모두 디지털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겠지만 청소년지도자들이 디지털 역량을 갖추지 못하면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전문가로 살아남기 어렵다. 청소년지도자 양성과정도, 자격검정도, 보수교육도 디지털 혁명의 파고 앞에서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교육으로 푸는 방식만 있는 것은 아니다. 디지털 원주민(Digital Native)인 청소년들에게만 날개짓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현장의 전문가들이 날개짓할 수 있는 동력을 만들어내야 한다. 이미 코로나 상황에서의 재기 발회로 가능성을 보인 전문가들이 있다. 전문가들이 맘껏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공유 플랫폼이 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 굳이 말하자면, 애자일의 프로그램 생산 플랫폼이다. 앱스토어 같이 창의적인 프로그램 개발자들에게 공익이 돌아가게 하면서 민첩하게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수정되는 디지털 플랫폼일 수도 있고, 현장의 전문가들이 무한한 상상력과 창의력을 발휘하는 오픈된 플랫폼일 수도 있다. 창의적인 개발자들의 동기를 자극하거나 개발자들에게 이익(또는 포상)이 돌아가는 방식이면 좋다. 누구나 자유롭게 플랫폼에 프로그램 아이디어나 사례를 탑재하고, 누구나(또는 멤버십 소유자) 댓글을 달고, 평가하는 방식으로 아이디어를 공유하는(그래서 프로그램이 진화 또는 개선되어 가는) 디지털 프로그램 플랫폼이 있으면 어떨까? 청소년프로그램 공모 사업을 클라우드 펀딩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푸른성장대상'을 경쟁적인 클라우드 펀딩 방식으로 전환할 수도 있을 것이다(예를 들어, 단계별로 씨드머니를 주고, 1라운드 통과자로부터 경쟁하여 최종라운드 통과자에게 포상하는 방식). 지도자 부문에서도 청소년 부

5 김경욱(2020). '코로나19로 더 간절해진 마을의 교육력'(김현철 외, 2020, 「코로나 19 확산 및 이후 사회변화에 따른 청소년정책의 대응방안」.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에서도 가능하다. 같은 방식으로 클라우드 펀딩 방식으로 청소년들의 참여를 확산하는 것도 유용할 것이다(청소년들의 자원봉사활동 온라인 플랫폼인 미국의 'DoSomething.org'나 교육부가 운영하는 온라인 창업체험 교육 플랫폼 옴[www.yeep.kr]의 가상 클라우드 펀딩 방식 등을 응용할 수 있다). 창의적인 방법들은 얼마든지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창의성이 발휘되고 공유되는 디지털 크리에이팅의 장을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이다. 큰 예산이 필요하지 않다. 생각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뉴노멀 시대를 앞서 갈 수 있다.

이 보고서는 2020년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개원 31주년 기념행사로 개최된 제34회 청소년정책포럼 「코로나19 확산 및 이후 사회변화에 따른 청소년정책의 대응방안」에서 발표된 원고와 2020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미래진로개발학회, 일본진로교육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제3회 한일 진로교육포럼 「코로나 시대의 진로교육, 한일비교」에서 발표된 원고를 중심으로 재구성되었으며, 기타 여러 청소년현장에서의 실천사례들이 추가됐다. 코로나19 초기에는 대부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당혹스러워 했다면 시간이 가면서 각각의 현장에서 대응이 시작됐다. 아직도 어려움을 호소하는 현장이 많기는 하지만, 곳곳에서 만들어낸 실천사례들은 이미 뉴노멀 시대가 개막되었음을 직감하게 한다. 2021년에도 코로나를 완전히 극복할 수 없다는 예측도 나오고, 생각보다 긴 빙하기를 겪어야 한다는 예측도 나오지만, 전문가들의 놀라운 적응력과 투혼이 희망을 갖게 한다. 그 덕에 힘겹게나마 청소년들의 성장은 멈추지 않았다. 앞으로 격차의 문제가 사회문제로 더욱 부각되겠지만, 사피엔스의 적응력으로 슬기롭게 대처해나갈 것을 기대해 본다. 누구나 절실히 느끼고 있다. 혁신없이 뉴노멀 시대를 맞이하려는 생각이 바이러스의 위협보다 더 큰 위협이 될 것이라는 것을.

본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원내 연구진들과 현장의 전문가, 그리고 김도하 작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PART

I

코로나 시대 청소년 성장지원의 현상과 방향

-
01. 우리 사-이 괜찮아요? : 재난을 마주한 우리의 '연결' 그리고 '거리'
 02. 코로나19로 더 간절해진 마을의 교육력
 03. 코로나 시대의 다문화가정 교육, 새로운 가능성을 보다
 04. 포스트 코로나, 새로운 질서를 꿈꾸며
 05. 비대면 시대, 청소년지도사가 풀어야할 과제
 06. 청소년안전망은 멈추는 일 없이 가동되어야 한다
 07. 화상상담, 화면 너머 우리가 연결되다
 08. 히어로 청소년을 도울 변신 로봇이 필요하다
 09.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청소년지도사
 10. 비대면 시대의 청소년 활동, 재도약은 가능한가?
 11. 청소년들의 지역사회 참여와 청소년 활동의 공진화(coevolution) 네트워크
 12. 코로나 시대의 청소년정책은 어디로?
 13. [코로나 탈출기] 청소년 활동, 코로나에서 살아남기
 14. 포스트 코로나, 새로운 적응과 대안 모색
 15. 코로나19 상황, 은둔형 외톨이들의 외로운 항변
 16. 국제연합(United Nations)의 코로나19 대응과 청소년

우리 사-이 괜찮아요?: 재난을 마주한 우리의 ‘연결’ 그리고 ‘거리’⁶

01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던져준 커다란 문제의식 중 하나는, ‘연결되기 위해서는 거리가 필요하고, 거리를 두기 위해서는 연결이 필요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택배노동자의 노동처럼 보이지 않던 연결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고, 우리의 연결은 서로의 안전을 위한 물리적 거리를 두었기에 가능했던 것처럼요. 코로나19라는 재난은 어쩌면 우리 사-이의 간극이 새로운 사이(관계)를 만들어갈 계기가 된 건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재난을 마주한 지금, 우리의 사이는 괜찮은 걸까요? 앞으로 우리는 어떤 사이여야 할까요?

- 2020년 제12회 하자센터 서울청소년창의서밋 초대 의 글 중에서 -

6 이 글은 황윤옥 하자센터 센터장이 집필하였음.

공공공간과 개인공간의 사이에서 청소년공간이 사라지다

학교와 공공기관이 문을 닫았다. 공공기관인 청소년시설도 문을 닫았다. PC방과 노래방처럼 청소년이 자주 오가는 공간들도 코로나19 전염에 취약한 탓에 고위험시설로 분류됐다. 결국 청소년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공간은 집뿐이었다. 하지만 집은 온전히 청소년의 공간이라 할 수 없다. 심리적으로는 특히 그렇다. 나아가 코로나의 대안으로 많이 언급되는 재택과 드라이브스루도 집과 차를 전제로 하니, 청소년에게는 해당사항이 없다. 게다가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며 공공기관은 감염원이 될까 우려해서, 민간문화공간은 운영난으로 모두 문을 닫고 있다. 코로나 공존상황이 길어질 때 청소년들이 갈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

나의 안전은 남과 연결되어있다

남이 마스크를 써야 내가 안전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우리 동네의 확진자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공동체가 안전해야 내가 안전하다는 상식도 새삼 깨닫게 됐다. 자가 격리, 확진자 동선, 공적 마스크 등 안전에 관련된 말에 익숙해지고 있다. 그런데 안전과 안심은 비례하지 않는다. 어쩐지 불안은 더 커지고 예민해져가는 것 같다. 안전을 위한 거리가 중요할수록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신뢰는 오히려 간절해진다. 우리가 청소년들이 안전한 공간에서 안심할 수 있는 공동체와 연결되도록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

비대면은 콘텐츠가 아니라 연결이다

비대면은 멀리 떨어져있는 사람들을 하나의 화면으로 불러들일 수 있다. 비대면이 오히려 거리를 좁혀주는 것이다. 비대면은 대면할 때보다 연결의 욕구가 더 크다. 대면은 이미 '만나서' 시작하니 연결을 의식할 필요도 없지만, 비대면으로 무엇을 하려면 먼저 서로 연결이 되어있는지 확인하고 연결이 유지되고 있는지도 세심하게 살펴야한다. 비대면을 경험하면서 알게 된 것은 비대면의 만족도는 좋은 콘텐츠보다 좋은 상호작용이라는 점이다.

비대면은 멀리 떨어져있는
사람들을 하나의 화면으로 불러들일 수 있다.
비대면이 오히려 거리를 좁혀주는 것이다.

어떤 경험은 우리를 예전으로 되돌아 갈 수 없게 한다

비대면 수업은 난감한 면이 많다. 대신 교사 눈앞에서 벌어지는 ‘갈등’은 없다. 학생들이 모두 집에 있으니 서로 싸울 일이 없기 때문이다. 교사들이 수업을 진행하는 일보다 갈등을 조정하는 일에 더 많은 기운을 썼다는 것을 문득 깨닫고 있다. 코로나19로 청소년들의 어떤 경험은 사라지고 있고, 어떤 경험은 새로 생겨나고 있다. 우리는 그 경험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코로나19의 방역단계가 1단계에서 2.5단계를 오가는 동안, 잠시 등교를 한 다 해도 서로 몸이 닿지 않도록 신경쓰며 놀이를 한다는 초등학생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어떤 경험을 삭제당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한다.

일상을 유지하는 면역력, 그리고 대면과 비대면을 오가는 호환력이 필요하다

미래가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생기지 않는다. 그렇다고 재난과 더불어 사는 현재의 새로운 상식이 무엇인지도 아직 잘 모른다. 비대면이 사라지는 않을 것 같으니 대면세계와 비대면세계를 오가며 살 것 같다. 지금 우리가 일상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면역력은 무엇이며, 대면과 비대면을 오가는 호환력의 핵심은 무엇일까?

코로나 시대 청소년 활동의 출구는 어디인가

2020년 하자센터 서울청소년창의서밋에서 코로나와 함께 살기 위한 하자의 실험들이 소개됐다. ‘미스터리 엑시트 : 하자 온택트 프로그램 쇼케이스’라는 이름 아래 다섯 가지 실험이었다. 하자의 온택트 실험은 온라인이

고립이 아닌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었다.

먼저 비대면 청소년 영상제작 캠프 ‘방구석 캠프파이어’는 모니터 너머로 온기를 전달할 순 없을까 하는 고민에서 시작했다. 영상제작 경험이 전혀 없는 청소년들이 온라인으로만 활동하면서 10일 동안 ‘코로나19 랜선 청소년목소리’를 발굴하여 영상으로 제작했다. 캠프파이어의 핵심은 둘러앉아 함께 즐긴다는 것이다. ‘방구석 캠프파이어’도 온라인을 통해 둘러앉은 청소년들이 코로나19로 경험한 각자의 이야기를 나누고 영상작업을 하며 공동의 미션을 함께 즐긴다는 것이 핵심이었다.

‘오디세이학교의 모두의 도시락’은 코로나19 이전에는 너무 쉬웠으나 이제는 너무 어려워진 미션인 ‘우리 밥 한번 같이 먹을 수 있을까’가 주제였다. 각자의 공간에서 밥과 반찬을 만들어 화면으로 모여서 ‘큰 밥상’을 차리고 ‘함께’ 먹으며 ‘온라인 함께 밥 먹기’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는 우리는 화면으로라도 서로의 얼굴과 밥을 확인하며 서로를 연결하려는 마음이 크다는 것을 알았다.

‘이메망(이번 메이킹은 망했어) 프로젝트’는 다양한 물체로 구성된 키트를 집으로 보내주었고 망쳐도 괜찮다는 마음을 가지고 무엇이든 자유롭게 만들어 보도록 했다. 참가 청소년들은 SNS에 자신이 만든 물건을 올리며 소감을 전했고, 이를 통해 서로가 연결되는 기분을 느낄 수 있었다.

‘독립러 프로젝트’는 온라인을 통해 매력 있는 선배그룹과 함께 작업하는 장을 마련했다. 또한 진로에 대한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주어 청소년들이 독립러로서 삶의 결을 확장해 갈 수 있도록 했다.

‘하디에(하자디지털 에디터즈)’는 청소년이 온라인으로 일을 경험할 순 없을까 하는 마음에서 기획됐다. 온라인에서 청소년과 함께 뉴미디어 콘텐츠를 만들었고, 하자 공식 인스타그램 및 뉴스레터에 발송되는 콘텐츠를 청소년이 직접 기획하고 제작하도록 했다. 이에 청소년들은 온라인을 통해 일 경험을 쌓을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음악작업장 뉴트랙’은 직접 대면하는 합주와 공연 없이 온라인으로만 음악을 만들 수 있도록 했다. 청소년들은 온라인에서 따로 또 같이, 서로 피드백과 도움을 나누며 자신만의 음악을 찾아가는 경험을 했다.⁷ ■

7 참고자료 : 하자센터, 긴급매뉴얼, 코로나 시대 하자의 20가지 실험들

활동가의 문제의식 - 모래알처럼 흩어져버리는 청소년들

두잇이라는 별칭으로 정릉에서 활동하는 문화기획자 양혁진씨는 지난 5년간 정릉시장 안 개울장을 운영해왔다. 개울장은 북한산 아래 작은 냇가인 정릉천변에서 열리는 마을장터이다. 성북지역의 전통시장 중 하나인 정릉시장을 활성화하고, 지역 주민과 문화예술작업자가 서로 만났으면 하는 바람에서 시작한 일이었다. 5년 동안 꾸준히 하다 보니 개울장은 정릉 사람들에게겐 자연스러운 일상의 축제가 됐고 멀리서 찾아오는 사람까지 생겼다. 이들이 정릉시장에도 방문하면서 처음엔 고개를 갸우뚱하던 시장 상인들도 개울장을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개울장은 단순히 핸드메이드 물건을 사고 파는 시장을 넘어 사람 간의 관계와 활동이 만들어지는 축제로 성장해나갔다. 바로 그 중심에 문화기획자 두잇이 있었다.

개울장이 풍성해지고 많은 사람이 오가는 가운데 두잇의 문제의식이 짝트기 시작했다. 그는 개울장의 자원봉사자로 참가하는 청소년에게 주목했다.

8 이 글은 김경옥 공간민들레 대표가 집필하였음.

인근의 고려대 부속중학교나 북악중학교 학생들이 주로 찾아왔는데 대부분 의미나 취지는 잘 모른 채 그저 자원봉사 점수가 필요한 이들이었다. 그럼에도 장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환경미화부터 안내자 역할은 물론, 때로는 공연도 하며 개울장의 감초 노릇을 했다. 어느새 청소년이 개울장의 주요 참여자가 됐지만 자원봉사 시간을 채우고 나면 언제 있었나 싶게 사라지곤 했다. 두잇은 이런 상황을 두고 ‘손가락 사이로 모래알 빠져 나가듯 사라졌다’고 표현했다. 기왕 만난 청소년들과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헤어지는 게 서운한 듯 보였다. 마을사람들이 함께 만나 인연을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시작한 개울장만큼 두잇은 청소년과의 만남이야말로 그저 흘러보내선 안된다고 생각했다.

마을교육, 함께 만들어가는 청소년의 배움터

앞선 활동가의 문제의식은 그 다음 활동까지 이어졌다. 2018년 1월, 두잇은 개울장에서 느낀 문제의식을 성북 지역의 다른 활동가들과 공유하고자 했다. 그렇게 성북의 각종 문화예술작업과 축제의 중심에 있는 정릉종합사회복지관의 홍봉기, 문화변압기의 김지희(지니야), 성북문화재단의 빼용, 그리고 지역과 교육의 연결을 고민하는 공간민들레의 김경옥이 모여 대안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이 모임은 먼저 문제의식을 심화해나갔다.

10년 가까이 혁신교육을 포함해 마을교육, 마을교육공동체와 같은 말이 널리 회자되고 있다. 이는 특정 사업명이 아니라 우리가 마침내 만들어가야 할 목표이기도 했다. 하지만 대도시인 서울에서는 마을교육공동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마을은 배움터가 되기 어렵다. 아이들은 마을에 속해있긴 하지만 스스로를 마을사람이라 여기진 않는다. 그저 집이 거기에 있을 뿐 지역은 자신과는 무관한 곳이다. 학교 교문을 나와 집으로 오는 길에 정릉시장 어느 분식점에 들러 떡볶이를 사먹는 게 일상이지만 소비자와 판

아이들은 마을에 속해있긴 하지만
스스로를 마을사람이라 여기진 않는다.
그저 집이 거기에 있을 뿐

매자의 만남일 뿐이다. 어느 날 주머니 사정에 여유가 생겨 PC방에서 놓고 햄버거를 먹어도 주인의 얼굴은 기억하지 못한다. 주인은 아이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저 그림자 같은 존재로 남는다. 어른들이 무슨 생각을 하며 PC방을 운영하는지, 햄버거집 사장의 인생철학이 무엇인지 관심 없다. 아이들을 만나는 어른들도 마찬가지다. 나와 내 아이가 살고 있는 동네지만 딱히 아는 것이 없다. 알려고 해본 적도 없다. 그저 아이들은 PC방에 들르는 손님이며 햄버거를 팔아주는 손님에 지나지 않는다.

이처럼 같은 공간에서 함께 살아가지만 진정한 관계는 맺지 않는다. 서로가 무관한 타인으로만 남는 셈이다. 그러나 아무리 자신과 무관한 듯 보여도 결국 아이들은 그 지역에서 ‘사람 사는 법’을 배울 수밖에 없다. 이때 아이들이 배우는 ‘사람 사는 법’은 무엇일까? 그것은 현명하면서도 영악한 소비자가 되는 법이나 이해관계를 낱알이 따지며 손해 보지 않고 사는 법일지 모른다. 하지만 이런 걸 두고 ‘마을교육’이나 ‘마을교육공동체’라고 하진 않을 거다. 서바이벌 같은 세상에서 살아남는 법만 가르치는 마을을 넘어서기 위해 생겨난 움직임이 마을교육과 마을교육공동체이기 때문이다. 아침저녁 얼굴을 마주하는 사람들끼리라도 서로 연결되고 연대하며 함께 살아가기를 애쓰는 어른들. 이를 보면서 이해관계가 아닌 연대와 협력 그리고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는 아이들. 이것이 바로 마을교육공동체이며, 이는 사업이 아닌 문화운동이자 생활운동이다.

성북은 아직 만족할 정도는 아니지만 서울의 어느 자치구에 비해서는 지역의 연결망이 꽤 구성된 편이다. 일찌감치 혁신교육이 실천되기도 했고 공유원탁 등의 커뮤니티 활동도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지역 사람들이 지역의 일을 지역에서 함께 해나가는 문화가 어느 정도 만들어진 것이다. 아직 지역과 교육이 서로 적극적으로 연결되진 못했지만 이미 지역의 사람들은 지역의 아이들을 걱정하며 도움이 되고 싶어 하는 등 ‘교육적인 지역성’을 띠고 있는 편이다. 특히 개울장이 있는 정릉지역은 ‘교육’을 화두로 지역의 고민이 펼쳐진 적은 아직 없지만 다른 연대활동이나 네트워크 및 커뮤니티 활동은 성북의 어느 동네보다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개울장은 지역상인, 문화작업자, 지역 활동가, 지역의 청년 등이 한 데 어울려 많은 걸 해내왔다. 청소년들은 자원봉사 점수를 얻으러 개울장을 찾았다 떠나버리지만, 개울장은 이미 청소년들의 훌륭한 삶의 배움터가 되고 있었다.

청년, 청소년과 지역의 매개자

두잇의 문제의식에서 시작하여 함께 모인 사람들은 지역의 축제인 개울장을 청소년의 주체적인 활동터이자 배움터로 만들어 보자고 결심했다. 그저 스쳐가는 사람이 아닌 지속적인 관계를 만들고 그 속에서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교육적 그물망’을 만들기로 했다. 지역의 아이들이 활동에 참여하며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이를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어린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함이었다. 정릉이라는 지역, 그곳에서 행해지는 개울장이라는 작은 축제, 축제를 함께 만들어가는 지역의 다양한 사람들을 떠올리며 활동을 구상했다.

그 중 특별하게 설정한 것은 청년의 역할이다. 지역과 청소년을 연결하는 매개자를 전문가나 작업자가 아닌 평범한 청년으로 설정한 것이다. 청년은 청소년보다 한걸음 더 나아간 존재로 다른 이가 만들어내지 못하는 관계성을 만들어낼 수 있으리라 기대했다. 청년은 아직은 부유하고 있으며 불안한 미래에 흔들린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연하기는 청소년과 거의 비슷하다. 이 심리적 공감이야말로 청년이 청소년과 지역의 매개자가 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이었다. 나아가 청년이 청소년을 돌보거나 청소년의 성장을 도우면서 자신도 성장할 수 있을 거라 기대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도우는 일이 자신을 돕는 일이라는 삶의 진리를 청년들이 이 기회에 배우기를 바랐다. 우리는 그렇게 지역-청년-청소년의 그물망이 만들어낼 작은 기적을 꿈꿨다.

2019년도의 시도는 부족하기는 해도 모두에게 일정한 성취감을 안겨주었다. 같은 문제의식으로 의기투합한 사람들은 이 활동이야말로 청소년이 마을사람들 속에서 성장할 수 있는 실마리라는 가능성을 확인했고, 마을이 낯설었던 청소년과 청년은 마을을 소중한 삶의 공간이자 배움터로 인식하게 됐다. 마을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터라 앞으로는 사람도 장소도 무심히 지나치지 않고 관심 가지고 지켜보겠다는 소회를 밝히는 아이도 있었다.

무엇보다 청년들의 활동 소감이 고무적이었다. 청소년의 매개자이자 일종의 도우미 같은 역할로 참여했는데 청소년들과 함께 마을을 깊숙이 들여다보며 관계를 맺다 보니 자신의 진로가 보인다는 것이었다. 실제

로 2019년에 활동을 함께한 몇몇 청년은 이를 계기로 성북에서 관련된 일을 찾기도 했다.

코로나 팬데믹에도 청소년은 현재를 살아야한다

2020년 봄이 오고, 지난해의 활동을 좀 더 발전시켜 해보기로 했던 논의는 코로나19로 길을 잃었다. 코로나 재난 상황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지금까지 인류가 새겼던 교훈을 일거에 부수고 ‘뭉치면 죽고 흩어져야 산다’는 새로운 지침을 안겨주었다. 사람들의 만남과 모임은 섰다 온 되고 모든 활동이 중지됐다. 공공기관의 활동은 더욱 어려워졌다. 누구도 방역에 구멍을 낸 ‘1호’가 되고 싶지는 않았던 거다. 그런 중에 지난해 함께 했던 청소년들에게서 연락이 왔다. “만나고 싶어요.”, “동네에선 괜찮지 않아요?” 우리는 다시 고민하기 시작했다. 방역에 구멍을 내지 않고 안전하게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우리는 다시 마을을 떠올렸다. 멀리 이동하지 않고 가까운 우리 동네에 있는 그 어딘가, 걸어서 만날 수 있는 곳이면 위험도는 현저히 떨어지지 않을까? 얼마 후 마을 회관에서 음식을 나눠먹고 감염에 이른 분들의 뉴스를 들은 뒤 더 안전하게 만나려면 어떻게 할까를 다시 고민했다. 먹는 것은 참고 5명 이하의 작은 소집단으로 만나기로 정했다. 이런 고민의 과정도 청소년과 함께 나누었다. 이 과정을 청소년들과 함께할 수 있었던 것은 청소년들의 만남에 대한 욕구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깊어졌기 때문이다. 무엇을 조심하고 무엇을 감수해야만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는 전향적인 태도는 코로나가 준 선물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결국 코로나 상황에서도 청소년은 활동해야 하고, 배워야 하고, 지금의 삶을 살아야 한다. 활동하지 말아야 한다가 아니라 활동하기 위해 현재의 조건에서 우리는 어떤 도전을 시도할 해야 하는지를 다 같이 물어야 할 때이다. ■

우리는 다시 마을을 떠올렸다.

먹는 것은 참고 5명 이하의 작은 소집단으로 만나기로 정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청소년은 활동해야 하고,
배워야 하고, 지금의 삶을 살아야 한다.

코로나 시대의 다문화가정 교육, 새로운 가능성을 보다⁹

03

경북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사회통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특히 다문화가정 구성원을 결핍의 수혜 대상으로만 머물게 하지 않고, 문화와 언어의 다양성을 강점으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돕는 글로벌 인재 양성사업을 중점적으로 수행한다. 대표적 사업으로는 이중언어 교육 및 환경 조성, 결혼이민자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이중언어강사 양성 및 보수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다문화가정의 부모 중 한 사람은 한국의 제도적 교육에 익숙하지 않은 만큼 자녀에게 생길 수 있는 학교생활의 어려움을 줄이고자 학습지원 사업을 경북 광역권 중심으로 기획해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초, 예견하지 못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사업이 송두리째 위협받기 시작했다.

새로운 기회이자 친숙한 도전, 원격교육

이중언어 원격 교육

2015년부터 23개 시·군 센터에서 이중언어 초급과정을 이수한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의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여름·겨울 방학 기간에 2주

9 이 글은 장훈성 경북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센터장이 집필하였음.

동안 ‘이중언어 몰입 캠프’를 실시해왔다. 또한 격년으로 중국과 베트남 현지 대학에서 이중언어 캠프를 진행하기도 했다. 캠프를 통해 청소년들은 이중언어 능력을 함양시켰는데 이는 여러 긍정적 효과를 만들었다. 다문화 가정의 자녀가 부모의 언어로 소통하게 되면서 이전보다 더 많은 부모의 정서적 지지를 받게 되었고, 부모(어머니) 출신국에 대한 문화적 이해도가 높아지며 인식도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캠프를 처음 시작하던 당시에는 한국 국적의 부모들이 굳이 한국에 사는 아이들에게 이중언어(모 출신국 언어)를 교육해야 하느냐 하는 회의적인 반응도 있었다. 하지만 앞서 나타난 긍정적인 결과 덕에 다문화가정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이러한 핵심사업이 코로나19로 취소되자 가장 안타까워한 이들은 청소년들이었다. 이에 우리 센터는 지속적으로 이중언어 교육을 하기 위해 사업방향을 온라인으로 전환했다. 9월부터 이중언어 강사로 하여금 수준별 1:4 또는 1:5의 방식으로 원격교육을 시작했으며, 중국어 자격 취득을 위한 HSK 시험대비반은 1:1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11월에는 중국어 6개 반, 베트남어 3개 반으로 총 9개 반이 온라인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매월 성취도 평가를 실시하여 효과를 검증하고 있다. 중국어(HSK)반의 경우, 10월 HSK 능력시험에서 3명이 3급 자격과정에 합격했고, 11월에는 2명이 5급 과정에 응시 준비를 하고 있다.

2020년 10월 17일 경상북도가 주최하고 경상북도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주관하여 열린 ‘전국다문화가족자녀 이중언어대회’에서 온라인 수업 참여자 중 2명이 최우수상을, 1명이 장려상을 수상했다. 또한 교육부가 주최하는 ‘전국다문화가족자녀 이중언어대회’ 본선에 1명이 출전한다. 그동안 방학기간에만 몰입교육으로 진행되었던 사업이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되면서 오히려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지도를 받을 수 있다는 긍정적 호응을 얻고 있다.

학습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원격 교육

2018년과 2019년, 2년에 걸쳐 실시한 ‘경상북도 다문화청소년 학교적응 실태조사와 지원방안’, ‘경북 다문화청소년 진로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방안’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다문화가족 청소년들은 부모로부터 정서적 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하거나 교육적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어 교육적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다.

결혼이민여성의 경우 어린 나이에 한국으로 이주하여 부모 역할 및 자녀 교육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 특히 출신국과의 상이한 학제로 인해 학교 교육 및 진로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장애와 위기상황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했다. 그래서 우리 센터는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교 적응력 향상을 위한 학습지원 사업과 다문화가족 자녀의 정체성과 자존감 함양을 위한 심리지원 상담 및 진로지도 교육을 기획했다.

학습지원사업은 올해 1차년 사업으로 경상북도 23개 시·군 중에서도 접근성이 열악한 봉화, 영양, 영덕, 청송군 4개 지역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기초학습 부진, 취약계층 다문화가족 자녀 각 10명을 선발했고, 과목별(국어, 수학, 사회) 10차시(10시간) 수업으로 학업 지도를 진행했다. 아울러 심리, 정서상담, 셀프리더십 교육도 10차시로 진행했다. 나아가 부모를 위한 진로 및 진학지도가 10차시로 진행됐다. 학업 지도는 현직 초등교사가 직접 구글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수업과 학습을 진행했다. 진로·진학지도는 대구교육대학교의 교수가, 심리·정서지도와 셀프리더십 과목은 심리정서상담 전문가의 강의로 진행했다. 일차적으로 구글 시스템을 통해 학습지원을 했으며, 밴드와 카톡방을 통해 개설 교과별 학업지도 교사의 질의응답 등 학업 관련 상황도 관리했다.

한편 수업의 집중도와 성취도를 높이기 위해 경북 도내 4년제 대학의 사범대생 9명을 학습멘토로 선발했다. 이들은 사전에 다문화 가정의 이해와 감수성 교육을 수료한 뒤 학습멘토 역할을 맡게 됐다. 학습 멘토는 1:4로 개별 수업 관리 및 학습지도를 하며, 주 1회 멘토일지를 받아 피드백을 해준다. 월 1회 줌을 활용한 멘토회의를 통해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와 멘토활동을 공유하며 수행력을 높였다. 전체 수업은 온라인 수업이 70%, 사전평가·오리엔테이션·중간점검·최종평가 등 오프라인을 30%로 진행하여 효과를 수시로 검증하는 할 수 있도록 운영했다.

특히 진로지도와 부모교육은 학습언어 이해의 어려움이 많은 부모를 위해 한국어와 출신국 언어(중국어, 베트남어, 필리핀, 캄보디아어 등)로 동시 지원하여 효과를 높이고자 했다.

학습지원과 진로지도 사업을 원격교육으로 진행함으로써 코로나19로 인한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 공백과 어려움을 해소 할 수 있었으며, 기초학습 능력이 향상되면서 학업에 대한 자신감까지 향상되는 결과를 얻었다. 정서적 안정과 자신에 대한 이해 및 긍정적 태도 형성에도 긍정적 변

화가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2021년에는 사업 대상을 늘리고자 경북지역 23개 시·군 다문화가족,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함께 자녀성장프로그램 연계를 추진 중이다. 대상 학년도 4학년과 5학년까지 확대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본 센터의 비대면 교육 환경을 더욱 공고히 하고자 경상북도공동모금회에 비대면교육, 영상제작 스튜디오 조성사업을 제안했고, 2021년 2월 중 완공예정이다. 스튜디오에서 23개 시·군 맞춤형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게 되어 결혼이민여성, 귀화자 등 다문화가정 장기거주자의 교육 격차를 해소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세계시민으로 나아가기 위한 상호문화 교육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팬데믹 상황은 다문화 가족에게도 새로운 도전을 경험할 수 있게 했다. 출신국과의 원격 교류가 일상화 되어있는 다문화가족에겐 온라인 세상이 익숙하고 친밀하다. 경제적 이유 등 현실적으로 대면 교육이 어려웠던 다문화가족에게 원격 교육의 보편화는 교육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이자 친숙한 도전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

학습지원과 진로지도 사업을
원격교육으로 진행함으로써
코로나19로 인한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 공백과 어려움을 해소 할 수
있었으며, 기초학습 능력이 향상되면서
학업에 대한 자신감까지 향상되는
결과를 얻었다.

노원의 위탁형 대안학교에서 중·고등학생에게 명상과 진로수업을 가르치고 있다. 명상과 진로라고 하면 어울리지 않는다는 반응이 다수지만, 자신이 원하는 삶을 찾고 나아가는 힘을 기른다는 점에서 결이 다르지 않다. 명상수업은 현재의 나를 만나는 것이고, 진로수업은 미래의 나를 그리는 것이라 보면 될 듯하다. 올해 4월, 난 덴마크행 비행기에 올라타는 미래를 그리고 있었다. 대안학교의 수업은 다른 강사를 찾거나 임시방편을 찾기로 이야기를 마친 상태였다. 그러나 코로나19로 하늘 문은 닫혀버렸고, 땅에 서는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을 앞두고 있었다.

그 시기, 학교 교무부장 선생님이 수업 진행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집 앞까지 찾아오셨다. ‘굳이 집 앞으로 찾아올 일인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위탁형 대안학교의 상황은 녹록지가 않다. 혹여라도 강사가 너무 힘들어서 강의를 안하겠다고 해버리면 학교에선 대책을 마련하기 힘들다. 그만큼 모든 조건이 열악하다. 십 년 전에는 광명의 모 위탁형 대안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을 당해 한 달이나 자리가 채워지지 않았고, 나에게 SOS요청이 와 강의를 진행한 적도 있었다. 위탁형 대안학교는 불모지

10 이 글은 홍문화 자유학교 공동대표가 집필하였음.

같다. 메마른 땅. 내가 가진 물을 200%, 300% 쏟아부어도 땅이 짹짹 갈라진다. 교육 시스템, 학교의 열악함과 교사의 소진, 가정의 문제, 학생의 정서적 결핍 모든 게 복합적인 요인이다. 솔직히 나도 덴마크행을 핑계로 떠나고 싶었음을 고백한다. 그러나 코로나19는 ‘네 자리로 돌아와 아이들을 위한 밥상을 차리라’ 했다.

코로나19로 인한 무기력을 치유하는 데
온라인 수업이 도움이 될 줄은 몰랐다.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수업을 고민하며 묘한 설렘을 느끼기까지 했다.

온라인 수업을 통한 세 가지 기쁨

학생에서 학습자로

코로나19로 인한 무기력을 치유하는 데 온라인 수업이 도움이 될 줄은 몰랐다.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수업을 고민하며 묘한 설렘을 느끼기까지 했다. 특히 그 어느 때보다 ‘자발성’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됐다. 이는 비교과수업의 숙명이기도 하지만, 나 역시 온라인 강의를 다 듣지 못하고 꺼버린 경험이 많기 때문이다. 수업에 집중을 하지 못하는 아이가 눈앞에 있으면 이름을 부르거나 등을 토닥여 줄 수 있지만 온라인은 그럴 수 없었다.

나는 고민 끝에 직접 촬영한 10분짜리 영상으로 수업을 하고, 과제를 내주는 방식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주의력 결핍을 호소하는 우리 학생들에게 더 적합한 방법을 택한 것이다. 해온 과제를 보면 영상을 잘 봤는지 아닌지를 단번에 알 수 있었는데 생각보다 아이들이 잘 따라와 줘서 놀라기도 했다. (아이들에게 흥미를 유발하려고 춤까지 쳤으니 나를 최선을 다했다고 하고 싶다.) 이 과정에서 학생이 학습자로 전환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고 큰 기쁨을 느꼈다.

위탁형 대안학교는 컴퓨터실이 없다. 노트북이 있기는 하지만 수업에 사용할 수 없는 수준이고, 핸드폰 사용도 금하고 있다. 때문에 학생 스스로 뭔가를 찾고 발표하는 수업은 불가능했는데 온라인 수업을 통해 자신의 방식대로 과제를 하면서 각자의 개성을 드러내고 적극적으로 자기

를 표현하기 시작했다. 작문 수업과 프로젝트 수업의 연계로 학생들이 시나리오도 직접 쓰고 연기까지 하는 영상을 확인했을 때는 놀라움과 기쁨에 환호성을 질렀다. 가능성을 열어두니 잠재해있던 끼를 펼치기 시작한 것이다. 오프라인이었다면 꺼렸을 본인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도 온라인에서는 자연스럽게 했다. 안전하다고 느끼는 자기 공간에서, 자기 성장에 집중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것이야말로 온라인 플립러닝의 장점이 아닐까?

학생이 학습자로 전환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고
큰 기쁨을 느꼈다. 오프라인이었다면 꺼렸을 본인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도 온라인에서는 자연스럽게 했다.

개별성으로

두 번째 기쁨은 모두에게 수업이 가능해졌다는 점이다. 이는 온라인이 갖는 개별성 덕분이다. 어느 교실에나 격차가 있지만 위탁형 대안학교의 교실은 정말 극과 극이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섞여 있는 이 교실은 초식동물과 맹수가 같이 있는 작은 케이지 같다. 주도권을 잡는 것은 언제나 으르렁거리는 맹수다. 교사와 줄다리기를 하며 수업을 방해하고, 열심히 하는 학생을 비꼬거나 무시한다. 초식동물은 너무나 쉽게 제압된다. 긍정적 역동을 불러일으키기엔 역부족이다.

그런데 온라인 수업 후 초식동물 같은 아이들로부터 쪽지가 왔다. 수업이 너무 재밌다는 것이었다. 항상 교실에서 제압당하던 아이들이 온라인 수업으로 학습권을 보장받게 된 것이다. 얼마 후 아이러니하게도 맹수 같던 아이들도 수업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학교에서는 무리를 형성해 으르렁거리던 아이들이 온라인에서 개별적인 이름으로 불리자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와 관계를 맺기 시작했다. 누군가가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자 반응한 거다. 물론 이 뒷배에는 학교 담임, 교무부장, 교장선생님의 엄청난 관심과 노고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교사의 성장

세 번째 기쁨은 교사로서 느낀 연결과 성장이다. 수업이 온라인으로 공유되며 같은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수업에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내 명상수업에 참여한 과학 선생님이 수업 게시글에 댓글을 달기도 했고, 사회 선생님의 수업을 토대로 진로 수업의 예시를 들기도 했다. 다른 교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 있다는 것은 긴장감을 주는 것이기도 하면서 굉장히 재미난 일이기도 했다. 나는 이 개방감이 수업의 권위를 해체시키고 교실의 민주적인 성장을 이끌었다고 생각한다.

온라인 개학 일주일만 채 되지 않았을 때 학교의 담당교사가 교과 강사들에게 글을 공유했다. 상호장학은 좋으나 온라인 수업 콘텐츠 경쟁으로 이어지는 것 같다는 글이었다. 어쩌면 경쟁적인 심리가 있었을지 모른다. ‘와, 이 선생님은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시는구나. 나도 이걸 시도해 봐야겠다.’, ‘잘 하고 싶다.’, ‘잘 만들고 싶다.’ 하지만 그게 나쁜가? 이 경쟁심은 다른 선생님을 이기고 싶은 게 아니라 스스로 더 좋은 교사가 되고자 하는 자기 경쟁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다른 교사들의 수업은 나에게 좋은 자료이자 동력이었다. 나는 그 시기를 함께 한 타 교과 선생님들에게 감사함과 동지애를 느낀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학생들에겐 좋은 수업으로, 교사에게는 성장으로 이어졌다.

포스트 코로나를 그리며

혼돈은 새로운 질서와 함께 온다. 우리는 코로나 사태로 온라인 수업과 블렌디드 러닝(Blended Learning)¹¹이라는 새로운 질서를 맞이하고 있다.

2020년, 우리의 시도들이 응급상황 속 기지를 발휘한 대체재였다면 이제는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의 본질적인 고민부터 시작해야 한다. 근대교육의 획일성을 벗어나 진정 이 시대에 맞는 교육다운 교육을 그리고 기술을 활용하자는 것이다. (근대교육 시스템 하에서 블렌디드 러닝만 이식하는 것이 아니라!)

포스트 코로나, 과연 교육 생태계는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나는 이런 미래를 그려본다.

11 블렌디드 러닝이란 혼합형 학습으로 두 가지 이상의 학습 방법을 결합하여 이루어진다. 대개 대면수업(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을 결합한 수업 형태를 말한다.

학생 스스로가 좋아하는 수업을 선택할 수 있고, 같은 관심사를 가진 전국 나아가 전세계 친구들과 교류하는 수업을 듣는다. MOOC를 활용하여 개별화된 맞춤 학습이 제공되고, 어디서 무엇을 얼마나 배웠는지가 기록에 남아 필요한 티칭과 코칭을 제공받는다. 말 그대로 지금의 글로벌 성장 환경을 온전히 다 누리는 것이다.

지역사회에 있는 ‘학교’는 또래 아이들과 뛰놀며 온몸으로 관계를 배우고 성장하는 곳이 된다. 학교를 비롯한 청소년수련관, 문화의 집 등 모든 청소년시설이 각기 다른 색깔을 가진 ‘학교’가 된다. 학생들은 지역에서 원하는 학교를 선택할 수 있다. 필요에 따라서는 온라인 수업을 학교에서 들을 수도 있다. 학교에는 티칭을 보조할 수 있는 선생님, 코칭하는 선생님들도 함께 있다. 아이들이 전인적 발달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예술 활동과 실험, 프로젝트를 제공한다. 학교마다 특색이 있어서 학생들은 관심이 가는 프로젝트를 제공하는 학교나 취향에 맞는 학교를 선택할 수 있다. 결국엔 학교와 청소년 활동시설이 분리되어야 할 이유도 사라진다.

이런 교육생태계라면 우리에게는 위탁형 대안학교가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 대안학교라는 개념도 사라질 것이다. 학생들이 출석체크만 하고 수업은 듣는 등 마는 등 하는 일도, 중위권의 몰락도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개별적 인간이 존중되고, 한 아이의 잠재력을 온전히 펼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앞으로의 교육이 되기를 바란다. 우리는 새로운 질서를 만들 수 있다. ■

결국엔 학교와
청소년 활동시설이
분리되어야 할 이유도 사라진다.

한 아이의 잠재력을 온전히 펼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앞으로의 교육이 되길 바란다.
우리는 새로운 질서를 만들 수 있다.

비대면 시대, 청소년지도사가 풀어야할 과제¹²

05

인류의 역사는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로 나뉠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일상을 뒤바꿔놓았고, 청소년수련시설 역시 많은 게 바뀐 듯하다. 하지만 정확히 무엇이 바뀌었는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모르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청소년의 일상에도 큰 변화가 왔다. 학교의 온라인 개학, 무관중 스포츠 경기의 관람, 동아리 활동 등의 화상 회의, 지역축제 및 행사 전면 중지 등 청소년들의 생활 습관까지 많은 부분이 달라졌다.

기존의 관점에서는 ‘청소년과 청소년지도자의 면대면이 아니면 청소년 활동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보편적이었다. 즉, 청소년 활동 자체는 청소년들이 시설 안에서 지도자와 직접 만난다는 것이 기본 전제인 거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로 청소년수련시설의 휴관이 장기화됐고 점차 청소년과 지도자의 대면이 힘들어졌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청소년 활동의 변화가 불가피했고, 청소년 활동을 바라보는 시각도 바뀌야 했다.

사실 청소년 활동의 변화에 대한 필요성 제기는 코로나19 이전에도

12 이 글은 최지나 완주군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활동업무팀장이 집필하였음.

있었다. 우리 기관의 경우 불과 4~5년 전만해도 청소년 이용률에 대한 걱정은 크지 않았다. 학교가 일찍 끝나 갈 곳도 없고, 여가 시간에 뭘 해야 할지 모르는 청소년이 많았기에 딱히 시설을 홍보를 하지 않더라도 쉴 수 있는 공간과 다양한 활동이 있는 청소년수련시설로 저절로 모여 들었다. 하지만 점차 방과후학교나 돌봄 교실이 활성화되면서 청소년수련시설의 역할들이 축소됐다. 결국 청소년이 원하는 프로그램이 아닌 시설의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이 만들어졌고, 지역사회의 모든 청소년을 위한 장소가 아닌 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참여위원회, 동아리 등 특정한 일부 청소년들의 점유 공간으로 바뀌어 갔다. 청소년수련시설의 입지가 좁아질수록 청소년수련시설을 홍보해야 하고, 청소년들을 프로그램에 참여시켜야 했다. 때문에 학교나 지역사회에 홍보 전단지를 배부하고 현수막을 거는 등 홍보에 대한 비용부담도 점차 커졌다.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는 활동 프로그램들을 해보자’, ‘홍보 이상의 SNS의 활용 방안을 마련해 보자’, ‘이를 통해 청소년에게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는 방법,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 이러한 부분은 많은 청소년수련시설이 한번쯤 생각해봤던 문제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고민도 많았다. 이와 같은 고민 속에서 ‘코로나19’는 더 이상 청소년 활동의 위기가 아니라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다. 코로나 이전부터 알고 있었으나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고민했던 일들을 이제는 해야만 한다. 인터넷이나 핸드폰 사용이 일상인 청소년을 무조건 억제하고 교정하는 게 아닌 오히려 더 나은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그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이에 비대면 혹은 제한적인 대면을 통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사실 기존의 오프라인 중심의 활동을 어떻게 변화시킬지에 대한 부담감이 컸다. 선행된 활동이나 교육이 없어 지도자의 역량도 부족했고, 준비를 위한 시간적 여유도 없었다. 비대면 활동을 진행할 수 있는 장비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바로 현장에 뛰어들어야 했기에 많은 고민이 앞섰다.

그래서 올해 완주군청소년문화의집의 모든 프로그램은 ‘포스트 코로나에 대처하는 요즘 청소년의 육하원칙’ 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진행됐다. 먼저 요즘(언제) 청소년(누가)을 주어로 설정했고, ‘요즘 청소년 어디

있을까?’, ‘요즘 청소년 무엇을 하고 놀까?’, ‘요즘 청소년 어떻게 생활 할까?’, ‘요즘 청소년 왜 모였을까?’로 크게 4가지 주제를 가지고 20여 개의 비대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어디’의 경우, 청소년이 있는 곳인 ‘온라인’과 그 소통창구인 핸드폰을 활용했다. 청소년의 달을 맞이해 청소년 권리와 청소년 트렌드에 대한 모바일 퀴즈쇼, 6.25 70주년을 맞이한 호국보훈에 관한 모바일 퀴즈쇼, 청소년이 친구들과 어울려 놀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인 온라인 게임을 활용한 e스포츠 경연대회를 진행했다. 또한 최근 코로나19로 학교에 가지 않으면서 학교폭력의 양상이 SNS로 다른 학교 학생과 무리를 짓고 한 학생을 타깃으로 잡아 공격하는 경우가 많아져 학교폭력 근절에 관한 모바일 퀴즈쇼도 진행했다.

‘무엇’은 특정되지 않은 다양한 종류의 물건을 활용해 청소년이 집에서 있는 시간을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슬기로운 집콕생활을 진행했다. 특별한 취미 찾기 프로젝트로 키트를 제공해 각자의 집에서 화상으로 만나 실시간 활동을 했다.

‘어떻게’는 마스크, 배달용기 등 일회용품 사용이 급증하는 코로나19 시대의 환경 문제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자 SNS문화와 자기표현이 결합된 ‘미닝아웃 챌린지’를 진행하여, 청소년들이 일상생활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자제하는 인증사진을 게시하도록 했다.

‘왜’는 동아리 활동을 하는 청소년들이 왜 활동을 하는지, 스스로 이유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마련해줬다. 이를 통해 집에서도 할 수 있는 다양한 동아리 활동이 늘어났다.

그동안 천 명 단위가 참여하는 다양한 청소년 축제도 진행했었고, 백 명 단위가 참여하는 활동 프로그램도 진행해왔다. 대면 프로그램은 다수의 청소년이 참여했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구성하다보니 청소년 개인의 만족도는 그리 높지 않은 편이다. 반면 비대면 프로그램은 대면보다 참여자의 수는 적고 비교적 전문적인 체험거리는 제공하지 못했지만, 오히려 청소년 개개인의 집중도와 만족도는 높아졌다. 많은 청소년을 직접 대면하는 자리에서는 사진을 찍기 싫어 고개만 숙이고 있던 청소년들이 스스로 고개를 들어 자신의 사진을 찍기 시작했고, 쉬운 물음에도 대답을 어려워만 하던 청소년들이 자신의 이야기와 고민을

비대면 프로그램은
대면보다 참여자의 수는 적고
비교적 전문적인 체험거리는 제공하지 못했지만,
오히려 청소년 개개인의 집중도와
만족도는 높아졌다.

털어놓기 시작했다. 또래 관계에서만 그쳤던 동아리 활동이나 청소년 활동이 부모와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발전했고 오히려 가족 간의 대화 거리를 마련해 주기도 했다.

다만, 비대면이라는 특성에 기대어 스스로없이 내뱉는 청소년들의 언어 습관에 대해선 개선이 필요하고, 온라인상에서의 인성교육도 필요할 것 같다. 또한 대면에서만 느낄 수 있는 공감을 비대면으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전할 것인가도 청소년지도사들이 깊게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

또래 관계에서만 그쳤던 동아리 활동이나
청소년 활동이 부모와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발전했고
오히려 가족 간의 대화 거리를 마련해 주기도 했다.

코로나 사각지대에 놓인 학교밖 청소년

코로나19 초반, 확산세가 심각했던 대구·경북지역의 센터를 응원하기 위해 전국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현장에서 후원금 2,000만원을 모아 보냈다. 후원금은 당장 필요한 마스크를 구매하는 데 쓰였다. 그렇게 대구·경북지역만 지원하면 상황이 나아질 줄 알았는데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상황은 더 어려워졌다.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으로 공적마스크 제도가 생겨났고 지정된 날에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마스크를 살 수 있었다. 그 당시 주민등록증과 등본을 가지고 약국을 방문해야했는데 학교밖 청소년들은 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었다. 학생증이 없는 탓에 자신의 신분을 증명할 수 없어 마스크를 사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고, 거동이 불편한 조모의 마스크를 구매하려다가 신분을 확인할 수 없어 거부당하는 일도 있었다.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전국청소년상담복지센터협의회에서는 몇몇 기업체에 도움요청서를 보냈고, 마스크 총 4만장을 후원받아 전국 센터에 보내기

13 이 글은 심수현 구로구청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센터장이 집필하였음.

도 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각 센터에 돌아가는 것은 백 장에서 이백 장 남짓한 상황이었다. 학교밖 청소년들은 코로나19 방역에 필수인 마스크마저 쉽게 구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

공교육시스템 안에서는 긴급돌봄이라는 명목으로 아이들을 돌봤지만, 학교밖 청소년을 만나는 센터에서는 온전히 비대면으로만 사업을 진행해야만 했다. 이에 학교밖 청소년들의 무기력은 커져만 갔다. 검정고시 준비를 해야 하는데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게 됐고, 비대면 멘토를 연결해줘도 한두 번의 만남 이상은 기대하기 힘들었다. PC방 출입이 가능했을 때 차라리 센터에 나와 개별적으로 검정고시를 준비했더라면 어땠을까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하지만 방역체계를 무너지게 할 수 없어 이런 현장의 고민들을 행동으로 옮길 수는 없었다.

비대면 상담의 빛과 그림자

코로나 사태 초반에는 당장 눈앞의 불을 끄기 바빴지만 장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판단 후에는 비대면 사업을 구상하고 진행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핸드폰 영상 상담을 더 좋아하지 않을까 생각했고, 이에 언택트 사업이라는 거창한 시작을 준비했었다. 하지만 청소년들은 영상 상담을 꺼려했으며, 한다고 해도 0.1초 늦게 전달되는 온라인상의 거리감 때문에 깊은 상담은 진행될 수 없었다. 상담선생님이 전달해야 하는 삶의 의지, 따뜻한 온기를 영상으로 전하기엔 한계가 너무 컸다. 아이들과 영상으로 상담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체감하며, 우리는 어떻게 아이들을 만나야 하는지 고민이 늘어가는 나날의 연속이었다.

점차 코로나블루라는 심리방역의 주제들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비대면으로는 대면상담만큼 사람의 마음을 돌보기 쉽지 않단 걸 느꼈지만 마냥 손을 놓고 있을 순 없었다. 우리는 찾아가는 코로나블루 부모상담을 시작했다. 여기서 찾아간다는 것은 장소를 불문하고 영상으로 만나는 의미이다. 코로나19로 지인과의 물리적 거리가 현저히 떨어진 탓에 자녀와 밀착된 일상을 살아가며 힘든 지점들을 나눌 사람이 사라졌다는 것을 떠올렸고, 그런 부모들에게 영상으로라도 만나 도움을 주고자했다.

실제로 비대면 부모교육을 진행하다보니 부모들도 한계가 왔음을 느

길 수 있었다. 아이의 얼굴만 봐도 화가 치민다고 하는 부모, 순간적으로 감정이 북받쳐 눈물을 보이시는 부모도 있었다. 코로나로 인해 자녀와 장시간 같이 있어야하는 상황에 부모들의 감정통제가 힘들어지는 시점이 온 것이다. 화를 내고 반성하고 자녀들과 지지고 볶는 시간의 반복에 부모들도 점점 지쳐갔다.

한 아이가 말했다. 코로나로 사회가 멈춘 지금이
오히려 위로가 된다고. 나만 정지해 있는 것이 아닌
모두가 정지해있는 상황이 위로가 된다는 것이다.

한편 코로나19로 밖으로 나오지 않고 집에만 있는 청소년들이 늘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은둔형 청소년들과의 접점이 생기게 됐다. 취업준비 후기청소년 중 한 아이가 말했다. 코로나로 사회가 멈춘 지금이 오히려 위로가 된다고. 나만 정지해 있는 것이 아닌 모두가 정지해있는 상황이 위로가 된다는 것이다. 어쩌면 은둔형 청소년들도 모두가 집에만 있어야 하는 현재 상황에 위로받았을지도 모른다. 코로나19로 온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자 내년에는 집콕청소년에 대한 비대면 사업들을 시도해볼 생각이다.

손을 잡아야만 하는 아이들

코로나19 장기화로 잠시일 줄 알았던 휴관도 기약 없이 길어졌다. 그럼에도 청소년상담복지현장에서는 청소년들의 구조요청을 외면할 수 없어 휴관이라는 팻말을 걸어두고 아이들을 만날 수밖에 없었다. 4~5년 전부터 청소년 자해 및 자살은 청소년상담복지현장의 큰 주제였으며 이에 대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보급되는 단계에 있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는 고위험군 아이들을 더 사지로 내몰았다. 팬데믹 이후 자살률이 증가했다는 것이 실제 수치로 나타났고, 몇몇 지역에서는 자살시도로 인한 긴급개입의 사례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센터는 외관상으론 휴관상태였지만 내부는 초긴장상태였다.

1차적으로 고위험군 청소년들은 무조건 만나야 한다는 당위성이 커졌다. 당장이라도 죽겠다는 아이들을 뿌리칠 순 없었던 것이다. 우리의 행

위들이 사회의 방역체계를 뒤흔드는 일이 될지라도 아이를 만나서 인공호흡을 해야만 했다. 그들을 만나러가는 우리의 발걸음도 마냥 가볍진 않았다. 때로는 무게감에 짓눌려 악몽까지 꿔지만, 아이들을 만나지 않는 것 자체가 아이들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생각에 차마 발걸음을 멈출 순 없었다. 아이들을 살리기 위한 행위가 정부의 방역체계에 반하는 행위이라는 게 현실이었다. 현장은 여전히 갈등한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 걸까?

상담복지시스템 속 청소년지도자는 청소년을 구조하는 입장에서 항상 그들의 삶을 돌본다. 이번에도 아이들을 제대로 구조하지 못하면 어찌지? 하는 불안감이 크다. 청소년들의 적응력은 사회의 변화보다도 앞서간다. 때문에 그 뒤를 쫓기 바빴던 청소년복지체계 안에서 우리가 이번에도 또 아이들을 구조하지 못한다면 영영 희망을 품지 못하는 게 아닌가하는 생각도 든다.

변화를 위해 유연성을 지닌 혁신이 필요하다. 정부시스템에서 과감하게 예산을 투자하고 체계 변화의 결단도 내려야한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이들을 만날 수 없어 답답했던 상황들, 학교밖 청소년들의 긴급돌봄은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방역체계 때문에 최소한의 청소년안전망도 가동하지 않는 게 바람직한지 하는 고민들은 긴급하게 변화해야하고 결단해야 할 상황에서 어느 누구도 결단내리지 않았기에 생긴 게 아닐까 싶다.

우리는 코로나19를 처음 경험했다. 다들 처음이라 작은 단위까지 신경 쓰지 못했을 것이다. 이제 다시 시작해야 한다. 이제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최소한의 청소년안전망은 가동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청소년상담복지현장의 청소년안전망은 불을 끄는 소방대원과 같은 심정으로 아이들을 돌본다. 화재현장에 출동해야하는데 코로나 시대이니 비대면으로 불을 꺼야 한다고 말하는 상황이 납득될 수 없듯이 위기청소년을 만나는 최전선의 안전망은 언제나 가동되어야 한다. 실제로 코로나가 절정이었던 시기, 자살 시도 후 병원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보호자가 없어 청소년상담사가 옆에서 돌봐야 하는 상황이 생겼었다. 그런데 당장 위기청소년에게 달려가야 하는 상황에서 돌아오는 답변은 비대면상담만 가

방역은 지켰지만, 생명을 살리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이게 청소년상담복지현장의 현실이다.

능하다는 것이었다. 어른들의 눈을 피해 화장실로 달려가 자살시도를 하는 청소년을 비대면상담만 가능하다는 원칙 때문에 잡을 수 없다면, 그 청소년상담사가 감당해야 할 무게는 누가 나뉘질 수 있을까? 방역은 지켰지만, 생명을 살리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이게 청소년상담복지현장의 현실이다. 이 체계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아이들을 돌볼 수 있을지 청소년상담사의 고민의 무게를 같이 나누고, 체계의 변화를 위해 목소리를 내야한다.

코로나19 이후 청소년지원체계의 변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대로 멈추었던 것을 기억해야 한다. 유연하지 못한 대처로 아이들을 구조하기 힘들었던 상황을 기억하고, 앞으로의 청소년지원체계의 변화를 위한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코로나블루’라는 신조어가 생겼고 심리방역체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청소년 사이버상담 수요가 전년대비 24.3% 증가했다(’19.2~5/80661건 → ’20.2~5/100,237건, 여성가족부, 2020).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가출, 범죄, 자살, 학업중단 등 위기청소년 비율이 증가했었다.

가출청소년(명)		소년범죄 (14~18세, 명)		청소년자살 (인구10만명당)		고등학생 학업중단율(%)	
'07	'10	'07	'10	'07	'10	'08	'10
18,636	28,124	74,413	89,331	8.0	8.3	1.8	2.0

출처 : 여성가족부, 2020

앞으로 수립될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은 이러한 국가적 위기 상황 후의 사회심리서비스에 대한 내용이 전면으로 부각되어야 하며, 지원체계 개편 및 구조의 변화가 필요할 것이다. 청소년의 성장을 위해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가장 기초적인 청소년안전망은 가동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변화의 필요성을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몸소 체험했다. ■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왔다. 불과 1년 전만해도 코로나19가 우리 삶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연초에는 ‘이러다 나아지겠지’ 하는 낙관적인 기대를 하며 이 사태가 금방 지나갈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2월 말부터 우리나라 상황도 심각해졌고 우리의 삶은 180도 변하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내가 일하고 있는 청소년상담 현장은 큰 고민에 빠졌다. 코로나19로 인한 갑작스러운 비대면 상황으로 상담이 절실한 위기청소년을 만나지 못하게 됐기 때문이었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전국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청소년 쉼터 등과 같은 기관을 지원하는 일이 주요 역할이므로 더욱 고민이 많았다. 학교 폐쇄로 수업도 멈춘 상황에서 청소년들은 갈 곳 없이 집에서만 시간을 보내게 됐고, 이로 인한 불안과 우울이 심화되기 시작했다. 이는 어른인 나도 마찬가지였다. 주기적으로 만나 상담을 해왔던 청소년들을 만날 수 없었고 계획했던 모든 일정들이 어그러지면서 무기력과 불안을 느끼는 날들이 늘어갔다. 언제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기약도 없는 상황이었지만 마

14 이 글은 소수연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상담연구위원이 집필하였음.

냥 손놓고 있을 순 없었다.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의 역할을 다해야 했다. 이에 우리 기관에서는 몇 가지 시도를 시작했다.

가장 시급했던 문제는 위기청소년들을 대면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만날 방안을 찾는 것이었다.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같은 센터들도 폐쇄되면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려는 여러 노력들을 시도하던 참이었다. 우리 기관에서는 여러 방법 중 화상상담을 시도하기로 했고,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화상상담 매뉴얼’을 개발하기로 했다. 팬데믹 사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기관 내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화상상담 매뉴얼 개발 TF팀을 조직했다. TF팀에서는 2개월 동안 국내·외 연구와 운영 사례, 관련 매뉴얼 등을 자료조사 하였으나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매뉴얼은 없었다. 다른 유관 기관들도 갑작스러운 언택트 상황에서 어떻게 내담자를 만나고 개입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참고할 만한 자료가 거의 없었다. 수소문 끝에 화상상담을 시도하고 있는 몇몇 기관의 관련 전문가를 비대면으로 인터뷰할 수 있었고, 얼마 안 되는 연구와 해외 자료들을 토대로 매뉴얼 개발을 시작했다.

자료조사와 현장 전문가들의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우리는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것들을 보기 시작했다. 첫째는 이미 상담현장에서 과학기술을 접목한 다양한 언택트 상담 방법이 시도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빅데이터를 분석한 자료로 챗봇(Chatbot)을 개발하거나 가상현실(Virtual Reality: VR)을 상담에 적용하는 등 다양한 기술들이 상담에 사용됐고, 효과성을 검증하려는 노력도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었다. 특정 이론 기반의 상담기법을 활용한 상담 프로그램과 마음 챙김과 같은 정서 조절 프로그램이 앱으로 개발되어 누구나 혼자, 언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도록 상용화되어 있다. 또한 국외에서는 가상현실(VR)을 활용한 상담방법이 전쟁·재난 등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내담자, 대인공포증·비행기공포증 등 특정 공포증과 같은 극심한 불안을 겪는 내담자에게 활용되고 있으며 그 효과가 높다는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다. 이제는 누구나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를 활용한 다양한 상담 방법이 개발될 것이라는 전망들도 나오고 있다.

둘째는 화상상담의 장점과 다양한 활용 방안이다. 연구에 의하면 화상상담은 전화나 채팅상담과 같은 다른 비대면 상담보다 대면상담의 특성 및 효과성이 가장 유사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화상상담은 화면으로

내담자의 움직임 볼 수 있어 상담자가 시각적인 단서를 얻을 수 있으며, 내담자에게 익숙한 공간에서 상담이 진행되기 때문에 자신의 문제를 보다 솔직하게 드러내어 이야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장점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나 상담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상담자와 내담자가 서로 시간을 맞추기만 하면 온라인에서 만나 상담을 할 수 있으므로 해외 내담자나 집 밖으로 나오기 힘든 내담자도 상담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상담실이라는 물리적 공간이 필요하지 않아 경제적인 효과도 높고, 상담 장소를 오가는 시간도 절약할 수 있다.

셋째는 화상상담은 대면상담이 불가능했던 사각지대 청소년을 포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가 화상상담 매뉴얼을 개발하면서 얻은 가장 큰 수확 중 하나는 우리 주변에 심리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청소년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대면상담이 중심이었을 때는 직접 내담자들을 만나서 검사를 하거나 상담을 했기 때문에 그 외 대상자들을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비대면으로 상담할 수 있게 되자 새로운 대상자들이 우리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해외교포, 도서산간, 병원 학교(소아암 등으로 장기간 병원에 입원한 아동·청소년들에게 학습을 제공하는 기관) 청소년들이다. 이들은 물리적인 제약으로 상담 접근성이 낮아 상담을 받고 싶어도 받지 못했던 심리지원 서비스 사각지대에 있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19 팬데믹의 대응으로 시작한 화상상담이 상담 대상자를 확대시켰다. 지역 내 청소년뿐만 아니라 물리적 제약을 넘어서 국내외 어디든 상담을 원하는 청소년들에게 다가갈 수 있게 된 것이다.

우리는 이와 같은 화상상담의 장점을 매뉴얼에 담고자 노력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청소년상담 현장에서 실제 화상상담을 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상담 절차와 준비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렇게 개발된 ‘화상상담 매뉴얼’을 8월 말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청소년복지시설에 보급했고, 이후 청소년상담기관과 상담관련 학회에서 많은 관심을 보여 수차례 강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는 상담 현장에서 화상상담에 대한 정보가 절실했지만 관련 자료들이 턱없이 부족했다는 걸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현상이었다.

나아가 우리 기관에서는 실제 상담 사각지대 청소년들을 발굴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화상상담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해외교포 청소년 중 우리 기관과 교류가 있는 국가의 한인학교 2곳과 지역 청

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연계하여 도서산간 청소년들 중 상담을 받고 싶어 하는 대상자를 지원받아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상담을 통해 이들 청소년들은 개인적 고민이 많았으나 주변에 함께 나눌 대상이 없었음을 알게 됐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상담 환경을 급격하게 바꾸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들을 지켜보고 대응을 하면서 느낀 점은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이다. 우리는 이러한 환경 변화를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신속하게 반응해야 한다. 물론 지금의 상황이 부정적인 것은 맞지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려하느냐에 따라 새로운 것들을 볼 수 있고,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다. 화상상담에 대해 고민하다 보니 우리가 보지 못했던 청소년들을 알게 되고, 상담의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야겠다는 사명감이 들었던 것처럼 말이다. 물론 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가능한데, 화상상담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상담 환경을 급격하게 바꾸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들을 지켜보고 대응을 하면서 느낀 점은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이다.
우리는 이러한 환경 변화를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신속하게 반응해야한다.

상담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해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환경 변화에 맞춰 우리도 변해야 살아남는다는 사실을 진화론을 통해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상담도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여 내담자에게 다가가도록 진화하지 않으면 도태된다. 청소년들은 새로운 과학기술의 변화에 대한 저항이 낮다. 그만큼 변화에 잘 대응한다. 청소년 기관은 청소년들의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에 하던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하고 사고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담자를 포함한 청소년지도자들의 넓은 시각과 열린 마음이 중요하며 다양한 접촉을 하려는 노력이 필수다. ■

어린 시절, 주인공과 힘을 합쳐 악당을 무찌르는 변신 로봇 만화영화는 보고 또 봐도 재미있었다. 어려움을 극복하는 주인공도 멋졌지만 때에 맞춰 변신하는 로봇이 신기했기 때문이다. 코로나19라는 못된 악당이 나타난 지금, 멋진 주인공과 힘을 합칠 변신 로봇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해 본다.

새로운 빌런 출현 - COVID-19

대구에서 코로나19가 급작스럽게 확산되던 2월 말, 휴관과 짧은 개관의 반복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혼란의 시기가 시작됐다. 이제 막 모집을 시작했던 동아리는 오리엔테이션도 하지 못해 멤버십을 쌓지 못했고 각종 외부 활동도 금지됐다. 이때까지만 해도 코로나19 상황이 이렇게 길게 갈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신종플루나 메르스처럼 조금만 있으면 나아지겠지 하는 생각이 커서 잠깐의 휴관기간동안 무엇을 할지에 대해 고민을 시작했다. 먼저, 꼭 해야 하지만 하루하루 사업을 해나가기 바빠서 하지 못했던 직원 교육, SWOT분석, 비전세우기, 중장기평가에 집중했다. 아이들을 만나기 전에 내공을 쌓고자 했다. 어쩌면 변신 로봇을 가동하기 위한 소중한 워밍업 시간이었는지도 모르겠다. 난세를 구하는 변신 로봇의 모습이 시대의 변화와 과학의 발달에 따라 정교해지듯이 말이다.

15 이 글은 서영욱 진해청소년수련관 관장이 집필하였음.

이렇게 코로나19가 장기간 지속된다고 마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었고 아이들이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장이 무엇인지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 시도 해보아야만 했다.

주인공과 함께 가정 안에서 꿈틀거림 - 히어로의 탄생

매일 봐왔던 방과후아카데미 아이들이 가정 돌봄으로 맡겨지게 되어 걱정이 많았다. 학교 수업이 원격으로 변경됐을 때 컴퓨터가 없어 후원처를 연결해줘야 했던 세대가 있을 정도로 열악한 환경의 청소년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럴 때일수록 수련관에서 놓치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일까? 지도자들과 심도 깊은 회의를 한 결과, ‘가족 간의 소통’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이에 가족에 대한 감사와 사랑을 표현할 수 있도록 미션을 주고 인증샷을 받는 아주 기초적인 활동부터 시작해봤다. 아이들은 새로운 시도에 흥미로워했다. 이러한 작은 활동 경험들이 쌓여 현재는 온택트 자치회의, 찾아가는 생일파티, 키트 완성형 프로젝트 등 그 형태도 다양해지고 있다. 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들도 이제는 각자 가정에서 영상을 만들고 가족과 함께 나누며 주체적인 활동의 주인공이 되고 있다.

주인공과 함께 지역에서 꿈틀거림 - 히어로의 성장

진해청소년수련관은 지속적으로 관계해온 청소년뿐만 아니라 지역 내 모든 청소년에게 도움이 되고자 했다. 그래서 ‘슬기로운 코로나 극복 생활, 나 하나, 너 하나 청굴청 만들기’를 기획했다. 청소년이 있는 가정에 드라이브스루로 청굴청 제작 키트를 배포한 뒤, 기관에서 사전 제작한 동영상 유튜브로 제공하여 직접 청굴청을 만들어 보는 방식이었다. 일명 가족과 함께하는 키트형 체험활동인데 지금은 보편화되었지만 이 프로그램을 기획할 당시에만 해도 흔하지 않은 활동이었다. 100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하려했으나 지원이 많아 170여 가구로 확대하여 진행했다. 이 프로젝트가 단순히 청굴청을 만드는 데서 그쳤다면 울림이 적었을 것이다. 청소년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청굴청을 만들고 그 과정을 부모님이 영상으로 찍었

으며, 만든 청굴청을 마음을 전하고 싶었던 친구나 이웃, 코로나19로 애쓰는 분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이 있어 큰 울림을 주었다. 실제로 코로나19로 몸도 마음도 지쳤던 아이들이 스스로 만들어나가는 활동을 하면서 활력도 생겼고, 청굴청을 나누며 잠시라도 친구와 이웃들을 만나 소통할 수 있어서 좋았다는 피드백을 받기도 했으며, 많은 참여자들이 보내준 영상을 통해 힘든 상황 속에서도 곳곳하게 성장하는 청소년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진해마을 행복그리기’ 온라인 사생대회를 개최했다. 사생대회를 위한 기획단으로 청소년과 지역주민이 함께 했다. 이들은 주제 선정부터 사생대회 이후 마을 굿즈를 제작하고 전시회를 열기까지 장장 4개월 동안 끊임없이 소통했고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모두가 만족하는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다.

한편, 지역아동센터나 장애인복지관, 요양원, 노인복지센터와 같이 지역사회기관과 연계하는 동아리들은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아이들은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활동할 준비가 되어있었지만 오히려 연계기관들이 문을 닫아버렸다. 이런 위기 상황일수록 우리의 주인공은 더욱 힘을 발휘한다. 당시 청소년들은 학교를 가지 못해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음에도 오히려 어르신을 걱정하는 마음에 온라인으로 편지를 작성했고, 어르신이 편히 드실 수 있는 부드러운 바나나까지 준비해 담당 지도사에게 전달을 부탁하기도 했다. 공방에서 직접 만든 쿠키를 응원의 편지와 함께 보건소나 소방본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이처럼 각각의 동아리는 정말 멋지게 스스로 성장하며 주체적인 주인공이 되고 있었다.

과거 나라를 잃었을 때도, 민주화를 향한 과감한 목소리가 필요할 때도 항상 청소년이 앞장서 있었다. 그 뒤에는 청소년을 지지하는 부모와 선배가 있었다. 이처럼 청소년이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가족이 단단한 버팀목이 되어야 하며, 청소년수련관은 든든한 선배처럼 때로는 동기를 부여해주고 때로는 지역사회의 연결고리가 되도록 변신해야한다.

지역사회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꿈틀거림 - 히어로 어셈블

모든 세상이 멈춰진 듯한 상황 속에서 반성의 시간을 가져본다. 청소년수련관은 지역사회 청소년들을 위한 일이라면 늘 앞서고 늘 최고이며 변화

하는 시대에 가장 빠르게 적응하고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는 유일한 전문 시설이라는 오만함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나? 과연 청소년수련관은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는가? 애초에 그것이 맞는가? 여기에 대한 답은 모두가 예측하겠지만 당연히 ‘No’다.

독야청청도 의미가 있겠지만 성장하는 청소년에게는 작은 곤충, 다람쥐, 새와 같은 모든 생명이 더불어 사는 건강한 숲이 더욱 필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청소년성장지원네트워크 사업은 지역사회 모두가 주인공이 되어 숲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진해청소년수련관도 2020년 시범사업에 참여하면서 코로나 시기임에도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연결망이 더욱 촘촘해지고 있음을 체감하고 있다. 청소년이 마음껏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청소년 시설과 지역사회가 함께 연대하여 건강한 숲을 이루는 것은 정말 멋진 풍경이라고 생각한다.

우리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은 이미 온라인과
더불어 살고 있었는데 변신 로봇이 되어야 하는 청소년시설은
여전히 무쇠팔, 무쇠다리로만 대응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본다. 이제 청소년시설은 위드 코로나 시대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다양한 기능을 갖춰야하고 관계만큼은
더욱 섬세하게 접근해야 한다.

코로나19는 스쳐 보냈던 일상을 감사함으로 되돌아보게 한다. 청소년의 생기발랄함으로 가득했던 청소년수련관의 분위기와 언제 철이 들까 하며 아이들과 투닥거렸던 일상이 그립다. 그동안 경험해 왔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알 수도 없고, 한편으론 돌아가는 게 맞나하는 생각도 든다. 우리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은 이미 온라인과 더불어 살고 있었는데 변신 로봇이 되어야 하는 청소년시설은 여전히 무쇠팔, 무쇠다리로만 대응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본다. 이제 청소년시설은 ‘위드 코로나 시대’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다양한 기능을 갖춰야하고 관계만큼은 더욱 섬세하게 접근해야 한다. 이미 준비된 청소년 주인공들과 힘을 합쳐 코로나19 보다 더한 난관이 닥쳐와도 극복할 수 있도록 세련되고 정교하고 다양한 기능을 만들어내는 변신 로봇이 되어야 한다. ■

2020년 2월, 대구·경북의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하게 증가했다. 이에 정부는 대구를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범 정부차원의 지원을 시작했으며 공공기관의 휴관 및 이용자제, 집합 행위 금지 등 여러 조치사항을 발표하고 시행했다. 이로 인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공익사업을 운영하던 청소년 시설들도 전례 없는 휴관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고, 시설에서 일하는 청소년지도사들은 손 놓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

코로나19 혼란 속 새로운 시작

청소년시설은 휴관으로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청소년과의 대면이 불가능해졌다. 청소년지도사들은 청소년들을 만날 수 없는 시간에 지쳐갔지만 그럴수록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다. 이에 대구광역시 청소년문화의집은 기존의 청소년 사업을 비대면 방식으로 변경하여 운영하기 시작했다.

16 이 글은 우선미 대구광역시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사업팀원이 집필하였음.

지난 2월부터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청소년들은 외부 출입을 자제했고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아진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 맞춰 4월에 아무놀이 ‘집콕’ 챌린지를 진행했다. 청소년이 코로나19의 상황을 어떤 방식으로 극복하고 이겨내는지 사진 또는 영상을 SNS에 올리는 릴레이 캠페인이었다. 이 챌린지를 통해 많은 청소년들이 온라인 환경에서 함께하며 서로에게 위안이 되어 주었다.

5월에는 책상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진 청소년들을 위해 ‘온! 마이 데스크’을 진행했다. 책상 위 플라스틱을 줄이고 하루일기를 써서 나의 하루와 앞으로의 다짐을 정리하는 프로그램이었다. 6월에는 식용반려식물을 키워 관찰일지를 작성하는 프로그램인 ‘그린 메이트’를 진행했다. 이 두 프로그램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생긴 우울감을 해소하고 성취감을 향상할 수 있도록 했다. 나아가 청소년의 올바른 환경 인식을 제고하고 지구환경 변화를 위한 행동변화의 필요성도 전했다. 이외에도 5월 중순에는 ‘건강 챌린지’, 7월에는 ‘요리 콘테스트’, 9월에서 10월에는 ‘재활용 분리배출 챌린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청소년의 심리적, 육체적 혼란을 조금이나마 줄이고자 노력했다.

우리 기관의 청소년지도사들은 기존 대면 방식의 사업이 아닌 비대면 방식도 충분히 청소년들의 성장과 발달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 그리고 질 좋은 비대면 프로그램을 기획하기 위해서는 시설과 청소년 지도사 개인의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어 변화하기 시작했다.

코로나로 변화하는 청소년 사업

대구광역시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 사업은 동아리 활동에 주력해 왔기 때문에 비대면 전환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청소년 활동 영상을 제작하려 해도 영상 촬영이란 것 자체가 생소한 시점이었고, 교육이나 홍보, 정보를 제공하기위해 영상을 보여주려 해도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스트리밍과 영상 편집을 할 수 있는 청소년지도자가 없는 상황이어서 영상을 통한 청소년 사업 운영은 난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우리 기관은 비대면 청소년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촬영장비와 스트리밍 및 영상 편집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했고 청소년지도사들은 연

출, 촬영, 영상 편집 등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힘썼다.

이러한 노력과 성과를 바탕으로 지난 8월 12일 ‘세계청소년의날 기념행사’를 비대면으로 진행했다. 기존의 축제형 대면 프로그램을 비대면으로 전환하여 축하 영상과 청소년 정책 좌담회영상을 직접 촬영, 편집하여 만들었다. ‘세계청소년의날’을 인지한 청소년이 스스로에게 하는 축하 메시지를 댄스로 표현하여 찍은 영상도 실시간으로 송출했다. 스트리밍은 처음 시도하는 것이라 청소년지도자들의 작은 실수도 있었지만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새로운 도전과 실수로 만들어낸 2020년 ‘세계청소년의날 기념행사’를 온라인을 통해 전국의 청소년들에게 전하게 되어서 감회가 남달랐다.

대구시민정신프로젝트 ‘청소년도 시민이다!’ 사업은 대면과 비대면을 혼합한 스말로그(smalogue) 모델을 도입하여 운영했다. 스말로그 모델이란 스마트(Smart)와 아날로그(Analogue)의 합성어로 인터넷 환경에 중점을 두되, 인터넷 환경에서 적용하기 어려운 활동은 대면활동으로 풀어나가는 혼합 활동을 말한다. 대구시민정신프로젝트는 국채보상운동과 2·28민주운동으로 대표되는 자랑스러운 대구시민정신을 되새기고 기념하기 위한 시민 주도형 축제로서 2월 21일부터 28일까지 1주일간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연기됐다. 기존 사업은 청소년 포럼 형식으로 청소년들의 학습, 스터디, 토론 진행 후 시민정신을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었다. 하지만 코로나 시대에 청소년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이 최우선임을 고려하여 사업을 기획했다. 9월 10일에서 11일까지 양일에 걸쳐 청소년 사회참여 활동의 시작을 알리는 연극형 ‘선포식’ 영상과 과거 청소년 사회참여활동인 ‘2.28 민주운동’, ‘3.15 의거’, ‘4.19 혁명’까지의 역사적 사실을 1인칭 게임 형식의 영상으로 촬영했다. 제작된 영상은 비대면으로 청소년들에게 제공하여 역사 속에서 청소년의 역할에 대해 학습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제공된 영상과 온라인 학습을 바탕으로 9월 26일에는 ‘온라인 퀴즈쇼’를 스트리밍하기도 했다. 대면활동으로는 현재를 살아가는 청소년들의 시점에서 본 사회참여활동에 대한 생각을 포스터 그림으로 그려 포트폴리오를 제작했다. 10월 24일에는 발표회를 열어 청소년들의 사회참여활동에 대해 들어보았다. 코로나 시대의 청소년 사업에 스말로그 모델을 적용하자 참여 청소년 대다수가 만족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향후 청소년 수련시설 사업 방향 제언

코로나19는 앞으로의 청소년 사업 운영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2020년 대구광역시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 사업을 비대면방식과 스말로그 모델을 적용하여 운영한 것을 바탕으로 청소년 시설의 청소년 사업 방향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첫째, 청소년 시설의 사업은 외부환경을 고려하여 유동적이고 상시 대안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상·하향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는 사업을 기획해야 한다. 이를 통해 운영방식을 선택하고 대안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사업의 취소나 연기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둘째, 촬영 및 편집, 스트리밍 장비를 확보해야 하고 영상 관련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 코로나 시대 청소년 사업은 비대면 운영 방식이 주를 이룰 것이라 생각된다. 이를 위해서는 장비, 인력,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다. 인력확보 방안으로는 시설의 청소년지도자들을 장비 활용 전문가로 양성하는 것이 있다. 장비 활용에 대한 온·오프라인 교육을 진행하고 역량을 강화하여 장비 활용에 있어 전문가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청소년수련시설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청소년지도자 인원이 부족할 경우 외부 전문가와 협력하는 방법도 있다. 영상 장비, 소프트웨어 확보를 위해서 시설의 예산 검토를 통해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만약 시설 내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부부처나 지자체의 비대면 시스템 구축 사업과 같은 공모에 참여하여 장비와 시스템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공모사업 운영에 따른 자산성 물품 구입의 불가 조항은 상호간의 협의를 통해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비대면 청소년 활동 모델의 적용이다. 기존의 청소년 사업은 대면활동 중심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응하기 쉽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시설의 청소년 사업 운영 방법과 구조를 파악하여, 각 사업을 활동 모델에 적용하고 운영해보아야 한다. 제시하고자 하는 활동 모델은 인터넷 환경이 중심이 되어 별도로 개설된 온라인 플랫폼의 공간을 활용하여 진행하는 ‘랜선(Lan-線) 모델’, 활동에 필요한 체험세트와 결과를 상호 배송하여 이루어지는 ‘딜리버리(Delivery) 모델’, 인터넷 환경에 중점을 두고 인터넷 환경에 적용하기 어려운 활동은 대

면활동으로 풀어가는 ‘스말로그(Smalogue) 방식’, 기존 대면활동 개념과 운영방식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불특정 다수 참가자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블렌디드(Blended) 모델’이 있다. 활동 모델의 적용은 새로운 사업을 기획하는 것이 아니다. 기존의 사업을 활동 모델에 적용하여 분류 후 운영방식에 따라 운영해 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대면 회의를 통해 공예활동을 운영하는 사업이 있다면 랜선모델을 적용하여 온라인으로 회의하고, 딜리버리 모델을 적용하여 세트를 참가자에게 제공한 뒤 결과물을 되돌려 받는 방식이다. 이렇듯 청소년 시설 사업에 비대면 활동 모델을 적용한다면 코로나 시대 청소년 사업의 운영 체계를 확립할 수 있다. 나아가 지속적인 청소년 사업 운영과 건강한 청소년의 성장도 도모할 수 있다.

지금까지 대구광역시청소년문화의집에서 2020년 2월부터 현재까지 코로나 시대 청소년 사업을 어떻게 준비하고 진행하였는지 살펴보았다. 청소년계의 위기는 항상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위기를 이겨내고 개척해 온 저력이 있다. 지금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우리는 청소년과 개인, 시설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현 시대를 살아가는 청소년지도자의 역할과 필요를 자각하여 위기를 이겨나가는 청소년지도자가 되기를 바란다. ■

코로나19로 급변한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활동의 대안으로 온라인 플랫폼 공간을 제시하고 있다. 동시에 온라인 기기와 같은 도구의 발달을 강조하면서 장비가 갖춰지기만 한다면 비대면 환경에서도 청소년참여가 활발하게 이뤄질 것이라는 긍정적인 예측을 하고 있다. 오프라인 참여가 제한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온라인 환경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것과 그것을 위해서는 온라인 도구를 능숙하게 활용해야 한다는 것. 그 두 가지가 강조되었다.

코로나19는 오프라인 교육에서 온라인 교육으로 대전환을 요구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학습자의 주도적 학습이 더욱 중요해졌다.¹⁸ 학습자 주도형 온라인 교육의 경우,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지 못한다면 학력저하와 학력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¹⁹ 이는 교육영역 뿐만 아니라 청소년 활동 영역에서도 발생하는 문제이다. 기존 오프라인 청소년 활동이 중단되면 활동을 통해 형성되는 청소년 역량 측면에서도 격차가 심화될 우려가 있다.

17 이 글은 이윤주, 최홍일, 변주영, 김주영, 김다인, 홍정윤, 이미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으며, 'COVID-19가 초래한 비대면(언택트)시기, 청소년활동의 제도약: 청소년 참여를 중심으로(2020), 한국청소년활동연구, 6권 4호 pp.143-172.'을 중심으로 재구성한 것임.

18 오동주, 황홍섭, 2020

19 Sintema, Edgar, John, 2020; 오동주, 황홍섭, 2020 재인용

청소년 활동 공간이 온라인으로 확대된 만큼 기존의 오프라인에서 활동 기회를 갖지 못한 다수 청소년들이 더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 또한 청소년이 처한 환경에 따라 온라인 기기에 대한 접근성과 도구 활용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동시에 청소년 정책도 적극적으로 지원되어야 한다.²⁰

미국과 호주의 비대면 원격교육

미국과 호주는 코로나19가 급속하게 확산되자 봄방학을 전후로 주정부 차원에서 수업을 온라인으로 전환했다. 정부 차원에서 교육 시스템을 주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으로 우리나라와 유사하지만²¹ 미국은 교육체제 운영이 주별로 분권화되어 있어서 교육구마다 시행하는 정책지원이 다르고, 호주는 교육정책을 주정부가 관할하며 코로나19의 대응 또한 주정부를 중심으로 대응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차이가 있다.²² 연방정부는 의료·보건 종사자 자녀 등을 위해 공식적으로 휴교 발표를 하지 않고 주정부의 판단에 맡긴다. 주의 특성을 고려하여 조기방학을 실시한 후 자율등교, 온라인 개학 등 온라인 학습을 권장하는 방식으로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했다.²³

우리나라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지원은 교육부와 각 지역단위 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교육과정 재편성은 EBS와 학교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교육 플랫폼 및 콘텐츠 결정이 정부 차원에서 결정되고 지역 단위 교육(지원)청과 학교 단위에서 그것을 활용하는 체계로 운영된다.

호주는 취약계층에 대한 학습지원이 세심하게 진행되고 있다. 온라인 기기 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국가 차원에서 아동·청소년의 학습을 우선적으로 보장한다.²⁴ 초등학교의 경우 부모와 자녀가 함께 수업에 로그인 할 수 있어 부모와의 소통이 원활하고 실시간 피드백이 가능한 시소(Seesaw)와 클

20 Sintema, Edgar, John, 2020

21 김현준, 2020:4

22 최희정, 2020: 86, 한국교육개발원, 2020:8

23 한국교육개발원, 2020:8

24 한국교육개발원, 2020:9

라스도조(Classdojo)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²⁵

비대면 원격교육을 통해 본 온라인 청소년 활동 준비

우리나라도 미국과 호주의 사례와 같이 원격교육에 취약한 학생을 위한 맞춤형 학습을 지원했다.²⁶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게는 1:1 방문교육을 지원했다. 다문화 학생에게는 중앙 및 시·도 교육청 다문화교육지원센터와 연계하여 다국어 가정 통신문을 제작 및 배포했으며, 다문화 언어 강사를 통해 한국어 교육을 지원하여 원격교육 콘텐츠 활용 시에 어려움이 없도록 했다. 저소득층 학생을 위해서는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협력하여 신청 학생 전원에게 스마트 기기를 대여하고 통신비를 지원했다. 그러나 학교박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습지원 방안은 미흡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원격교육을 더 적극적이고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정보통신기술 활용 역량 역시 중요한 요소이다. 교사들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만들기 위해 동일 교과나 학년 교사 간에 자발적 모임을 만들기도 했다. 이를 통해 원격수업 준비와 운영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했고 교사의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역량도 함양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학생의 학습 결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진행됐다.

코로나19 장기화가 예측되면서 교육부는 온라인 이론학습을 통해 자기주도적 학습을 하고, 오프라인 수업을 통해서는 프로젝트 기반 수업, 창의적 문제해결 수업, 협업 수업을 도입하고자 했다. 온·오프라인 방식이 혼합된 블렌디드 러닝(Blended Learning)을 대안으로 제시함으로써 각 시·도 교육청과 각 급 학교가 등교 수업을 준비 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통해 안정적으로 온라인 교육 콘텐츠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EBS, 커리어넷과 같은 주요 교육사이트에 대한 데이터요금 무과금을 6월 말까지 연장했다.²⁷ 취약계층 교육지원 사업으로 기존 저소득층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교육

25 최희정, 2020:88-90

26 교육부 보도자료, 2020. 4. 21

27 교육부 보도자료, 2020. 6. 1.

콘텐츠에 대한 데이터요금 지원을 초등학생까지로 확대했다.

학교교육 현장에서의 블렌디드 수업 방식은 청소년 활동 사업 운영에 많은 함의점을 가져다 준다. 청소년 참여의 경우 의사소통 기반으로 진행되는 활동이 다수인만큼 토의·토론 수업 및 프로젝트 단위 정책참여를 온·오프라인이 결합된 블렌디드 방식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블렌디드 방식은 오프라인 중심의 청소년 참여에서도 강조했지만 온라인 플랫폼의 활용을 넘어 운영 콘텐츠 차원에서도 논의가 필요하다.

청소년의 정보통신활용 역량

우리나라 청소년의 디지털 활용 현황은 어떠할까? 비대면 시대의 청소년 활동정책은 어떻게 이뤄지면 좋을까?

우리나라 청소년의 디지털 매체 활용 능력을 알아보기 위해 ‘2018 청소년역량지수’를 토대로 청소년의 정보통신활용능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생애학습역량 가운데 지적도구활용능력에 있어서 정보통신활용능력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청소년의 정보통신기기활용 역량

정보통신기기 활용 수준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가장 많은 37.9%(1,406명)의 청소년이 컴퓨터 및 휴대기기와 같은 정보통신기기 기능의 대부분을 활용하여 다양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고 했다. 다음으로 26.9%(998명)의 응답자가 정보통신기기 기능의 상당부분을 활용하여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의 21.0%가 정보통신기기의 기능을 부분적으로 활용하여 정보를 검색할 수 있으며, 14.2%의 청소년이 정보통신기기 기능의 대부분을 활용하여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상당수가 컴퓨터 및 휴대기기와 같은 정보통신기기를 기본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정보검색과 정보생산이 가능하다는 것을 다가올 비대면 사회에서 변화된 정보 생산과 습득, 활동의

참여 등 전반적인 환경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것이다.

청소년의 ICT 정보통신활용 역량

청소년들의 정보통신활용능력은 4점 만점 중 3.11로 높은 수준에 있다. 컴퓨터 및 스마트 기기 등을 이용하여 다양한 학습자료를 활용한 학습이 가능한지에 대해 물었을 때 상당히 많은 청소년들이 그렇다고 했으며, 한글, 워드 포토샵 등 다양한 프로그램 활용 능력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볼 때, 온라인으로 원격수업이 진행되더라도 도구가 갖춰져 있다면 많은 청소년들이 컴퓨터를 이용한 온라인 기반 학습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컴퓨터를 이용한 타인과의 정보 공유 수준 또한 평균이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약 77.1%의 청소년들이 높은 수준의 컴퓨터를 활용한 정보 공유능력을 보였다. 80%의 청소년들이 컴퓨터 및 스마트 기기를 통해 학습, 콘텐츠 제작과 편집, 정보공유 등을 능숙하게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청소년의 변화수용 역량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학습적응과 관련한 변화수용력은 어떠할까? 우리나라 청소년의 변화수용력 전체 평균은 최대 4점 만점 중 2.79점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 자료나 선생님과 같은 학습과 관련된 주변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지를 묻은 결과, 82.9%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새로 출시된 제품이나 서비스 등을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항은 평균 2.55점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즉 많은 청소년들이 비대면 시대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학습 및 활동의 새로운 형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역량을 갖췄다고 할 수 있다.

비대면 상황은 청소년 활동 정책 재도약의 토대

도구 활용, 기능, 변화수용성 등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정보통신활용능력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역량을 감안할 때 ICT 인프라 측면만을 고려하기보다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플랫폼을 병행해 활용하여 참여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고 흥미롭게 접근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온라인 플랫폼을 청소년 참여 공간으로 확장할 때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경험을 우려할 필요는 없을 듯하다. 다양하고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참여 기회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 취약계층 청소년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확충도 필요하다. 온라인 개학을 시행했던 초기에는 접속장애, 학습관리 시스템 운영, 출석 인정 기준의 설정, 학습콘텐츠 부족 문제와 더불어 학생 및 교사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차이에 따른 원격수업의 질 차이, 학생 간 학력격차 심화에 대한 우려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았다.²⁸ 청소년 활동영역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한다. 청소년들이 재미있고 흥미롭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청소년활동 정책의 관건이다.

청소년들이 오프라인뿐 아니라 온라인 공간을 통해 적극적인 시민으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청소년은 태어나면서부터 온라인 매체와 자연스럽게 접촉하며 성장했기 때문에 성인보다 온라인에 익숙하고 변화하는 상황에서 더욱 유연한 적응이 가능한 세대다. ■

28 한국교육개발원, 2020:2

청소년들의 지역사회 참여와 청소년 활동의 공진화(coevolution) 네트워크²⁹

11

2020년, 당연하다고 생각해오던 일상이 당연하지 않게 됐다. 청소년 활동도 예외가 아니었다. 현장에서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었던 청소년 활동이 일시적으로 멈췄고, 학교 또한 비대면 수업상황이 길어졌다. 오프라인 현장을 중심으로 진행해왔던 아동 참여도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됐다.

청소년 활동을 진행해온 현장에서도 갑자기 직면하게 된 변화에 혼란이 일어났다. 이에 지자체를 포함하여 학교, 청소년 기관 및 시설, 마을 교육공동체는 온라인 플랫폼 공간을 활용한 청소년 활동 방안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이 시기를 더 이상 멈춘 시간으로 볼 것이 아니라 변화된 환경 속에서 아동·청소년의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한 역동의 시기로 봐야한다.

청소년 참여 활성화에 대한 고민은 이전부터 계속되어 왔다. 그렇다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참여 공간의 확장은 해법이 될까? 온라인 디지털 매체의 기술적인 발전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 기존 오프라인 현장에서 참여가 활발하게 이뤄지지 못했던 이유를 분석하여 온라인

29 이 글은 이윤주, 최홍일, 변주영, 김주영, 김다인, 홍정윤, 이미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으며, COVID-19가 초래한 비대면(언택트)시기, 청소년활동의 재도약: 청소년 참여를 중심으로(2020), 한국청소년활동연구, 6권 4호 pp.143-172.'을 중심으로 재구성한 것임.

으로 공간이 확장된 현재 상황을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청소년 친화적인 온·오프라인 공론장으로 공간이 확대된 만큼 기존의 오프라인에서 참여하지 못한 다수 일반 아동·청소년들에게 더 많은 참여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오프라인 참여가 제한됐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대체하는 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발생했던 청소년 활동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전환의 시기에 대응해야 한다.

이에 코로나19로 인하여 온라인(비대면) 환경에서 진행한 지역사회 청소년 활동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한 블렌디드 활동 방식을 진행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하는 원탁토론회를 마련했다.

지역사회 아동·청소년·주민 100인 온라인 원탁토론회는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

아동친화도시 구성에 관한 조례 제4조(아동친화도시 구성의 원칙)에 따라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을 위한 10가지 구성요소 가운데 필수 이행사항인 ‘정기적인 아동권리 현황조사(일반현황조사, 아동친화도조사, 시민의견수렴)’와 ‘아동친화도시 조성전략 수립’과 연계하여 지역사회 아동, 청소년, 주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원탁토론회를 마련했다.

참여 대상은 ○○구에 거주하거나 재학 중인 아동·청소년·주민 100명이었다. 이 가운데 초등학생(4-6학년) 24명, 중학생 24명, 학교밖 청소년을 포함한 고등학생 24명으로 총 72명의 청소년과 성인(학부모, 지역주민, 교사, 전문가, 청소년시설 종사자 등) 28명이 참여했다. 비대면 온라인으로 준비하여 기존보다 많은 숫자의 지역 주민이 참여하게 됐다. 지역 아동·청소년 참여기구 활동자와 일반참여자를 온라인을 통해서 공개 모집하는 방식을 거쳤다.

토론회 주제는 ‘너랑 나랑 우리가 함께 만드는 아동친화도시, ○○!’으로 선정했고, 토론의제는 유니세프에서 제시한 아동친화도시 가운데 아동친화도 6개 영역 ‘놀이와 여가’, ‘참여와 시민의식’, ‘안전과 보호’, ‘보건과 사회서비스’, ‘교육환경’, ‘주거환경’으로 선정했다. 원탁토론회는 화상

회의를 통해 실시간으로 온라인 의견 집계를 시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고, 8~10명을 하나의 조로 구성하여 총 12개의 조가 토론을 진행했다. 각 조별로 퍼실리테이터가 배치되어 조별 토론 시 발생할 수 있는 기술적 문제에 대해서도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토론회에는 구청장과 아동청소년과장, 아동정책팀장이 참석하여 아동친화도시 구성에 대한 추진경과를 보고했고 나아가 코로나19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예측했다. 아동친화도를 6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정책 제안을 했으며 제안의견에 대한 공감 투표를 시행했다. 더불어 전략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이후 아동·청소년 참여예산제까지 확장할 수 있는 활동을 진행했다.

지역주민 100인 온라인 원탁토론회는 매년 아동·청소년 참여기구가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운영한 지역사회 축제의 일환이었다. 올해는 코로나19 상황 변화에 대처하여 온라인 비대면 토론회 방식으로 전환했고 이는 지역사회 첫 번째 사례였다. 청소년친화도시 구성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토론회인 점을 고려하여 각 의제는 청소년친화도시 영역을 중심으로 설정됐다.

토론회에서는 주로 온라인, 비대면, 코로나19 등 현 상황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온라인 토론회 방식과 같이 온라인 참여 방안을 확대하자는 의견도 상당수 제기됐다. 선거권 연령이 18세로 하향되고 청소년의 참여권이 확장된 것에 맞춰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참여를 활성화해야한다는 의견도 눈에 띄었다. 하지만 실제 진행된 회의 내용이나 토론 이슈를 살펴보면 오프라인 토론회와 비교했을 때 질적으로 큰 차이는 없었다.

온라인 회의 진행에 어려움은 있었지만 기술적인 오류 발생에 대처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를 거쳤고 퍼실리테이터의 참여를 통해 연령이 낮은 청소년들도 도구를 활용하는 것에 대한 불편함 없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사회에서 아동과 청소년, 주민이 물리적으로 같은 시간, 한 공간에 모이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원탁토론회는 이와 같은 물리적 한계를 극복해주었다. 오프라인에서 시행할 때보다 더 많은 아동·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었고, 기존의 참여기구 위원이 아닌 일반 참여자도 온라인으로 접수를 통해 손쉽게 토론회에 참여할 수 있었다.

또한 아동·청소년과 성인이 오프라인에서 토론을 할 때는 성인 중심

으로 진행이 되거나 각 그룹별로 의견을 교환하기가 어려웠던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온라인 환경에서는 연령, 성별 등에 구애를 받지 않고 한 사람의 구민으로서, 시민으로서 동등한 지위와 역할을 가지고 발언할 수 있었다. 이는 사회적 공론 형성과정의 시작점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주민자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동네 민주주의라는 개념을 자주 사용하는데 이와 같은 주민자치 패러다임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플랫폼의 변화나 실험이 요구된다.³⁰ 이번에 시행한 비대면 온라인 원탁토론회는 지역사회 단위의 아동·청소년 참여 공간이라는 의의도 있지만 지방자치, 주민자치 더 나아가서는 민주주의 활성화를 위한 시도라는 긍정적인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시민 주도 공진화 네트워크를 통한 청소년 친화적인 활동공간의 확장

최근 코로나19가 초래한 비대면 온라인 참여 공간의 확장은 아동 참여 영역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오는 변곡점이 됐다. 기존 청소년 활동은 아동이 참여할 기회가 부족하고 방식도 어려웠던 까닭에 권한을 부여 받은 소수의 아동·청소년만 제도적 차원 안에서 수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자연스럽게 다수의 일반 아동·청소년은 활동을 통한 참여 경험을 축적하기 어려운 면이 있었다.

하지만 최근 급격한 사회 변화가 가져온 비대면 온라인 참여 방식의 전환은 이와 같은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고 있다. 전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온라인 공간을 통한 아동 참여를 논의해야 한다. 온라인을 도구적으로 활용하는 차원에서 벗어나야 한다. 또한 기존 오프라인 현장에서의 아동 참여가 소수의 관심 있는 아동을 중심으로 시행된 것에서 나아가 다수의 아동들이 일상에서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온라인 환경을 매체 활용의 개념을 넘어 디지털 시민성 개념으로 확대시켜야 한다. 보다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온·오프라인이 결합된 청소년 친화적인 공론장을 구축하기 위한 지역사회 시민 주도의 공생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과 실천이 필요한 시점이다. ■

30 이태동 외, 2018

코로나19와 청소년 그리고 청소년지도자

코로나19는 청소년정책 분야에도 혼란을 가져왔다. 청소년정책의 주체인 청소년과 그들을 안내하고 지원하는 청소년지도자에게도 팬데믹의 영향은 컸다. 모든 국민이 마찬가지였겠지만 혼란과 불안을 경험했고, 사회적 거리두기와 생활 속 거리두기 장기화로 최소한의 접촉만 유지하고 지내야 했다. 특히 대면 활동 중심의 청소년정책과 사업은 치명적인 영향을 받았다. 청소년정책의 주체이자 수혜자인 청소년에게 직접적으로 타격을 준 것은 물론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청소년기관, 청소년단체, 청소년시설의 운영을 멈추게 했다. 결국 이곳에서 종사하고 있던 청소년지도자의 삶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기 시작했다. 청소년기관, 시설, 단체의 운영불가로 최소한의 유지를 위한 수익창출마저 불가능해졌고, 급기야 여기저기에서 문을 닫는 상황이 벌어졌다. 폐업과 휴업으로 인하여 특히 자연권 청소년시설들의 청소년지도자들은 직장을 떠나야만 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찾는 것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우리 사회에서 연대와 협력을 강조하는 시대가 됐다. 다 같이 협력하지 않으면 위기를 극복할 수 없고 한 명의 비협조가 엄청난 파장을 초

31 이 글은 최창욱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이 집필하였음.

래한다. 따라서 연대와 협력을 강조해왔던 청소년정책과 사업의 내용을 재강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코로나19는 그동안 무수한 논의가 있었던 제4차 산업혁명으로의 신속한 전환을 자연스럽게 유도했다. 청소년정책 현장에서도 제4차 산업혁명의 다양한 기법들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로써 이 분야에 특기가 있는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요구가 급격히 증가하게 됐고, 역량제고의 필요성도 커졌다.

‘멈춤’은 없었다

코로나19는 청소년과 청소년지도자의 삶 그리고 청소년기관, 시설, 단체의 존망에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 와중에 청소년과 청소년지도자는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기 힘들었다. 그러나 청소년현장은 포기하지 않았다. 정확한 해답을 찾지 못했어도 무언가를 해야 했다.

무엇보다 맞춤형 전략 마련을 위해 노력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청소년들과 청소년지도자들이 어떻게 살고 있고, 어떤 요구를 하고 있는지 조사해서 맞춤형 지원을 기획하고 실행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은 코로나19로 시설 전체가 휴관을 한 상태였지만 청소년참여기구 및 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 대상 생활 실태조사를 통해 그들의 삶과 요구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이슈페이퍼로 발간했다. 또한 급간식지원, 학습지원, 건강 및 위생관리, 네트워크 강화 등의 맞춤형 지원을 강화했다. 세종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세종시 청소년과 청소년지도자를 대상으로 한 웹 조사를 통해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청소년 활동의 방향성을 모색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공감대를 이루고 청소년사업 운영에 대한 공동의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청소년현장에서는 비대면 청소년활동을 조직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고양시청소년재단은 청소년동아리, 멘토링, PBL 기반 활동과 같은 기존의 프로그램을 점검하여 비대면 및 온라인 활동으로 운영방식을 변경해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비대면(온라인) 청소년활동을 전면 시행했다. 천안시 태조산청소년수련관은 기존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자치기구에서 활용해 온 온라인 기반 소통 도구를 학교 현장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동영상 소통, 회의, 영상촬영 편집 기술 등에 대한 자료 공유와 교

사 연수를 통해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비대면 활동 운영이 가능하도록 도왔다. 또한 거꾸로 학습(flipped learning) 기법을 응용한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교육청과 연계하여 천안시 관내 전체 학교에 보급했다. 이 과정은 비대면 청소년 활동 인증기준 마련의 기틀을 제공했는데 실제 비대면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최초 인증을 획득했다. 하자센터에서는 운영하는 모든 프로그램을 비대면-온라인 방식으로 전환했다. 봉사활동 손편지 프로젝트를 의료진 손편지 쓰기로, 메이커스 페이스를 도구·장비를 대여하는 프로젝트로, 북카페 책읽기 모임을 일상 관찰기 릴레이 공유 등으로 전환했다. 온라인 장비워크숍, 온라인 상호작용형 창의적 진로체험 활동 등 융합형 비대면 프로그램도 실시했다.

청소년현장에서는 공동의 노력을 통해 연대를 확대했다. 청소년기관, 단체, 시설의 비대면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을 모아 같은 상황 속에서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는지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사례를 수집하여 공유했다. 대구청소년수련시설협회는 소속 시설들의 비대면 활동과 매뉴얼을 엮어 배포했고, 부산청소년수련시설협회는 비대면 청소년활동 프로그램과 방과후아카데미 비대면 프로그램 책자를 만들어 배포했다. 제주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서울청소년활동진흥센터도 포럼 등을 통하여 각 시설의 활동들을 모아 제시했다.

전국의 청소년지도자들은 여기에 소개된 곳 외에도 많은 곳에서 저마다 자신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하고 추진했다. 주어진 상황 속에서 일단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

혼돈의 반복을 막아야

많은 전문가들은 앞으로 코로나19보다 강한 바이러스들이 올 수 있다고 경고한다. 현 상황의 극복 또는 미래 대비 차원에서도 청소년분야는 서둘러 준비를 해야 한다. 첫째, 비대면 활동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현장에서 다양한 시도를 했지만 더 많은 우수 사례를 모으고 정리하여, 다양한 지역과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가능한 사례들을 준비해야 한다. 청소년지도자들의 동영상 플랫폼, 활동 콘텐츠 같은 온라인 활용 능력을 향상시켜야 하며 청소년기관, 시설, 단체의 온라인 활동 지침을 마련하고 관련 장비보

강을 서둘러야 한다.

둘째, 청소년 활동 인프라의 붕괴를 막아야 한다. 청소년 활동의 근간이었던 청소년시설들 특히, 자연권의 청소년수련원과 유스호스텔이 운영의 어려움에 직면해있는 상황이고 이미 많은 시설들이 경영상의 이유로 문을 닫았다. 정부와 지자체, 청소년현장은 청소년시설들의 영업 손실 보전에 대한 특별 지원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금융대출, 특별고용 유지지원금, 금융지원 심사기준 완화와 지원 규모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가능하다면 청소년활동진흥법 상에 재해 등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할 경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코로나19 등 재해 상황 속에서 청소년 기관, 시설, 단체의 공공성을 제고해야 한다.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를 재해 상황에서 소외계층 및 청소년 지원 전문 인력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지역 청소년기관을 긴급 공공수용시설로 활용하는 방안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넷째, 청소년의 정서적 건강에 대한 접근도 강화해야 한다. 코로나 블루 같은 감염병 장기화에 따른 청소년과 청소년지도자들의 불안, 우울, 답답함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그동안 물리적·신체적 안전에만 기울였던 관심을 심리적·정서적 안전으로 확대해야 한다.

다섯째, 사회적 위기에 대한 청소년, 청소년지도자, 지역사회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청소년들 사이에서 퍼지는 감염자, 특정종교, 외국인,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혐오현상을 방지하고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프로그램과 캠페인을 강화해야한다. 코로나19를 포함한 사회적 위기에 관련된 가짜뉴스에 현혹되지 않도록 돕는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도 강화하여 이번 위기를 계기로 청소년들이 스스로 공동체의 구성원이자 위기 극복의 주체로서 시민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청소년 활동, 코로나에서 살아남기³²

첫 걸음_STOP? RESTART!!

새해는 언제나 새로운 목표와 기대, 그리고 희망으로 시작된다. 2020년 역시 그러했다. 2019년 연말에 버킷리스트였던 유럽여행을 다녀온 터라 배터리를 충전한 듯 Refresh라는 단어를 몸소 체험하고 있었다. 무엇이든 할 수 있을 듯한 자신감과 열정이 생겨났고 개인적인 성장은 물론 재단 내 새로운 사업에 대한 기대로 가득하였다. 대부분이 이런 설렘으로 2020년을 맞이하지 않았을까 싶었다. 그런 우리에게 1월 9일³³ 코로나바이러스가 고요하게 다가왔다. 그때는 아무도 몰랐었다. 이 고요한 바이러스가 우리의 일상에 미칠 영향을.

2002년 사스, 2009년 신종플루, 2015년 메르스, 2019년 돼지열병. 우리는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법정 감염병을 이겨내 왔다. 그렇기에 코로나바이러스 역시 가볍게 지나갈 것이라고 여겼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다. 3월에 대구와 경북을 중심으로 1차 대유행이 시작되며 감염병 위기

32 이 글은 김마리 성남시청소년재단 전략기획실 기획조정팀원이 집필하였음.

33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했던 호흡기 감염질환에 세계보건기구(WHO)가 해당 폐렴의 원인이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바이러스라고 밝히면서 병원체가 확인되었다.

경보가 경계에서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되고, 사상 최초 전국단위 개학 연기가 진행되었다. 재단의 수련시설은 2월부터 임시휴관에 돌입하였다.

모든 게 멈추던 그 시기, 우리는 ‘위기’를 ‘계기’로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였다. 3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청소년 생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 지원 정책을 검토하고 체계화하였다. 대면적 요소와 비대면적 요소를 결합한 청소년 활동 패러다임 변화 등 필요 정책 및 사업의 방향을 제시하는 이슈페이퍼도 발행하였다. 또한 휴관이 장기화됨에 따라 저소득, 장애, 학교밖 청소년 등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긴급 돌봄을 지원하며 대상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또한 온라인 콘텐츠 제작, SNS를 활용한 활동거리를 지원하는 등 다각도로 빠르게 코로나 상황에 대응하였다.

두 번째 걸음_CHANGE? CHALLENGE!!

현안 분석과 빠른 대응, 중·장기적 정책 방향 수립을 통해 우리는 상황을 헤쳐 나갔고, ‘하반기에는 좀 나아지겠지’하며 곧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으리라 믿었다. 하지만 이태원을 중심으로 2차 대유행이 시작되었고 예상치 못한 위기는 또 다시 찾아왔다. 한 가지 다행인 점은 처음과 달리 청소년과 지도자 모두 온라인 수업과 같은 디지털 활용이 친숙해졌다는 것이었다.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다림이 아니라 새로운 변화와 도전이었다.

단순히 화상회의를 하고 활동거리를 제공하는 일차원적인 접근을 넘어 기존에 오프라인으로 운영되던 사업들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였다. 계속되는 비대면 활동과 교육으로 인해 지친 청소년들의 흥미가 떨어지지 않도록 학교 현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신규 콘텐츠 사업도 개발하였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와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였고, 그동안 축적된 노하우와 전략을 바탕으로 옆자리 동료들과 치열하게 고민했다. 그렇게 청소년 활동의 디지털화가 시작되었다.

대표적인 예로 전국 최초로 ‘온라인 청소년어울림마당’을 운영하였으며, 관용차를 이용한 무료차량 지원, 근황토크 콘텐츠 「드라이브 토크쇼-깡깡깡」, 비대면 환경보호활동 「에코 플로깅」, 온라인 기업 탐방 및 교

류활동과 같은 새로운 시도가 시작되었다. 이처럼 시설의 문은 잠겨 있어도 우리의 청소년 활동은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었다.

새로운 시도들을 하나 둘 시도하는 동안 코로나바이러스도 점차 잠잠해지는 듯 보였다. 이에 발맞추어 온(On)-오프(Off) 하이브리드로 1단계 안심개관 - 2단계 공유개관 - 3단계 안전개관의 계획을 가지고, 전 시설 순차적 안전 개관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우리의 계획과 달리 코로나는 우리를 비웃기라도 하듯, 또 다시 확산세가 증가하였고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며 또 다시 수련시설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

세 번째 걸음_REST? DEVELOPMENT!!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코로나로 특정 소외 계층 청소년뿐만 아니라 모든 청소년에 대한 돌봄 공백 문제가 제기되었다. 온라인 학습이 장기적으로 지속되면서 가정 내 학습을 지원 해줄 사람이 부재하였고, 청소년과 학부모 모두 지친 상태였다. 이러한 상황들은 교육 격차 발생이라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했다. 코로나 상황은 여전했지만 우리는 더 이상 수련시설의 문을 걸어둘 수 없었다.

9월부터 관내 초·중·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재단 내 전 시설 8개소에서 청소년 온라인 교육환경을 지원했으며, 대학생과 자원봉사자의 도움을 받아 수업관리, 온라인 학습 장비 및 환경 제공, 시설별 특화 프로그램 도입 등 “온(溫)&온(동네)” 성남형 학습지원 사업을 신규로 개발·운영하기 시작하였다.

굳게 닫혀 삭막했던 수련시설에 점차 아이들이 돌아오기 시작하였고 온기가 피어났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온기에 대학생, 청년들, 청소년지도사들은 자신이 가진 재능과 역량을 적극 활용해 단순한 교육지원을 넘어서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갔다. 학교의 온라인 수업을 지원해 주는 것은 기본이었고, 체대 출신의 지도자는 그녀만의 특기를 살린 체육교실을 열기도 하였다. 또한 기업의 후원을 받아 활동거리 키트와 영상을 제공하여 아이들이 주체적으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렇게 우리는 상황에 맞춰 청소년재단의 역할과 목적을 찾아갔고, 나아가 존재이유를 만들어 가고 있었다.

기존의 것들을 단단히 하는 작업도 동시에 진행하였다. 재단에서 자체로 개발한 콘텐츠(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등록을 진행하여 지적 재산권을 강화하였고, 본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의 다양한 자원들을 연결하는 성남청소년균형동반협의체를 운영하였다. 성남의 경우 구도심과 신도심 간의 지역 격차가 발생하는데, 이를 해소하고 도심간 형평성을 진작하기 위하여 청소년 분야의 다양한 점조직 형태의 분절적 네트워크의 기능을 이어줄 수 있는 청소년 통합지원협의체를 구성했고, 차별 없는 청소년 균형 성장 지원을 위해서 도심간 공공 자원을 조사·분석 후 공유하여 서비스 사각지대를 막고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 할 수 있도록 온라인 자원맵 「With Balance(위드밸런스)」시스템 구축도 추진하였다.

네 번째 걸음_LOSE? LEARN!!

10월 19일, 코로나19에 따른 거리두기가 1단계 하향되며 전 시설이 순차적 재개관을 시작하였다. 삭막했던 수련시설에도 다시 활기가 찾아오는 듯했으나 우리의 노력이 무색하게 또 다시 거리두기는 2단계로 격상 되었으며, 이 글을 쓰고 있는 오늘부터는 수도권 2.5단계에 들어간다.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될까?

연말이 되며 주변 사람들과 ‘2020년이 사라졌다.’, ‘허무하다’, ‘내년에는 괜찮을까?’ 라는 이야기를 한 번 짚은 해보았을 것이다. 우리는 여전히 시끌벅적하게 함께 모여 이야기 나누고, 맛있는 것을 나눠먹던 소소한 행복을 그리워한다. 청소년으로 가득했으나 지금은 활기를 잃은 우리의 일터는 이 겨울을 더 삭막하고 차갑게 느끼도록 한다. 여전히 혼란스럽고 두렵다.

하지만 우리의 환경은 새로운 문화가 되었고, 어느새 우리는 적응해 갔다. 올 한해를 돌아보면 언젠간 해야 하는 숙제를 빠르게 한 기분이다. 이전부터 우리 사회는 빠르게 디지털화 되어왔고 3년 전부터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청소년 활동 분야의 대부분은 현장 중심에 머물러 있었다. 마이크로소프트 CEO 사티아 나델라가 코로나19로 인하여 2년 걸릴 디지털 전환이 2개월로 단축되었다고 말한 것처럼 코로나19가 느리게 가며 항상성을 유지하던 청소년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

고, 우리는 당면한 과제를 누구보다 빠르게 해결하여 항상 주변에서 의문을 가지던 청소년지도사의 역할과 전문성을 보여줄 수 있었다.

그렇기에 앞으로가 더욱 중요하다. 우리는 2020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 새로운 도전을 시도해야 한다. 현장중심의 노하우를 발판으로 디지털 시대에 따뜻한 감성을 부여하고, 새로운 상황에 부딪히며 얻은 지성으로 청소년들과 함께할 것이다. 굳게 닫힌 차가운 건물 안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청소년을 위해 노력한 옆에 있는 동료 지도자들과 함께 격려하며 새로운 도약을 준비했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사소한 일상에 대한 감사를 배웠으며, 함께였기에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었다고 자신 있게 말하고 싶다. ■

한빛청소년대안센터는 송파구에서 20년 넘게 지역을 매개로 학교밖 청소년들과 함께 해 왔다. 거여동 판자촌 부근에서 한빛 길거리상담소로 시작한 이후 사랑의 학교 - 세움학교 - 한빛마을(청소년 그룹홈) - 캠핑카 이동상담소 등의 이름으로 교육이나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들과 함께 하고 있다. 마을에 있는 다양한 기관과 연계하여 연극, 보컬, 밴드, 바리스타, 제과제빵, 요리, 꽃꽂이, 당구, 오카리나 등을 가르치고 있고, 그 결과물을 매년 10월 성내천 물빛광장에서 열리는 ‘한빛 청소년 마을축제’에서 선보이고 있다. 지금까지 7회가 진행됐고, 이제는 송파구의 많은 청소년들이 청소년가요제와 댄스경연대회를 기다리고 준비할 정도로 모두가 함께 즐기는 축제가 됐다. 매년 200여명의 청소년들이 무대에 오르며 학교밖 청소년들이 기획단을 꾸리고 음식을 만들어 팔면서 직접 손님을 맞이했다. 이를 통해 그동안 학교밖 청소년에게 있었던 오해와 편견을 불식시킬 수 있었고 마을에서 당당하게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해왔다. 하지만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제약과 변화를 경험했다. 예정되어있던

34 이 글은 최연수 미래교육센터 오금hub 관장이 집필하였음.

다양한 체험활동과 125km 도보여행, 한빛 청소년 마을축제를 취소하거나 축소·변형할 수밖에 없어 예상치 못한 위기상황에 직면했다.

비대면 온라인학습의 경험

초기에는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길 기다렸지만 확산세는 계속 심해지기만 했다. 대안을 찾기 위해 다른 기관의 대응을 탐색한 뒤 온라인 비대면 학습을 실시하기로 했다. 먼저 장비를 구입하고 교실에 온라인 강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그리고 각 교과목 선생님들에게 기본적인 온라인 학습 기초 연수를 실시했으며 학생들과 비대면 소통방법을 다양하게 찾아냈다.

이러는 사이 기본교과목 선생님들 스스로 많은 고민과 시도를 했고, 나름대로 학생과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냈다. 그 덕에 학생들 또한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책으로 점점 적응해가는 모습을 보였다. 다양한 체험키트를 배부하고 제작방법을 동영상으로 전달했다. 학생들은 가정에서 동영상을 보며 키트를 제작한 뒤 카톡으로 결과물을 전송해주는 방식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하며 상호학습을 진행했다.

가정방문을 통한 가정환경 파악

대안학교의 특성상 재학생들이 15명 정도이기에 학생들이 등교를 하지 못하면 교사들이 가정방문으로 대응했다. 마스크와 체험키트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학부모와 학생의 가정환경을 살펴볼 수 있게 되어 학생을 이해하고 소통으로 나아가는 데 많은 도움이 됐다. 온라인학습이 길어지면서 처음에는 집에 있는 것이 좋다던 학생들도 답답하다며 빨리 학교에 가고 싶다고 성화를 부리던 시점이었다. 그런데 선생님이 가정방문을 하면서 학생들과의 벽이 허물어졌고 오히려 친밀감이 생겼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다.

청소년 마을축제를 온라인으로

한빛의 학교밖 청소년들은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문화예술을 접하고 배운다. 그리고 그 결과물을 매년 10월 초, 수천 명의 관객이 모이는 ‘한빛 청소년 마을축제’에서 선보인다. 하지만 2020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축제를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 대신 매주 토요일에 소그룹 버스킹 공연을 진행했고, 12월이 돼서야 실내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학교밖 청소년 문화예술발표회’를 진행할 수 있었다. 발표회장에는 소수의 학생과 관계자만 모였고 행사는 온라인 유튜브로 송출했다. 현장에 관객이 없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오히려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시·공간을 초월한 다수의 관객들이 공연을 감상할 수 있다는 것이 강점이 됐다. 학생들에게도 새로운 경험이었다. 자신들의 공연이 영상으로 송출되는 기쁨을 느낀 학생들이 내년에는 더 잘하고 싶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하나의 물줄기가 막히면 새로운 물길이 나듯이 인간은 삶과 생활환경이 바뀌면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내고 적응하는 최적의 능력을 찾아내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러한 경험이 축적되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확장된 영역의 콘텐츠를 개발하는 출발점이 되고 있다.

재택근무와 온라인회의

재택근무와 온라인 회의를 난생 처음 시도하는 초반에는 업무가 불가능할 것만 같았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오히려 장점도 늘어났다. 기존에 회의를 하려면 구성원들의 시간과 공간이 일치해야 했지만 이제는 언제 어디서든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핸드폰만 있으면 어

학생들과 진행하는 학급회의도 비대면으로 진행했는데 긍정적인 면이 있었다. 대면회의의 경우 주도적인 몇 명의 학생들만 발언을 했었는데 비대면 온라인에서는 내성적인 학생들도 자신의 차례가 주어지자 생각보다 적극적으로 발표에 참여했다.

느 곳에 있어도 회의를 진행할 수 있어서 자주 소통할 수 있다. 회의 진행도 처음에는 어색해서 시간이 더 걸렸지만 이제는 요점만 간단하게 서로의 의견을 나누며 정해진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끝낼 수 있게 됐다. 해외나 지방 출장 중인 사람도 참여할 수 있어 빠짐없이 회의가 가능해졌다. 코로나19로 어쩔 수 없이 찾은 자구책이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느껴진다.

학생들과 진행하는 학급회의도 비대면으로 진행했는데 긍정적인 면이 있었다. 대면회의의 경우 주도적인 몇 명의 학생들만 발언을 했었는데 비대면 온라인에서는 내성적인 학생들도 자신의 차례가 주어지자 생각보다 적극적으로 발표에 참여했다. 온라인회의의 장점을 다시금 느끼게 됐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 현장대응방안

위기는 기회라는 말을 실감하고 있다. 어떤 이는 현 상황이 1, 2차 세계대전보다 위기의 상황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위기를 통해 4차 산업혁명시대에 자연스럽게 진입하고 있다. 세계는 더욱 빠르고 섬세하게 연결되고 있으며 개별 맞춤화가 진화하는 동시에 집단화가 공존한다.

대안교육 현장에도 많은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 학생 개인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콘텐츠의 개발이 중요한 시점이 됐다. 교육 현장은 마을과 지역을 넘어 글로벌화 되어야 한다. 다양하게 소통하고 접촉할 수 있는 비대면 온라인 공간을 확장해야 하고,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진 후를 대비해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채널을 만들어야 한다.

앞으로는 미래를 예측하고 통찰하는 능력과 이를 융합하는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대가 될 것이다. 때문에 기존의 단순 암기 위주의 학습은 지양되어야 한다. 끊임없는 질문과 토론이 병행되어야 하고 다양한 체험과 경험을 쌓을 수 있는 현장이 필요한데, 교육시스템은 여전히 대학입시라는 시계에 맞춰져 있다. 스무 살에 어느 대학에 들어가는가가 인생 전체의 성공과 실패를 정한다는 생각이 사회 기저에 깔려있고 부모들은 다른 대안을 찾지 못한 채 어쩔 수 없이 대학입시에 올인하게 된다. 이렇게 모든 교육현장이 입시지옥으로 변했고 기형적인 입시제도는 교육에 대한

투자 대비 가성비를 형편없이 떨어뜨리고 교육을 통해서 자신의 강점을 특화시키기보다는 입시성적에 따른 서열화로 대다수의 학생들이 좌절과 열등감을 맛보게 한다. 이런 교육을 받고 세상 밖으로 나오면 기존의 교육은 오히려 미래사회 적응에 방해요인이 될 뿐이다.

이제는 후기 청소년기에 곧바로 대학에 진학하기보다는 2~3년 동안 다양한 경험을 쌓으면서 자신의 강점을 찾는 것이 더 효과적인 시점이 오지 않았나 싶다. 여행과 아르바이트, 인턴십 등을 하면서 자신의 방향을 설정한 뒤에 대학이 필요하면 진학하여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필요하지 않으면 다양한 기술을 습득하며 평생학습의 기회를 가지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일종의 한국형 갭이어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중심의 후기청소년들이 대학에 다니지 않아도 소외받지 않고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지역사회 중심의 청년 플랫폼이 필요하다. 개인의 자립역량을 강화시키는 플랫폼을 위해 한빛청소년대안센터에서도 청년집수리학교와 각종 요리창업아카데미를 진행하며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다. 대학입시에 매몰되지 않고도 자신의 다양한 영역에서 탐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다. 후기청소년들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온·오프라인으로 소통하는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앞으로 우리가 코로나19를 잘 이겨내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삶의 현상이 되길 소망한다. ■

코로나 블루, 우리는 은둔형 사회로 가는가?

2020년 초반에 갑자기 덮친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지 않고 1년 내내 지속되더니 급기야 해를 넘기려하고 있다. 온 지구촌이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몸살을 앓고 있다. 1년 동안 지속된 코로나19는 경제뿐 아니라 교육, 문화, 생활양식 전반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경제적 위기는 언제나 그러했듯 중하층 계급의 삶을 극한의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코로나19의 조기 종식을 기대하며 일상이 정상화되길 기다렸지만 이제는 조기 종식이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비대면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반영한 소규모 활동방식을 만들어가며 대응하고 있지만 집에만 머무르는 생활양식이 확대되면서 사회생활과 관계망 위축으로 우울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코로나19’와 ‘우울감(blue)’이 합쳐져 탄생한 코로나 블루는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에 큰 변화가 생기면서 생긴 우울감이나 무기력을 뜻한다. 외부활동을 자제하고 실내에만 머무르면서 생긴 답답함, 자신도 코로나에 감염될 수 있다는 불안감, 계속되는 활동제약으로 느끼는 무기력증, 감염병 관련 정보와 뉴스에 대한 과도한 집착, 주변 사람에

35 이 글은 윤철경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명예연구위원, G'L학교부청소년연구소 소장이 집필하였음.

대한 경계심 증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민간요법에 대한 맹신 등으로 불안과 두려움 같은 정신적 충격을 받은 사람들이 많다.³⁶

코로나19 사태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불안과 우울감을 느끼는 이들이 장기간 집, 혹은 방에만 머무르며 은둔형 외톨이와 비슷한 생활양식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생활양식은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적 존재에 대한 이해와 대처방안을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성을 제기한다.

‘은둔형 외톨이’는 누구?

은둔형 외톨이란 ‘친구 없이(혹은 하나) 3개월 이상 집 밖 출입을 하지 않는 경우³⁷’ 또는 ‘사회적 소속감이 없고 소통과 관계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그 문제를 혼자서, 또는 가족 안에서만 고민하다 결국 대부분 집에서만 지내게 되고 가족 이외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게 되는 경우³⁸’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때의 은둔형 외톨이는 일본의 히키코모리³⁹를 번역한 용어이다. 한마디로 은둔형 외톨이란 ‘6개월 이상, 방 또는 집에서 나가지 않고 가족 이외에는(심지어는 가족과도) 친밀한 대인관계를 맺지 못하는 사람’을 뜻한다.

그러나 이런 정의만으로는 부족하다. 은둔이 시작한 시기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성인으로 이행되기 전에 은둔경험이 있는지 고려해야 한다. 그 이전에 정상적인 생활을 하다가 중장년, 또는 노인 시기에 발생하는 사회적 고립과는 구별해야 한다. 아동, 청소년, 청년기에 시작된 성인기 이행 과정에서 장애나 좌절을 바탕으로 한 사회적 고립에 주목해야 한다. 이렇게 시작한 은둔 경험은 그 이후의 생애과정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언제까지 계속될지 예측할 수 없고 방 밖으로 탈출을 시도했다가도 언제 방 안으로 돌아올지 알 수 없는 사람들로 사회 복귀 이후에도 사회생활이 지속가능하도록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이다. 은둔형 외톨이의 기본적 속성은 이전에 유지해 오던 ‘가족 이외 사회관계’를 철회하고 ‘집 혹은 방’에서

36 네이버 지식백과, 코로나 블루

37 여인중, 2005

38 오오쿠사 미노루

39 가족 이외의 대인관계가 없고 사회에 참여도 하지 않는 상태, 집 밖으로 나오지 않는 것 뿐만 아니라 외출을 하는 사람이라도 가족 이외 친밀한 대인관계가 없는 상태라면 은둔형 외톨이에 포함됨(사이토 타마키, 2017: 박애선, 2018: 23에서 재인용)

나가지 않은 것이며 이러한 경험의 성인이 이전에 발생해서 이후 지속되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⁴⁰

‘은둔형 외톨이’가 지칭하는 대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유사 개념과 구분할 필요가 있다. 먼저 ‘NEET’(Not in Education and Employment and Training)이다. 이는 무업청소년 또는 무업청년으로 번역할 수 있다. 성인이 이행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과 청년층을 찾아내어 이들에게 교육, 직업훈련 기회, 일자리 제공을 목표로 한다. NEET에는 다양한 집단이 포함된다. 먼저 구직 NEET인 능동적 NEET는 일할 의욕이 있는 집단으로 장·단기 실업자이다. 적절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면 된다. 비구직 NEET 내부는 좀 더 복잡하다. 가족부양의 책임이나 질병 또는 장애로 인해 노동시장이나 교육환경에 참여할 여력이 없는 청소년·청년, 적절한 취업이나 훈련 기회를 찾으며 기다리고 있는 청소년·청년, 예술·음악·자기주도학습 등 다른 활동에 매진하는 자발적 무업청소년·청년, 그리고 현실에 낙담하여 위험하고 비사회적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는 이탈자가 있다. 은둔형 외톨이는 마지막 범주에 속할 것이다. NEET는 주로 고용노동정책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⁴¹

유사용어로 가장 혼선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 ‘사회적 고립자(인)’이다. 은둔형 외톨이 당사자나 일반 대중들은 ‘사회적 고립 청년’을 은둔형 외톨이로 동일한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서울특별시 청년청, ‘생명의 전화’ 등 사회복지계에서는 ‘고립 청년’을 비구직 NEET 유사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⁴² 고립청년은 정보부족, 생계문제, 건강문제, 관계부적응의 문제를 가진 NEET로 구직 NEET에 비해 고립감, 에너지 부족 등의 문제가 있는 저활력 NEET로 정의되고 있고 은둔형 외톨이보다 개념적 범위가 상당히 넓다. 고립청년의 범위를 넓게 정의하면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는 대상 발굴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가장 도움이 절실한 은둔

40 윤철경 외, 2020: 6-7

41 윤철경 외, 2020:7

42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사회적 고립인’을 ‘은둔형 외톨이’로 이해하고 응답하였으나 일부 기관은 이 범위를 넓게 확대하고 있었음. 독거 노인, 사회 관계가 없는 1인 가구 등 다양한 대상을 포함함. 한준(2019)은 ‘가족 및 가족 외 사람과 접촉과 교류가 없는 사람’,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는 사람’을 ‘사회적 고립’으로 정의하고 그 결과 ‘고립감’ 및 ‘심리적 웰빙’ 등 심리적 영향이 나타나는 것으로 정의했다. 한 준은 사회적 접촉과 지원으로 부터의 고립이 심리적 결과를 낳은 것으로 정의하여 사회적 고립은 관계로, 결과는 심리적 요인으로 구분하고 있다. 한국생명의 전화에서는 ‘고립 청년’을 ‘관계부적응 청년’ 뿐 아니라 ‘진로정보부족 청년’, ‘생계노동청년’, ‘건강상의 문제를 가진 청년’을 고립감 등 ‘에너지 수준’에 따라 분류하며 유형화하고 있다(2019).

형 외톨이는 지원대상에서 배제되기 십상이다. 사업자들은 발굴과 접근이 어려워 성과를 내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대상을 선호하지 않기 마련이다. 은둔형 외톨이에 초점을 둔 별도의 특화된 사업체계가 있어야 한다.⁴³ 이를 위해서는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엄격한 개념 정의가 필요하다.

‘은둔형 외톨이’는 얼마나 있나?

일본은 은둔형 외톨이의 발생률을 전국, 지자체 단위로 조사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다. 한국에서는 아직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규모 추정과 본격적인 실태조사가 실시되지 못한 상황이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는 은둔형 외톨이를 추정할 수 있는 문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 조사의 원자료를 일본 은둔형 외톨이 추정과 동일한 방식⁴⁴으로 분석하여 은둔형 외톨이 규모를 추정하면⁴⁵ 19~39세 인구 중 발생률이 2017년에는 0.91%인 13,5625명, 2019년에는 0.9%인 13,1610명으로 거의 유사하다. 1%가 은둔형 외톨이인 것으로 조사된 일본과 거의 유사한 수준이다.⁴⁶

2016년을 기준으로 15~29세 무업 청소년의 수는 13%인 123만 명으로, 비구직 NEET는 87만 9천 명으로 해당 인구집단의 9.3%였던 것과 비교해보면 은둔형 외톨이는 무업청소년의 1/13이 채 되지 않으며 비구직 NEET로 한정해도 1/10 규모로 추정해 볼 수 있다.⁴⁷ 성별로 보면 2017년에는 여성의 발생률이 높고 2019년에는 남성의 발생률이 높았지만 의미 있는 차이가 나지는 않는다.

은둔의 계기에 대한 성별 차이는 흥미롭다. 남성의 경우 여성보다 ‘취업이 잘되지 않아서’라는 이유가 상대적으로 더 많다면 여성의 경우는 남

43 히키코모리지원센터를 청년취업지원센터와 별도로 두고 있는 일본의 경험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44 6개월 이상 은둔상태이면서 평소 외출상태가 ‘근처 편의점 등에는 외출한다’, ‘방에서는 나가지만, 집 밖으로는 나가지 않는다’, ‘방에서 거의 나가지 않는다’는 협의의 ‘은둔형 외톨이’, ‘취미활동을 할 때만 외출한다’는 ‘준 은둔형 외톨이’로 정의하고 이 문항 응답자를 모두 합쳐 광의의 은둔형 외톨이로 정의하였다. 이 중에서 은둔 계기가 신체적, 정신적 질병이나 임신, 출산, 육아, 가사를 이유로 집에 머무는 경우는 제외하고 있다.

45 2018년은 연령 분류가 명확하지 않아 본 분석에서 제외함.

46 일본 내각부 통계(2019에 의하면 은둔형 외톨이가 전 국민의 1%(120만명)으로 추정됨(MBC 뉴스데스크, 2019.9.24.).

47 연령기준이 달라 단순 비교에는 한계가 있음.

성보다 ‘인간관계가 잘 되지 않아서’라는 이유가 더 많다. 이러한 차이를 보다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은둔형 외톨이 실태와 원인, 요구

실태

은둔형 외톨이 사례를 분석한 결과 중에서 2002년에서 2010년까지의 동남신경정신과 내원자를 보면 다음과 같다. 당시 내원 연령 평균은 22세이며, 은둔기간 평균 45개월인 3년 9개월로 나타났다. 주요 증상으로는 방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으며 방 청소 및 위생관리를 하지 않고 쓰레기 더미 속에 노숙자처럼 생활하는 것이었다. 또한 인스턴트 식품 섭취와 운동부족으로 비만상태에 빠지거나 식사를 하지 않는 등 불규칙한 식생활이 보고됐다. 생활시간에 있어서도 낮에는 자고 밤에는 인터넷 게임에 몰두하며 이에 대해 간섭하면 공격적인 행동을 한다. 이들은 대인불안, 대인공포, 무력감, 타인에 대한 부정적이고 피해적인 사고, 공격성, 자살사고, 낮은 자존감 등의 심리적 특성을 보이기도 했다.⁴⁸

최근 수행한 연구로는 2019년 삼성병원 홍진표의 연구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현재 또는 과거 6개월 이상의 대부분의 시간 동안 집에서 보냄’, ‘학교 등교 혹은 직장 출근 등 사회적 활동을 하지 않으려 함’, ‘친구 혹은 가족과 만나지 않으려 함’의 세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사람을 은둔형 외톨이로 보았는데 1,700명의 조사자 중 은둔형 외톨이 비율은 0.9%로 나타났다. 앞의 ‘청년사회경제실태’ 조사결과를 통해 추정한 것과 일치하여 현재 한국사회에서 1,000명 중에 9명 정도가 은둔형 외톨이임을 알 수 있다.

이 연구의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심층조사 결과에 따르면 남성이 높은 비율이며 연령별로는 20대가 가장 많으나 1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분포를 보이고 있고 은둔 시작 연령은 평균 24.5세이며 은둔 기간은 2년

48 이영식 등, 2011: 여인중, 2015에서 재인용

이상이다. 연구 결과 은둔형 외톨이의 심리·정서적 특징은 높은 비율의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을 보이며, 하나 이상의 정신과적 진단에 속하는 경우가 70%나 됐다. 또한 높은 우울도, 사회불안, 자살성향을 보이며 회피성 성격장애가 50%, 자폐 고위험군이 50%였다.⁴⁹

2019년, 한국청년재단은 은둔형 외톨이 청년 47명과 부모 34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했다. 청년 조사결과에 따르면 상담·정신과·약복용 경험이 있는 청년이 89.1%였으며 이들의 주요 활동은 인터넷게임과 스마트폰이었다. 경제적으로는 소비와 욕구를 제한하며 용돈을 거의 쓰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은둔 기간은 1년에서 15년까지 있었으며 은둔을 시작한 시기는 이사나 전학, 중퇴, 제대, 편입, 재수, 귀국 등 관계가 변화하는 시기와 관련이 있었다. 은둔의 계기는 대인관계의 어려움, 학교부적응, 내향적 성향, 가정불화 등이었다. 주로 겪는 어려움은 피로와 체력저하, 무기력·우울·불안·조현병, 경제적 어려움, 낯선 관계에 대한 두려움, 피해의식 등이었다. 자해나 자살 시도 경험은 42.2%를 보였으며 공격경험은 48.9%를 보였다. 이들은 관심과 지지, 믿음을 갖고 기다려주기를 바랐으며 상담, 1대1 멘토링, 공동체, 대화상대나 외출상대, 교육과 직장 등의 도움을 필요로 했다.⁵⁰

2020년 주상희의 연구는 한국은둔형외톨이부모협회를 통해 은둔 자녀의 식생활, 건강상태, 주된 활동을 조사했다. 인스턴트 음식을 먹는 비율이 20%를 넘었으며 우울증이 40.7%로 앞에서 소개한 G'L학교박청소년연구소의 당사자 조사보다 약간 적게 나왔다. 과체중이나 저체중, 건강염려증 등이 각기 25%~30% 수준에 달해 부모들의 건강에 대한 염려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은둔 자녀의 주 생활로는 인터넷게임 및 PC활용이 81%의 응답을 보였다. 부모들이 보고하는 은둔 자녀의 은둔 시작 시기는 만 20~24세가 44.4%로 청년기 초입이 압도적이었다. 그 다음은 만 15~19세가 29.6%로 나타났으며 만 25~29세는 14.8%로 나타났다. 여인중의 발표에서는 평균 22세였고, 홍진표의 연구에서는 24.5세였던 것을 보면 은둔을 시작하는 주된 연령대는 20대 초반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은둔형 외톨이를 대상으로 하는 현장 전문가들에 의하면, 은

49 이영식, 2020에서 재인용

50 김혜원, 2020

둔 시작 시기가 점점 하향화하여 초등학교 저학년으로 내려가고 있고⁵¹ 한편으로는 은둔상태가 길어지면서 이제 곧 40대에서 50대로 진입할 은둔형 외톨이들이 나타날 것이라 보고되고 있다.⁵²

은둔의 원인

은둔형 외톨이가 되는 데에는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크게 개인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으로 분류할 수 있다. 2020년 김혜원의 연구를 살펴보면 생물학적 특성, 심리학적 특성, 사회적 기술 부족 등을 개인적 요인으로 제시했다. 예민함, 소극적 요청과 표현능력 부족, 대처능력부족, 교우관계 및 가족 문제, 잦은 변화와 욕구의 무시, 실패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문제의 핵심은 삶에서 생기는 주관적·객관적 어려움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공감을 받고 격려를 받았는지,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해 주려는 사람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지적하고 있다.

2018년 여인중의 연구는 타인으로부터의 인정욕구가 크고 타인의 피드백에 매우 예민한 개인적 기질 요인이 작용함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개인의 기질적 요인 외에 가정, 학교, 사회·경제적 요인, 문화 요인 같은 환경적 요인이 은둔형 외톨이 발생 요인임을 지적하고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환경적 요인으로는 핵가족화와 자녀수 감소로 인해 과잉보호, 과잉통제, 모자밀착과 같은 부적절한 양육태도가 늘어났다. 그 결과로 인해 의존적이고 미성숙하거나 이기적이고 자생력을 갖지 못한 유약한 아동·청소년이 양산되고 있다. 때문에 학업경쟁과 같은 발달과제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고 이를 극복하지 못할 경우 쉽게 좌절하여 은둔자가 될 가능성이 과거에 비해 높아졌다는 것이다.

둘째, 학교부적응 요인으로는 왕따 같은 학교폭력의 피해, 극심한 학업경쟁을 들 수 있다. 개인이 처한 다양한 상황이 존중되고 배려되지 않는 집단주의적 학교생활과 학습과정이 요즘의 청소년들에게는 견디기 매우 힘든 일과일 수밖에 없으며 그 과정에서 학교생활에 흥미를 잃고 무기력해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학교의 교육행위는 학습 성취에 맡겨져 있

51 배영길(2020). 꿈터학교 사례로 본 은둔형 외톨이 현황과 지원방향. 서울시 은둔형 외톨이 현황과 지원방안(2020.8.25. 세미나 자료집), p.74.

52 박대령(2020). 이아당 심리상담센터 발표자료(2020.8.5., 한국은둔형외톨이지원연대 세미나).

고 부모들은 이를 조장하고 있다. 이러한 학교생활양식에 스트레스를 받는 청소년들은 그 스트레스를 외부로 발산하거나 내부로 숨어들어 갈 수밖에 없다. 표면적으로는 다른 아이들과 수준이 안 맞는다거나 학교에서 배울 게 없다는 다양한 이유를 대지만 사실은 입시경쟁에서 탈락의 위기를 느끼거나 학교교육 자체에 흥미를 못 느끼고 학교에서의 인간관계가 힘들어서 학업을 중단하고 방으로 숨어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셋째, 청년실업 증가 등 사회경제적 요인도 빼놓을 수 없다. 일본의 경우, ‘취업 빙하기’라는 장기 불황을 겪으면서 청년세대의 취업이 어려워져서 발생한 문제로 보고 사회적 문제로 보고 접근했다.

넷째, 문화적 요인이다. 핵가족화와 아파트로 대변되는 주거시설의 독립성으로 독립된 방, 게임·만화·영화 같은 인터넷문화, 인스턴트 식품의 상용화가 경제적 도움만 있으면 홀로 살기에 좋은 최적의 환경을 마련해 주고 있다.⁵³

2020년 이영식의 연구 역시 이러한 문화적 요인을 지적하고 있다. 그는 한국과 일본의 공통점으로 첫째, 부모의 과잉보호·과잉간섭·과잉의존, 둘째, 학교, 직장 경쟁 사회에서의 집단 따돌림, 경쟁 탈락자의 은둔 경향, 셋째, IT 산업사회의 발달로 재택근무, 배달, 인터넷 문화로 인해 집에서의 은둔생활의 불편함이 없는 점, 부모의 축적된 부와 취업난을 겪는 자녀의 세대적 문제와 가정에서 자기 방을 확보하고 부모에 기생할 수 있는 점 등을 들고 있다. 한편 차이점으로는 일본인은 혼자 지내는데 익숙한데 비해 한국인은 아직 이를 불편해 한다는 점, 일본인은 남의 일에 간섭 안 하는 데 비해 한국인은 타인의 은둔을 용인하지 않는 점, 일본은 모병제인데 반해 한국은 징병제여서 일정 연령이 되면 군에 입대해 단체생활을 해야 하는 점을 들고 있다. 한국의 징병제도가 은둔형 외톨이를 예방·치료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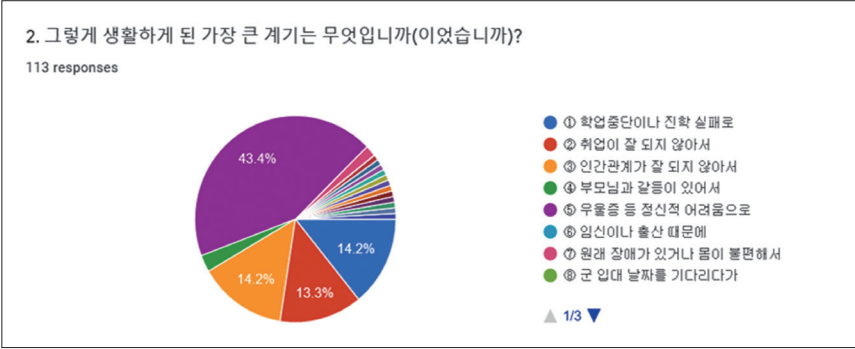
요구

2020년, G·L학교박청소년연구소는 은둔형 외톨이 당사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총 127명이 응답했으며 본 연구의 기준에 적합한 응답자를 스크

53 여인중, 2018; 윤철경, 2020에서 재인용

리닝한 최종 사례수는 113명이었다. 본 조사에서 나타난 은둔형 외톨이 은둔 계기는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은둔하게 된 계기



위 그림을 보면 우울증 등 정신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43.4%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인간관계가 잘 되지 않아서가 14.2%, 학업중단이나 진학 실패가 14.2%, 취업이 잘되지 않아서가 13.3%로 응답해 ‘우울증 등 정신적 어려움’이 가장 주요한 은둔 계기가 됨을 알 수 있었다.

은둔형 외톨이 당사자 응답을 통해 살펴본 필요한 도움은 내 마음 상태에 대한 진단과 치료가 67%로 가장 높았고, 용돈 등 경제적 지원은 61%, 이런 상태를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는 지식과 정보는 56%,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끼리의 모임과 다양한 활동은 43%, 나를 도와주고 회복시켜 주는 시설에 가서 사는 것은 38%, 온라인 비대면으로 하면 조금씩 힘이 나는 프로그램은 35%, 자유롭게 가서 재미있게 편하게 쉬며 놀 수 있는 장소는 29%, 집에 찾아와서 같이 이야기 나눠주는 마음에 맞는 사람은 21% 순으로 나타났다.⁵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선호하는 것은 온라인 1대1 멘토 지정, 상담과 필요한 정보 제공 및 서비스 연계가 33.6%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집에서 1시간 거리 이내 교통 좋은 곳에서 상담 등 서비스 제공이 28.2%, 거리와 상관없이 숙박을 겸한 소규모 워크숍을 통한 상담 등 서비스 제공이 18.4%, 집에 찾아오는 상담자 지정, 상담과 필요한 정보제공 및 서비

54 G'L학교밖청소년연구소, 2020

스 연계가 13.2%로 나타났다. 이러한 당사자 응답은 향후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지원내용과 방법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이 조사에서 응답자 127명 중 60명이 주관식 문항에 응답하여 자신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표출했다.⁵⁵ 다음은 2020년 8월 25일 서울시 의회 ‘은둔형 외톨이 현황과 지원방안’ 세미나에서 발표됐던 내용이다.

소리 없는 아우성: 꼭 지원해주세요~

중학교 중퇴를 하고 10년간 은둔형 외톨이로 살고 있어요. 14살에서 24살이 될 동안 사회에 도움을 요청할 곳도 받은 적도 없었습니다. 저 같은 분들을 위한 지원이 많아지면 좋겠어요. 수고하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꼭 도와주십시오. 절실합니다. 듣기만 해도 힘나요.
지원 필요합니다. 기준을 잘 잡아서요. 무기력 병도 병이니까요.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꼭 제정 될 수 있게 힘써주세요.
좋은 조례가 제정됐으면 좋겠습니다.

인간답게 살고 싶어요

단순히 범죄예방을 위해서, 경제적 생산성을 위해서가 아니었으면 합니다. 여러 수익관계가 얽혀있는 복지사업의 수단으로만 끝나면 안 될 것입니다. 서로가 알지 못했던 개개인의 가치를 다시 발견해주고, 믿어주고 자신의 능력을 펼치고 또 베풀어서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함이길 바랍니다.
편견 없이 바라봐주세요. 애초부터 문제 있는 사람은 없어요. 모두 이 사회의 피해자일 뿐.
여가라도 할 수 있게 청년을 위한 도서관 등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너무 노인과 어린이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무료 심리상담 등도 찾아오는 심리상담 등을 구축하여 더욱 편안한 장소에서 부담 없이 사람을 만날 수 있게 하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될 수 있어요~

누구나 은둔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은둔하는 이들은 불쌍하거나 동정 받을 사람도 아니고, 비난받을 사람은 더욱이 아닙니다. 충격으로 잠시 무너져 내린 것이며, 다시 일어설 수 있으며 이 또한 인생의 과정 중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누구나 살면서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 어려움의 강도에 따라 은둔을 택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은둔하고 싶어서 은둔하는 사람은 드물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경우가 많은데, 겪어 보지 않은 사람들에게 은둔을 택하는 사람들이 나약한 사람 혹은 패배자라고 인식되는 모양입니다. 그러한 시선은 이미 벼랑 끝에 있는 사람의 등을 떠미는 꼴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대학 진학, 대인 관계 지속 어려움, 부모와의 갈등 등으로 1년 정도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집에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단 괴롭힘의 영향으로 사람이 많은 곳이 무서워지고 성격도 극단적으로 바뀌어서 학업을 중단하고 아르바이트만 하며 살았습니다. 그래도 나를 "아르바이트라도 열심히 하자" 의 마음으로 살며 지냈지만 부모도, 주변 친구들도 어느샌가 "그까짓 것 해서 뭐냐?" "알바 따위 죽을 때까지 하려고?" 등의 비웃음만 보냈습니다. 무언가 주변에 소중한 관계의 사람들마저 저런 말을 하니 사는 게 많이 비참하다고 느껴졌습니다. 나를 아끼는 마음도 어느 샌가 바닥이 되어서 어떤 것에도 자신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연락도 받지 않고 집에서 지냈습니다. 항상 어딜 가서도 따로 노는 기분이고, 평생

혼자서 아르바이트만 전전하며 살 것 같아서 무기력감에 그냥 누웠습니다. 잘 모르겠지만 나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남들이 한심하게 보는 히키코모리의 모습들은 사실 문제의 원인이라기보단 결과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 심지어 가족조차도 나를 한심하다고 느끼는 게 눈빛과 말과 행동으로 전달되었습니다. 가족에게서조차 고립감을 느끼니 세상에서는 더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단지 1~2년이 아닌 학창시절부터 10년 이상 오랜 시간 동안 박탈감과 고립감 자괴감 불안감 등을 느꼈습니다.

나이 먹어서 힘들어요

온라인에서조차 나이를 밝히면 나이가 많은데 덜 되먹은 인간이라고 인간관계를 만들 수 없으니 스스로를 드러내지 못 하고 가면만 쓰게 됩니다. 어린 은둔형 외톨이들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썩어 들어가 있는 나이든 은둔형 외톨이들이 재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발생 초기에 지원과 지지가 주어진다면 보다 빠른 사회복귀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사실상 청년지원은 많지만 35세 이상이 되면 더 이상 지원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구직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고, 젊은 시절에 실패가 극복 가능한 형태가 되려면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이나 기업, 공공기관에서 사람을 뽑을 때 나이에 대한 핸디캡을 없게끔 하는 게 제도화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치료가 우선이에요

은둔형 외톨이가 단순히 사회에 고립되어 있다기보다 그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에 대해 생각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원인이 심리적인 거면 상담도 좋겠지만, 외면적인 것이면,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게 하면서 외면적 트라우마를 벗어나게 해줘야 합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이 보통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신적인 치료가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지식과 정보, 비대면 상담 원해요

지원 내용과 관련 정보를 찾아봤는데, 많이 빈약하다고 느꼈습니다. 조례가 제정되어 어느 정도의 지원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은둔형 외톨이는 사람 자체를 싫어하므로 상담원이나 센터에 방문하지 않고도 영상이나 전화 혹은 채팅 등 다른 방법으로 외출을 하거나 대면하지 않아도 상담을 받고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 상담 받으러 갈 때 상담소 문 밖에서 몇 번씩 도망쳤습니다. 정말 심할 때는 그렇게 고립되다가 사라져 버리길 바랬어요. 물리적인 정신적이든 스스로 도움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기까지가 가장 힘든 시기일텐데 그걸 위해서라도 비대면 지원이 쉽게 부담되지 않게 이루어 질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조례제정을 위해 처음으로 움직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멘토가 필요합니다. 비대면 상담치료는 물론 익명성이 보장돼야 이용하기 쉬울 거 같아요~

친구, 사회관계 만들고 싶어요

은둔형 외톨이로 10년 가까이 살고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도 친밀감을 공유하기가 어렵습니다. 관계를 만들기가 어려운 사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지원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이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게 친구를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과 일자리를 만드는 방안을 고민해주세요

일자리 지원해 주세요~ 사회적 폭력에서 보호해주세요

취업성공을 위한 도움을 주세요. 재택근무 취직 자리가 필요. 사회성이 미숙한 사람들이 많으므로 정보가 매우 부족하다. 상황극복, 생계유지 등을 위한 정보 제공이 우선시 돼야한다고 생각한다. 의지의 문제도 있지만 방법을 몰라서 원가 시도도 못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다.

취직하고 싶다 남들처럼 부모님을 위해, 특히 자기 자신을 위해 돈을 쓴다면 좀 나아질 것 같다. 단순한 일자리라도 마련해주시면 그것을 계기로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활력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집밖으로 나가는 건 성공했지만 여전히 청년지원원은 많지만 35세 이상이 되면 더 이상 지원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구직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고, 젊은 시절에 실패가 극복 가능한 형태가 되려면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사회적 안락이나 기업, 공공기관에서 사람을 뽑을 때 나이에 대한 핸디캡을 없애주는 게 제도화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취업과정에서 사회에서 받는 폭력들이 무섭습니다. 집 밖에 나와 무엇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소서를 쓸 때 쓸 수 있는 말이 없고 면접 과정에서도 낙인, 차별, 혐오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미 더 너무 늦어버린 것 같습니다. 취업을 해서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전까진 계속 이 쳇바퀴를 돌고 돌 것 같아서 무섭습니다.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취업이나 일자의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당사자 의견 들어주세요, 은둔형 외톨이 구분도 잘해주세요

당사자 의견을 모으는데 많은 예산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이 질문지도 기사를 선택해야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을 만큼, 개별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니즈를 정확히 분석하지 못한다면 길길이 너무 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게임, 배달 업체 등 은둔 당사자에게 쉽게 다가가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체를 통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조금 젊은 마인드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히키 구분 어케 구분할 지 궁금하네요~ 이를 악용하는 머리들도 물론 생기겠지만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집중적인 관심이 필요한 이들에게 대상은 좁게 잡고 다양한 임상과 성공사례를 많이 만들어 대상의 폭을 넓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히키코모리 선진국인 일본을 두고 건강한 복지가 끊어지지 않는 한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성 있게 지원해주세요~

단순히 범죄예방을 위해서, 경제적 생산성을 위해서가 아니었으면 합니다. 여러 수익관계가 얽혀있는 복지사업의 수단으로만 끝나면 안 될 것입니다.

.....

진심이 아니면 바로 알아챌 것입니다. 또다시 서로에게 상처받는 일이 없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나 은둔형 외톨이가 될 수 있으며 사회의 피해자로 은둔할 수 있다고 은둔형 외톨이들은 말한다. 스스로 인간답게 살고 싶은 욕구가 있으며 자신들을 도와주되 진정성 있는 지원을 바란다는 의견도 주었다. 자기 스스로 방안에 갇혀 가족과도 사회와도 단절된 채 일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이 결코 본인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렸고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지식과 정보, 비대면 상담, 치료를 원했다. 친구와 사회관계를 만들고 일자리도 얻어 돈도 벌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다만 다람쥐 쳇바퀴 도는 듯한 생활을 하다 보니 어느새 나이를 먹었고 이에 새로 충원되는 은둔형 외톨이 집단에서도 밀려나게 되어 힘들다는 하소연이 있었다.

은둔형 외톨이를 자녀로 두고 있는 부모들의 고통도 심각하다. 2020년 주상희의 연구를 통해 부모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살펴 볼 수 있다. 우선적으로 자녀와의 소통이 힘들며 자녀들이 사회로 나갈 수 있는 연결고리를 만들어야한다고 답했다. 자녀문제를 상담할 수 있는 개인상담 지원과 방문상담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자녀로 인한 고통을 하소연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모 서포터즈도 필요하다. 또한 은둔 시작 시기에 해야 할 대처방안에 대해 도움을 줄 관계기관과 청소년에서 청년기로 넘어가는 나이에 일관성 있고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관계기관과 전문가도 필요하다. 은둔자녀의 건강지원 프로그램과 은둔 초기와 중기, 장기별 단계별로 개입할 수 있는 세부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가족이 아닌 친구들과의 관계를 만들어줘야 한다.

부모가 가장 원하는 것은 방 안에 있는 은둔형 외톨이들을 어떻게 밖으로 나오게 하는가이다. 이 중에서 부모들이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 뽑은 사항은 자녀로 인한 고민 등 개인 상담비 지원으로 70.4%였다. 상담비가 너무 비싸고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고립·은둔에 대한 이해 및 부모교육 프로그램 지원이 63%였으며 유사문제를 겪고 있는 부모들의 집단상담, 자조모임 지원도 74%로 해당 지원과 자녀를 이해할 수 있는 부모 서포터즈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은둔형 외톨이를 밖으로 나오게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가족은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제일 고통 받고 있지만 같이 생활하기 때문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자원이다. 가족의 협조 없이 은둔형 외톨이에게 접근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운 과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은둔형 외톨이 대책은 가족과 당사자 양 측면에서 마련되어야하고 부모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비대면시대의 은둔형 외톨이 : 모호한 경계 속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사회는 급격하게 비대면으로 전환됐고 재택생활과 온라인 기반의 소통이 가능해졌다. 어찌보면 은둔형 외톨이들은 이러한 생활양식에 먼저 최적화되고 개별화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모두의 삶이 비대면으로 바뀌고 있는 전환기에 지난 6개월간 거의 외출을 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은둔형 외톨이라 규정 지을 수는 없다. 은둔형 외톨이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비대면 사회에서 은둔형 외톨이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일본 후생노동성의 정의에 따르면 은둔형 외톨이란 다양한 요인의 결과로서 의무교육을 포함한 취학, 비상근직을 포함한 노동, 가정 외에서의 교류 등 사회적 참가를 회피하며, 원칙적으로는 6개월 이상에 걸쳐 대체로 가정 내에 계속 머물고 있는 상태에서 외출은 하지만 타인과 교류하지 않는 형태를 가리키는 현상이다.⁵⁶ 후생노동성 홈페이지에 있는 건강용어 사전에서는 히키코모리를 다양한 원인으로 장기간 자택 등에서 나가지 않고, 자택 외에 생활공간이 없는 상태로 특정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으며 특히 후자가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고 설명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학교, 일, 가족 이외의 인간관계가 있느냐의 여부와 자택 외에 생활공간이 있느냐의 여부이다. 대부분의 시간을 자택에서 생활한다 하더라도 교육, 일, 가족 외 인간관계 등 사회적 연결성을 갖고 생활하거나 자기 집 외에 생활공간이 있다면 은둔형 외톨이로 볼 수 없다.

코로나19 상황이 해제된 후 돌아갈 곳, 회복될 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은둔형 외톨이가 아니다. 온라인 공간에서 교육, 일 경험 등을 축적하고 있다면 은둔형 외톨이가 아니다. 다만 온라인 공간의 인간관계를 가족 이외의 인간관계로 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

스마트 기기의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청소년들은 코로나19 이전에도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수시로 메시지를 보내고 SNS를 통해 불특정 다수와 관계를 맺으며 타인과 연결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반면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사람의 수가 크게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고립감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한다.⁵⁷ 인간관계에 있어 시·공간적 연결성은 연장된 반면 상대적으로 정서적 소통의 교류는 줄어들었다는 지적이다.

‘2017년도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조사 결과를 보면 온라인 친구와 청소년의 행복지수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⁵⁸ 온라인의 발달로 사회적 연결망의 규모는 확대됐지만 그것이 신뢰하는 인간관계로까지 발전하지는 않음을 알 수 있다.⁵⁹ SNS와 같은 온라인을 통한 교류

56 미노루 오오쿠사, 2020

57 Gardner & Davis, 2014: 김은경, 김경희, 2018: 276에서 재인용

58 김은경, 김경희, 2017년도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59 김은경·김경희, 2018: 295

는 이미 유대가 있었던 관계를 시·공간적 한계를 벗어나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며 온라인을 통한 친구가 신뢰하는 인간관계로 축적되지는 않음을 보여줬다. 그렇다면 오프라인으로 확장되지 않는 온라인 상 인간관계만 유지하는 경우도 은둔형 외톨이의 범주에 포함시켜야 할지 모른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실시한 청소년 인식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20.9%의 청소년이 코로나로 인해 가장 힘든 점으로 친구들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라고 응답했다. 청소년들의 여가시간은 늘어났지만 잠, 스마트폰, 유튜브로 시간을 때우고 있는 상황이다. 우울감은 늘어났다. 남자보다 여자가, 중학생, 학교밖 청소년, 고등학생의 순으로 더 우울하다고 응답했다. 67.7%가 대면방식의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대면으로 해야 할 수 있는 것이 많고 친구나 선생님 등 인간관계를 쌓을 수 있다는 것이 이유다.⁶⁰

“친구들과 대화할 수 있고 코로나로 인한 무기력을 떨쳐버릴 수 있다”

“사회성을 기르고 친구들과 추억을 쌓고 싶다”

“친구들과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소통이 잘 된다”

비대면 상황이 오래 지속됐을 때의 위험은 청소년들이 친구관계 같은 대면적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고 그로 인해 고립감, 우울감, 사회적 정체감의 상실로 이어지고 결국은 무기력해지는 것이다. 코로나19 이후 학력 격차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코로나블루다. 대면적 청소년 활동, 관계에 기초한 청소년 활동이 은둔형 외톨이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60 윤철경·김정주, 2020

은둔형 인간의 생애 파고

한국의 19~39세 연령구간에서 발생하는 은둔형 외톨이 규모는 13만 5천여 명으로 해당 인구의 0.91%에 달한다는 게 여러 연구에서 밝혀지고 있다. 이는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다. 평균 연령 20대 초반에 발생하여 40대까지 이어지고 50대 은둔형 외톨이들의 발생을 눈 앞두고 있다. 은둔형 외톨이는 지난 15년 이상 사회의 무관심 속에서 방치되어 왔다. 가족주의가 강한 한국에서는 가족들이 그 부담을 안아왔다. 80대 부모가 50대 자녀의 부양책임을 감당하는 8050의 사회적 이슈에 당면해 있는 일본의 문제를 남일이라 말할 수 있을까?

은둔형 외톨이는 단순히 게으르거나 일을 안 해도 먹고살 만한 가정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다. 우리 사회의 사회·문화·경제·교육적 환경에서 도저히 버티기가 힘들어 자기 집, 자기 방을 최후의 도피처로 삼은 사람들이다. 이들이 어느 날 갑자기 방문을 열고 집 밖으로 스스로 나올 수는 없다. 사회 밖으로 나갔기에 이 사회에 대해 아무 소리도 못 내고 숨죽이며 살고 있지만 자신들에 관심을 두고 지원하려는 사회적 노력에 감동적으로 대응하며 자신들의 견해를 표현하고 있다.

은둔형 외톨이에 대해 우리 사회는 어떤 시각으로 접근해야할까? 이들에게 일자리만 제공하면, 심리 상담만 제공하면 밖으로 나올 수 있을까?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시각으로 가장 필요한 것은 이들에게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우리도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것이다. 일도 하고 돈도 벌고 친구도 사귀고 연애도 하고 가정도 꾸리며 이 사회 구성원으로 살고 싶다는 거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가능한 그 일이 자신에게는 너무나 높은 장애물, 넘을 수 없는 벽이다. 우울과 무력감, 좌절감에 움짱달짝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고 자신을 피력한다. 스스로 갇혀 있는 감옥을 도저히 뚫고 나갈 수 없어 긴 세월을 방 안에서 늙어가고 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진단과 치료가 67%, 용돈 등 경제적 지원이 61%, 극복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가 56%,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끼리의 모임과 다양한 활동이 43%, 회복지원시설과 조금씩 힘을 나게 해주는 온라인 비대면 프로그램이 35%, 자유롭게 가서 재미있게 편하게 쉬며 놀 수 있는 장소가 29%, 집에 찾아와서 같이 이야기 나눠주는

마음에 맞는 사람이 21%이라고 조사결과는 말한다.

현실적이고 유용한 접근방법으로는 온라인 일대일 멘토 지정, 상담과 필요한 정보 제공 및 서비스 연계가 33.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교통 좋은 곳에서 있는 상담센터가 28.2%, 숙박을 겸한 소규모 워크숍이 18.4%, 집에 찾아오는 상담자 지정 그리고 상담과 필요한 정보제공 및 서비스 연계가 13.2%로 나타났다.

이들이 원하는 것을 이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제공하려면 일본의 히키모코리 지원센터처럼 은둔형 외톨이에 초점을 둔 특화된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전문성을 축적한 인력양성이 시급하다. 전문성을 가진 인력이 있어야만 온·오프라인을 통한 발굴, 서비스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가족의 문제에 접근해 이들을 조력자로 세우는 일이 방문 상담자를 양성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하다. 자녀에 대한 좌절감에서 벗어나 가장 가까워서 조력할 수 있기 때문이다. ■

UN의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전략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세계은행(World Bank), OECD, 유럽연합(European Union), 국제연합(United Nations) 등 다양한 국제기구에서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책을 속속 내놓았다.

UN은 코로나19 팬데믹이 보건적 측면은 물론 경제적 측면, 인도주의적 측면, 안보적 측면, 인권적 측면에서 위기임을 지적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해 국가의 취약성과 불평등이 확대되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위기 극복을 위해 전사회적, 범정부적, 전 세계적 동정심과 유대감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코로나19에 대한 유엔의 포괄적 대응에 대한 자료(United Nations Comprehensive Response to COVID-19)’⁶²를 발표하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세 가지 구성 요소를 제시하였다.

첫 번째 요소는 보건적 측면에서의 대응(Health Response)으로 세

61 이 글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서정아 선임연구원이 집필하였음.

62 United Nations Comprehensive Response to COVID-19, <https://www.un.org/sites/un2.un.org/files/un-comprehensive-response-to-covid-19.pdf>, 2020. 11. 1 인출.

세계보건기구(WHO)의 ‘전략적 준비와 대응에 관한 계획’에 의해 추진되는 대규모 조정과 포괄적인 보건적 대응 그리고 모든 영역과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한 바이러스 전염에 대한 통제와 사망률 감소,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과 치료법을 필요로 하는 곳에 적절하게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두 번째 요소는 삶과 생계의 보호(Safeguard Lives and Livelihoods)로 단기적으로 사회경제적, 인도주의적, 인권 측면에서 타격을 입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시급한 위기를 해결하는 광범위한 노력과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필수적인 서비스와 공공서비스에 대한 접근가능성, 가계 유지를 위한 사업체 운영 지원, 인권보장 등을 목표로 한다.

세 번째 요소는 혁신적 회복(Transformative Recovery)으로 근본적인 취약성의 해결, 보다 공정하고 평등한 회복, 경제적 기회의 부여 등을 통한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로의 혁신적 회복과정을 구축하고, 코로나19 위기를 기후위기, 불평등, 사회적 배제, 사회보장의 격차 등 불공정성을 해결하는 계기로 삼아 지속가능발전 의제와 부합하는 새로운 에너지, 지속가능한 식량공급 체계, 성평등, 더 나은 사회안전망, 보편적 의료 보장, 이를 효과적으로 일관성 있게 보편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적 체계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청소년을 위한 UN의 코로나19 대응

UN은 청소년을 위한 코로나19 대응 전략의 일환으로 포털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⁶³ 이 포털 사이트에서는 세계보건기구(WHO)와 유니세프(UNICEF)와 공동으로 유엔사무총장의 청소년특사(Envoy on Youth) 주관으로 청소년과 정신건강에 대한 웹세미나 시리즈(#CopingWithCOVID Webinar Series on Young People and Mental Health)를 연재하고 있다. 정신건강에 관련된 웹세미나 동영상상을 제시하고 있으며 정신건강과 관련한 청소년들의 주된 질문에 대해 답변을 주어 코로나19 이후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에게 국제기구 차원에서

63 United Nations Covid-19 Response: Youth, <https://www.un.org/en/coronavirus/youth>. 2020. 11. 1 인출.

공신력 있는 조언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 인상적이다.⁶⁴ 특히 2021년 7월 15일에 개최될 예정인 #CopingWithCOVID 9번째 세션에서는 유엔사무총장, 유니세프 전무, 세계보건기구(WHO) 국장, 벨기에 여왕, 전 세계 6명의 젊은이들이 함께 할 예정이며 뉴노멀 시대 청소년이 정신건강을 돌보는 과정이 청소년특사 유튜브 채널의 웹엑스(Webex) 플랫폼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이 세션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두려움, 분노, 불안, 슬픔 등에 초점을 맞추어 그들의 경험과 해결책을 공유하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⁶⁵

청소년을 위한 코로나19 대응 지침서

‘인도주의적 행동에 참여하는 청소년을 위한 컴팩트(Compact for Young People in Humanitarian Action)’⁶⁶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청소년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지침서인 ‘코로나19: 청소년과 함께, 청소년을 위해(COVID-19: with and for young people)’를 제시하였다. 이 지침서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국가, 국제 사회에서 일하는 인도주의적 행위자, 청소년 주도적 단체, 모든 분야의 청소년들을 위한 것이다. 지침은 코로나19에 대비하고,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행동하기 위한 실천가와 청소년을 위한 일련의 행동을 제안한다. 제안은 서비스, 참여, 능력(capacity), 자원, 그리고 데이터 등 5가지 주요 행동 영역으로 구조화되어 있다.⁶⁷

64 United Nations Covid-19 Response: Youth Envoy. <https://www.un.org/youthenvoy/2020/04/copingwithcovid-a-webinar-series-on-young-people-and-mental-health/>. 2020. 11. 1 인출.

65 United Nations Covid-19 Response: Youth, <https://www.un.org/en/coronavirus/youth>. 2020. 11. 1 인출.

66 ‘인도주의적 행동에 참여하는 청소년을 위한 컴팩트(Compact for Young People in Humanitarian Action)’은 2018년 기준 53개 국제기구, 정부 및 비정부기구가 재단, 갈등, 강제 이주 또는 기타 비상사태로 피해를 입은 젊은 여성과 남성, 소녀, 소년의 필요와 권리를 우선시해야 한다고 국제적으로 요청하고 있다(<https://www.unfpa.org/publications/compact-young-people-humanitarian-action>).

67 <https://www.youthcompact.org/the-compact-response>, 2020. 11. 1 인출
이와 같이 ‘인도주의적 행동에 참여하는 청소년을 위한 컴팩트’는 코로나19에 대한 청소년친화적 정보와 이 분야의 실무자들이 팬데믹에 대한 대응에 있어 청소년들을 잘 고려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데이터 허브를 만들어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들은 전세계적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함에 있어 청소년을 동등한 파트너로 간주해야 함을 강조한다(<https://www.un.org/en/coronavirus/youth>).

표. UN의 청소년을 위한 코로나19 대응 자료 목록

구분	제목(발간처)
코로나19에 대한 간략 대응	· 코로나19: 청소년(young people)을 위해 청소년과 함께 일하기(Compact for Young People for Humanitarian Action)
	· 코로나19: 청소년(young people)을 위해 청소년과 함께 일하기/지침 요약(Compact for Young People for Humanitarian Action)
코로나19 기술적 지침 및 보고서	교육
	· 학교에서의 코로나19 예방 및 통제 지침(IASC, IFRC, UNICEF, WHO)
	· 코로나19 학교 봉쇄를 완화시키기 위한 원격 학습 솔루션(INEE)
	· 원격 학습, 교육기술과 코로나19(World Bank)
	· 코로나19 동안의(위기상황 교육을 위한 기관간 네트워크) 교육과 학습(INEE))
	의미있는 참여-관여
	· 코로나19 상황에서 청소년 개입을 위한 실천적 팀(UNICEF)
	· 청소년 주도적 연구 방법론(Restless Development)
코로나19 기술적 지침 및 보고서	생계
	· 실천가를 위한 코로나19 자원(UNICEF)
	· 아프리카계, 라틴계, 카리브해 인구를 위한 코로나19의 영향(UNFPA LACRO)
	· 라틴계, 카리브해 인구에 대한 코로나19의 영향(UNFPA LACRO)
	· 책임과 포용에 관련된 코로나19 자원(IASC)
	· 코로나19가 아랍 지역의 청소년(young people)에 미치는 영향(ESCWA)
	보건과 정신건강
	· 공유된 책임, 글로벌 연대(UNSG)
코로나19 기술적 지침 및 보고서	영양
	· 코로나19에 대한 즉각적인 사회경제적 대응을 위한 유엔 프레임워크(UNSG)
	·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족친화적인 정책 및 기타 좋은 직장 관행: 고용주가 취할 수 있는 주요 조치들(UNICEF)
	WHO 온라인 과정 열기(WHO)
	· 코로나19 및 HIV: 주요 문제 및 조치(WHO, UNFPA, UNICEF, UNDP, UNAIDS)
	· 코로나19 발병 중 심리 사회적 지원 자원(Harvard Global Health Institute, WHO)
	· 코로나19 운영계획 지침 및 파트너 플랫폼(WHO)
	· 코로나19에 대처하기(Plan International)
코로나19 기술적 지침 및 보고서	보호
	· 코로나19 자원(UNFPA)
	· 코로나19 발생상황에서 식품유통 표준운영절차 조정을 위한 임시적 권장사항(WFP 개발)(IASC)
	· 코로나19 응급상황에서의 영양섭취 지침 요약(Save the Children)
	· 안전한 전달 - UNFPA의 코로나19 글로벌 대응법 (UNFPA)
	· 팬데믹 기간 동안 아동 보호에 관한 기술적 지침(UNICEF, Alliance for Child Protection in Humanitarian Action)
	· 코로나19에 대한 잠정지침: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어(OHCHR과 WHO 개발)(IASC)
	· AGD 고려사항(UNHCR)
젠더와 젠더기반 폭력	· 코로나19에 관한 빠른 글로벌 젠더 분석(CARE International, IRC)
	·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인도적이고 취약한 환경에서 성 및 생식 건강을 위한 프로그램 지침(Inter-agency Working Group on Reproductive Health in Crises)
	· 여성과 소녀가 안전한 공간: 코로나19를 위한 기술적 지침(Norwegian Church Aid, IRC)

구분	제목(발간처)
코로나19 기술적 지침 및 보고서	· 코로나19와 젠더 평등(Save the Children) · 잠정적 기술 노트: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의 성적 착취로부터의 보호(WHO, UNFPA, UNICEF, UNHCR, WFP, IOM, OCHA, CHS Alliance, InterAction and the UN Victims' Rights Advocate) · 젠더의 시각에서 본 코로나19(UNFPA) · 위기 상황에서 성, 생식 건강을 위한 최소 초기 서비스 패키지: 원격학습모듈(Inter-agency Working Group on Reproductive Health in Crises)
	젠더와 젠더기반 폭력 · 팬데믹 심화에 따른 여성과 소녀의 위험 확대(UNFPA) · 잠정적 지침: 코로나19 발발에 따른 성별 경고(IASC Reference Group for Gender in Humanitarian Action) · 코로나19 유행병이 가족계획 및 젠더 폭력, 아동 결혼 등에 미치는 영향(UNFPA) · 코로나19와 월경 관련 자료 및 기사(Global Menstrual Collective) · 코로나19 대응: 여자 청소년을 위한 구체적 위험의 해결(Plan International) ·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의 월경 건강의 중요성(UNFPA) · <팟 캐스트> 팬데믹 기간 동안의 월경 건강 관리의 도전(Dr. Julitta Onabanjo, UNFPA and VOA's Hayde Adams Fitzpatrick)
	세탁 · 코로나19 상황에서의 물과 위생, 위생과 폐기물 관리(WHO) · 라이브: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세탁에 관한 국가 경험(Sanitation and Water for All) · 코로나19와 세탁/씻기에 대한 청소년 성명서(Sanitation and Water for All) · 가정과 공공장소에서의 씻기 및 감염 예방 및 통제(UNICEF)
	비상통신 · 박스안의 핫라인: 인도주의적 위기 상황에서의 지역사회 커뮤니케이션 채널 평가, 설정, 관리(IFRC) · 소셜 미디어 활용방법에 관한 팁(IFRC) · 아프리카와 오대호 지역에서의 원격 커뮤니티 참여(UNHCR) · 원격 지역사회 참여 (BBC Media Action, Danish Refugee Council)
	구호캠프 관리 및 운영 · 코로나19 발생에 관한 구호캠프 관리 지침 노트(CCM Cluster, IOM) · 구호캠프 또는 구호캠프와 같은 환경을 포함한 인도주의적 상황에서의 코로나19 발생에 관한 대비 및 대응에 관한 잠정적 지침(IASC (WHO, IFRC, UNHCR, WHO))
코로나19 청소년 친화적 자원	· 유엔사무총장 청소년특사 - 코로나19에 맞서 싸우는 10명의 젊은 난민을 만나다(The Office of the Secretary) · 표현과 혁신을 위한 청소년 키트: 코로나19를 위한 적응적 자원 패키지(UNICEF) · 코로나19와 맞서 싸우는 10명의 청소년(Young people), 5판(The Office of the Secretary-General's Envoy on Youth) · #코로나19대응(#CopingWithCOVID) 웹세미나 5(The Office of the Secretary-General's Envoy on Youth, WHO, UNICEF) · 6-16세의 코비드 아이들(Covid-kid) 조사(University of Luxembourg) · #코로나19 대응 웹세미나 4(The Office of the Secretary-General's Envoy on Youth, WHO, UNICEF) · 소셜 미디어의 잘못된 정보를 최소화하는 10가지 팁(UNHCR) · 코로나19와 맞서 싸우는 10명인 청소년, 4판(The Office of the Secretary-General's Envoy on Youth) · 청소년(Young People)을 위한 코로나19 정보(UN)

구분	제목(발간처)
코로나19 청소년 친화적 자원	· 유엔사무총장 청소년특사, WHO, UNICEF - #코로나19대처 웹세미나 2 (The Office of the Secretary) · 유엔사무총장 청소년특사 - 코로나19에 맞서 싸우는 10명의 청소년들(Young People), 3판(The Office of the Secretary) · 지역사회에서 코로나19 대응에 앞장서는 10명의 청소년들, 2판(The Office of the Secretary-General's Envoy on Youth) · 부정적 전염병 소용돌이를 깨뜨리기 위한 가이드(IFRC, Japanese Red Cross Society) · #코로나19대처하기; 커뮤니케이션 자산(UNFPA, Prezi Video Partnership) · 청소년특사 - #온라인에서안전하게머물기(#StaySafeOnline) 글로벌 사이버범죄 프로그램 대표의 인스타그램 라이브. (The Office of the Secretary) · 점진적 항상 리더십 툴킷(UNFPA) · 코로나19에 대한 인식을 향상하고 행동을 취하기 위한 툴킷(UNICEF) · 2019 코로나19 발발기간동안의 스트레스에 대처하기(WHO) · 요르단에서의 청소년의 목소리를 위한 리완 온라인 미팅 플랫폼(UNFPA, Action Aid) · #코로나19대처하기(#CopingWithCOVID) 웹세미나 I(The Office of the Secretary-General's Envoy on Youth, WHO, UNICEF)
	· 집에서 #전지구적영향력(#globalimpact) 만들기(WOSM) · 인터넷잼버리, 코로나19판(WOSM) · 코로나19 때문에 집에서 공부하는 것? 전세계의 청소년(young people)이 스스로의 기분을 개선시키는 방법에 대해(UNICEF, Voices of Youth) · 불안하십니까? 거실에서 #청소년힘(#YouthPower)를 활용하여 바이러스와 싸우는 방법에 대한 업데이트(Restless Development) ·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해 우려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UNICEF, Young Minds) · 자원 허브(IFMSA) · 웰빙을 위한 14일 킷(IFRC) · 청소년들이 글로벌 #코로나19 대응에 참여할 수 있는 5가지 방법(Secretary-General's Envoy on Youth) · 코로나19에 관한 유엔사무총장 청소년특사로부터의 메시지(The Office of the Secretary-General's Envoy on Youth) ·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어떠한 차별이나 낙인의 여지도 없이(IOM) · #집에서함께(#TogetherAtHome)(Global Citizen Campaign) · 지역사회활동가, 자원봉사자,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위한 중요팁과 논의의 포인트들(IFRC) ·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스카우트의 기여점(Scouts) · 코로나19에 대한 기본적 보호(WHO) · 어떻게 청소년이 에볼라 재난에서 승리하였는가(Plan International)

출처: Compact for Young People in Humanitarian Action, <https://www.youthcompact.org/>, 2020. 11. 1 인출.

디지털 트렌드와 청소년의 역할

2020년 4월 24일에는 유엔사무총장 청소년특사, UN75와 디지털 협력에 대한 특별 고문, UN의 주요한 아동·청소년 그룹은 디지털 트렌드에 대한 청소년의 역할을 주제로 웹세미나를 개최하였다.⁶⁸ 불확실한 코로나19 시대에 디지털 트렌드를 이끌어내감에 있어 청소년이 해야 할 역할에 대해

디지털 원주민(Digital Native)으로 일컬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창의적, 해결지향적, 혁신적 토론을 이끌어내기 위해 개최된 세미나다. 특히 위기와 불확실성의 시대에서 지속가능발전 아젠다를 위한 디지털 협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청소년의 역할이 강조되었다.⁶⁹

기관 간 네트워크의 중요성

유엔의 코로나19 포털 청소년 부문에서는 코로나19와 청소년에 관한 UN 청소년 개발에 관한 기관 간 네트워크(Inter-Agency Network on Youth Development; 이하 IANYD)의 성명을 제시하고 있다. 유엔 IANYD는 2030년 지속가능발전 의제, 세계청소년행동계획, 유엔청소년전략에 내재된 목표를 달성하는 데 관심을 두고 있다.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권리는 물론 모든 인권에 대한 존중이 공중 보건 대응의 성공과 코로나19 팬데믹으로부터의 회복에 근간이 됨을 강조하면서 행동강령으로 다음 사항을 요구하고 있다. 첫째,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위기 중 또는 위기 후에 청소년과 함께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파트너 관계를 형성할 것, 둘째, 코로나 팬데믹에 맞서 싸우는 데 있어 청소년 자신의 행동과 그들의 잠재력을 인식할 것, 셋째, 코로나19 팬데믹이 구체적으로 청소년에게 어떤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고 코로나19와 관련된 대응이 청소년의 인권을 옹호하고 청소년의 구체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⁷⁰ ■

68 United Nations Covid-19 Response: Youth, <https://www.un.org/en/coronavirus/youth>. 2020. 11. 1 인출

69 United Nations Covid-19 Response: Youth, <https://www.un.org/en/coronavirus/youth>. 2020. 11. 1 인출.

70 코로나19와 청소년에 관한 유엔 IANYD 성명서는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un.org/development/desa/youth/wp-content/uploads/sites/21/2020/04/IAYND-Statement-COVID19-Youth.pdf>, 2020. 11. 1 인출.

PART

II

코로나 시대의 진로교육은? 한국과 일본의 사례

-
01. 서울 남성중학교 사례
 02. 고등학교 진로교육 사례
 03. 코로나 시대의 진로센터 진로교육 : 성북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사례
 04. 코로나 사태 속의 진로교육 : 일본 구마모토시의 대응
 05. 코로나 시대를 맞이한 사이타마 우라와 상업고등학교의 진로 교육
 06. 코로나 이후의 진로교육 전망 : 「사회에 오픈된 교육과정」의 새로운 형태 「커리어 챌린지 데이 On-line Meets」

코로나19 사태로 진로교육현장도 전환점을 맞고 있다.
특히 현장직업체험을 강조해오던 한국과 일본의 진로교육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큰 어려움에 봉착했다.
2020년 11월 28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한국의
미래진로개발학회 및 일본진로교육학회와 공동으로
제3회 한일진로교육포럼을 개최했다.
주제는 '한국과 일본의 진로교육의 현황과 대안찾기'였다.
여기서는 포럼의 내용을 중심으로 코로나 상황에서의 한국과
일본의 진로교육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미디어를 활용한 진로교육 사례

서울 남성중학교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성공적으로 진로교육을 추진했다. 남성중학교는 비대면 플랫폼을 통해서 다양한 진로체험 수업을 진행했다. 줌(zoom)을 활용한 쌍방향 소통, 조별 미션 체험, 유튜브를 활용한 생방송 진로 및 직업체험, 국내외 과학관 및 박물관을 활용한 탐구활동 등 다양한 온라인 활동을 진행했다. 등교 수업 때는 외부 강사를 활용한 진로 특강과 진로박람회를 개최했다. 학생들이 이미 SNS와 유튜브에 익숙해 있었던 터라 구글, 패들렛 등 온라인 소통 도구들을 금세 익혔다. 구글 퀴즈, 네이버 폼, 소크라티브 등의 도구를 활용함으로써 온라인과 오프라인 수업을 혼합한 블렌디드 러닝이 자리 잡게 되었다. 온라인 수업에서는 출결 확인 시스템과 온라인 예절교육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도 있지만 코로나 19로 진로교육은 또 다른 기회를 맞았다.

71 이 글은 2020년 11월 ‘코로나 시대의 진로교육, 한일비교’를 주제로 개최된 제3회 한일진로교육포럼에서 서울 남성중학교 김연희 교사가 발표한 내용을 재구성한 것임.

다양한 온라인 비대면 체험

다양한 온라인 비대면 체험 방법들이 활용됐다.

온라인 학습플랫폼의 영상을 보며 활동하는 방법

‘나와 가족의 꿈’을 주제로 학교 온라인 플랫폼에 탑재한 자료 영상을 보고 부모님을 인터뷰한 후 ‘미리캔버스’라는 온라인 도구를 활용하여 디지털명함을 제작했다. 그리고 자신과 부모님의 꿈에 관한 보고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방식이다.

줌(zoom)을 활용한 쌍방향 소통체험 활용

‘기업가정신-리틀히어로’를 주제로 코로나 시대 학교생활의 문제를 찾아 해결방안을 생각해보는 활동으로 ‘비캔버스’라는 온라인도구를 활용하여 토론하고, 의견을 제출하는 활동이다.

줌(zoom)의 소회의실을 활용한 게임식 조별 미션체험

‘빅데이터 체험’을 주제로 줌(zoom)의 소모임 도구를 활용하여 토론하고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문제를 풀어보는 활동이다.

생방송으로 운영하는 진로체험

유튜브 라이브를 활용하여 생방송으로 마술사체험을 운영했다. 강사가 학생들과 채팅으로 대화하면서 진행한 수업이다.

미리 배부된 키트를 활용하여 온라인학습플랫폼에 탑재한 영상을 보며 만들어보는 체험

마술도구 키트를 활용한 마술사 체험과 스트링 아트를 제작하는 수학교과 연계 체험으로 진행됐다.

과학관 홈페이지를 활용한 과학교과연계 체험

국내의 과학관 홈페이지에 탑재된 자료를 활용하여 홍보 리플렛을 제작하는 체험이었다.

줌(zoom)과 과학관 홈페이지를 활용한 탐구활동

미국 스미소니언 박물관의 국립우주박물관, 자연사박물관의 VR 자료를 보면서 탐구하는 ‘하나고르기’ 프로젝트 활동을 진행했다.

교내에서의 체험방법과 그 밖의 방법들

등교 수업 시에는 철저한 방역 속에서 다양한 체험활동이 진행됐다. 대기업이 지원하는 ‘코딩지니어스 캠프’를 통해 하루 종일 진행된 로봇 자동차 제작과 시현 체험, 외부강사에 의한 민주시민아카데미, 금융교육, 보훈테마체험, 창업창직체험, 진로직업체험센터의 지원으로 1부 직업인특강 선택 수강, 2부 희망에 따른 실무체험으로 이루어진 진로박람회 등 다양한 체험이 이루어졌다.

등교하지 못할 때 진로수업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영상으로 진행됐고, 구글 폼과 프리젠테이션, 설문지 등을 활용한 과제를 수행하도록 했다. 줌(zoom)을 이용한 수업은 패들렛, 구글 프리젠테이션 등의 보조도구를 활용하는 수업으로 진화되어 갔다. 진로상담은 카카오톡채널을 신청을 받은 후 대면이나 카카오톡채널 채팅, 줌(zoom)을 이용하여 진행했다.

힘들었어도 알차게 운영된 진로교육

2월에 예약한 프로그램들을 취소할 수밖에 없었지만 코로나19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기획된 56시간의 진로수업을 모두 운영했다. 우선 학생들과 강사의 소통이 매우 활발했다. 줌(zoom)으로 하거나 생방송으로 하는 수업은 실시간 채팅이 가능해서 만족도가 높았다. Z세대는 손을 들고 질문하는 것보다 채팅으로 질문하고 반응하는 것에 익숙해서 몰입도가 높았다. SNS 및 유튜브를 통한 소통과 참여방법에 익숙한 아이들은 실제 체험보다 온라인 상에서 발표하는 데 더 익숙하다.

철저한 방역과 수업 준비는 필수조건

철저한 방역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등교 체험 시에는 코로나 대응 단계별로 방역팀과 사전에 협의를 해야 하고,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 등교 시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KF94 마스크를 사전지급해서 등교 시에 착용하도록 하고, 손소독제와 소독용 티슈로 수시로 소독해야 한다. 교실은 가급적 한 칸 건너 배정하고, 공연이나 전체 특강을 진행시에는 강당에서 1, 2부로 학급을 나눠 진행했다.

녹화 영상을 이용한 수업보다는 줌(zoom)을 활용한 실무체험의 만족도가 높다. 진로박람회도 좋게 평가되었다. 패들렛을 활용하여 3주 동안 실시한 ‘1% 기본습관 만들기’ 프로젝트나 진로 독서활동으로 윈더링 독서토론, 찬반토론, 하브루타 독서토론의 성과도 좋았다. 진로상담에 대한 학생들과 부모들의 호응도도 매우 높았다.

또 다른 기회, 수업이 변화하고 있다.

줌(zoom)을 활용한 쌍방향 소통 체험은 집중도를 높인다. 조별 활동으로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과제수행이 가능하며, 밀도 높은 진행이 가능했다. 다양한 자료검색, 즉각적인 파일 공유와 수합이 가능하고, 장소, 시간을 초월한 진행이 가능했다. 초등학교 교실과 중학교 교실을 줌(zoom)으로 연결하여 중학교 선배들의 이야기를 실시간으로 나눈 사례도 있다. 줌(zoom)을 활용한 랜선 체육대회 운영 사례도 있다. 이런 기회는 전에는 없었던 것이다.

미래를 위한 준비

비대면 시대를 맞아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학습 활동의 장점을 살려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다양한 온라인 도구를 활용한 수업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역량을 꾸준히 키워가야 한다. 역량있는 강사 확보도 시급하다. 온라인 진행용 키트와 체험방법도 진화해야 한다. 행정적으로는 온

라인 체험료, 강사료 기준도 새로 마련되어야 한다. 공연을 안전하게 체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온라인 관람 시 저작권, 관람료 등에 관한 지침들도 필요하다. 또한 박물관에서는 미국 스미소니언박물관처럼 고화질 VR 영상자료를 제작하고 배포할 수 있도록 학교의 인프라도 보강되어야 한다. 와이파이 및 기기 환경 지원, 온라인 출결 시스템, 온라인 예절 및 언어교육, 저작권 교육도 보안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대면 체험활동이 주는 친구관계 및 행복감 증진, 학교 적응력 향상을 어떻게 보완할지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

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진로활동은 ‘진로와 직업’ 교과 수업, 수업 중 진로탐색, 진로심리검사, 진로체험, 진로상담, 진로동아리, 창업체험 등이 있다. 중학교의 진로교육과 큰 차이가 없으나 현장중심 체험의 비중은 낮다. 중학교가 직업체험에 중점을 둔다면 고등학교는 대학 진학을 위해 학과체험에 중점을 둔다. 따라서 고등학교는 중학교보다 코로나19의 영향을 덜 받지만 학과체험이나 직업인 특강 등에서 변화가 요구된다.

진로교육, 새로운 도전

고등학교에서도 비대면 체험을 위한 다양한 시도가 있었다.

온라인 박람회

서울교육청에서는 매년 운영하던 진로박람회의 운영을 위해 게임을 하듯이 온라인에서 가상캐릭터를 만들어 가상 체험하는 플랫폼을 만들었다.

72 이 글은 2020년 11월 ‘코로나 시대의 진로교육, 한일비교’를 주제로 개최된 제3회 한일진로교육포럼에서 경동고등학교 정동순 진로교사가 발표한 내용을 재구성한 것임.

일부 체험의 경우 체험 키트를 사전에 제공했고, 실시간 Q&A, 온라인 상담 등으로 쌍방향소통 방식으로 구현했다.

온라인 교육센터

서울시 중구는 2020년 5월 온라인교육센터를 오픈하여 줌(zoom)을 이용한 비대면 화상컨설팅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진로체험프로그램(건축가, MC·성우 체험, 유튜브 크리에이터 등), 메이킹 프로그램(애니메이션 플랩북, 무드등, 스탠드 등), VR을 이용해 그림그리기 등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라이브 또는 영상시청으로 참여할 수 있게 했다.

블렌디드 러닝

서울 성북구에서 운영하는 연속형 진로체험프로그램(자율주행자동차, SW 보안, 영화교실 등)에서 코로나 확산으로 대면 체험과 비대면 체험을 병행하여 운영했다.

온라인 학교 진로체험의 날

서울 송파구 OO고는 온라인으로 상담 1시간, 직업체험 3시간, 학과체험 3시간을 운영했다. 체험은 사전 체험 사이트를 안내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게 했고, 상담은 상담교사를 섭외하여 전교생 온라인 일대일 상담을 실시했다.

효과적인 온라인 교육의 방향

현장 진로체험 대신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체험이 진행됐다.

소통방식

콘텐츠만을 제공하는 방식만으로 교육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없다. 쌍방향 화상 소통이 가능하되 콘텐츠만 제공되는 경우에는 실시간 Q&A 등으로 보완되어야 한다. 대면, 비대면 교육을 혼합하는 블렌디드 러닝은 학습의 효율성을 높인다.

개인맞춤형

온라인 상담, 멘토링 등이 활성화되고 공간적 제약 없이 직업인을 만나는 기회가 제공된 결과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특히, 지리적 문제로 직업 체험이나 직업인 멘토링에 제약이 많았던 농산어촌 지역의 경우에는 온라인 교육의 덕을 톡톡히 봤다. 학급화상멘토링, 소규모 진로사람책, 1 대 1 상담 등 다양한 형태의 만남은 학생-멘토간, 학생-학생간 다양한 소통이 가능하게 했다. 앞으로 개인맞춤형 서비스를 위한 좀 더 다양한 직업체험과 직업인 DB가 마련되어야 한다.

고교학점제 대비

소수 학생이 선택한 진로 과목을 한 학교에서는 개설하기 어렵기 때문에 고교학점제에서는 온라인방식의 수업이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수업방식, 인프라 구축 등의 경험을 바탕으로 고교학점제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

다양한 방식으로 학교지원

학교마다 등교수업을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고, 교사들은 에듀테크 활용 직무연수를 통해 온라인 수업체계를 준비하고 교육청과 지자체에 취약 계층 학생들의 원격수업을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기기 대여, 인터넷 접속지원 등 인프라 구축에 나서는 가운데 대면 중심의 진로체험에 익숙하던 진로센터도 비대면 방식의 진로 체험과 진로교육의 지원방법을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 코로나19 초기에는 개별접속 환경과 학습플랫폼의 한계로 15~20분 분량의 진로교육 동영상을 제작하여 공급하는 정도에 그쳤고, 마을교사나 강사들도 온라인 수업 경험이 많지 않아 온라인 수업을 꺼렸다. 쌍방향 수업이 아니다보니 학생과 교사가 긴밀하게 소통하지 못했다.

이에 성북센터는 마을교사들의 온라인 활용역량 직무연수를 실시하고, 화상회의 서비스(Zoom, Webex)를 이용한 쌍방향 소통방식의 원격진로 수업 방식을 전격 도입했다. 원만한 원격수업 진행과 영상제작을 위한

73 이 글은 2020년 11월 '코로나 시대의 진로교육, 한일비교'를 주제로 개최된 제3회 한일진로교육포럼에서 성북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센터장 유재선이 발표한 내용을 재구성한 것임.

임시스튜디오 공간을 별도로 만들고 영상장비를 구비하는 등 원격 진로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 정도에 따라 학생들의 등교수업과 원격수업 방식이 교차되고 단위학교별로 수업 일정과 방식이 달라 일괄적인 지원계획 수립이 어려웠다. 학교급별 수요에 맞게 진로교육 영상자료를 제작하여 학교 플랫폼에 탑재하거나 쌍방향 소통의 실시간 수업방식, 대면방식과 비대면 방식의 혼합 지원방식으로 구분하여 지원했다. 또한 체험키트 개발을 통해 온라인 직업체험, 자유학년제 프로그램, 연속형 진로프로그램과 온라인 박람회에 이르기까지 비대면 방식의 진로체험과 진로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확대했다.

진로센터의 진화

성북진로센터는 운영 중인 90개의 프로그램 중 56개 프로그램을 온라인 방식 또는 온-오프라인 혼합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창의체험이나 직업멘토링은 비동기식 영상제작 형태로 지원되며, 연속형 진로체험 프로그램인 성북미래학교와 자유학년제 프로그램, 진로캠프, 전공멘토링은 실시간 쌍방향 방식의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지원한다. 최근에는 체험키트를 개발하여 진로체험도 실시간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진로박람회도 온라인 가상공간을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했다.

성북센터는 진로교육에서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학생과 마을교사 상호간의 실시간 쌍방향 원격 수업을 확대하고 피드백을 강화했다. 마을교사들 간에 온라인 수업의 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인 온라인 활용 직무연수를 실시했다.

온라인 수업과정에서 학생들의 집중도가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를 파악하고 수준별로 맞춤형수업설계와 활동중심의 수업진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온라인 수업에서는 특히 자기주도적 참여로 이루어지는 진로체험이 학생들의 집중력과 학습참여율을 높인다는 것을 경험하게 됐다.

학생들이 미래의 불확실성에 유연하게 대처하며 자신의 진로를 끊임없이 탐색하고 도전하며 자신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생

들이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를 넘나들며 자신의 진로와 필요에 따라 다양한 장소에서 많은 멘토들을 만나 배움을 넓혀가도록 도와주는 것이 앞으로 진로센터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다.

코로나19 초기에 플랫폼이 미비해서 과제형 또는 자료 공유형 수업 방식이 주된 방법이었지만 이제는 실시간 쌍방향 수업방식의 원격 수업이 일반화 되어가고 있다. 미국의 미네르바 대학처럼 온라인 수업과 기숙사 생활을 통해 밀도 깊은 체험 프로그램과 프로젝트 학습이 혼합되는 블렌디드 러닝 방식의 미래교육이 진로교육에도 점차적으로 도입되리라 생각된다. 성북진로센터는 이런 추세를 반영하고 코로나 이후를 대비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혼합된 블렌디드 러닝 방식의 프로그램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우선 자유학년제 프로그램과 성북의 역사문화 지역자산기반의 프로젝트형 진로프로그램인 '성북지역특화사업'에 우선 적용해 볼 예정이다. 온라인 수업을 통하여 사전에 기본적인 학습정보를 익히고 오프라인을 통해 심도 있는 토론과 체험 그리고 프로젝트 수행으로 혼합되어 운영되는 플립러닝 방식의 진로교육을 도입하고자 한다. ■

구마모토의 ICT환경정비

2016년 4월 구마모토에 지진이 발생했을 때만해도 구마모토시립 초·중학교의 교육 ICT 도입 수준은 정령 지정도시 중 꼴찌에서 두 번째인 19위였다. 하지만 시장의 “100년 후 미래의 초석 다지기로서 교육 ICT 환경정비가 지극히 중요하다”는 방침에 따라, 2020년도에 맞춰 태블릿 단말기 등의 도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러던 중 신종 코로나 확산으로 임시 휴교 사태가 닥쳤지만 구마모토시는 이미 환경을 갖추고 있었다. 구마모토시는 코로나 사태 이전부터 ICT를 활용한 “주체적이고 대화적인 깊이 있는 학습”을 목표로 삼고, OECD가 제시한 StudentAgency에서도 강조되는 힘을 육성하고자 했다.

74 이 글은 2020년 11월 ‘코로나 시대의 진로교육, 한일비교’를 주제로 개최된 제3회 한일진로교육포럼에서 구마모토시 교육위원회 지도주사 다나카 신이치로가 발표한 내용을 재구성한 것임.

“주위의 각종 상황을 활용해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실현해 나가는”
아이들의 모습을 지향하고 있다.
ICT나 AI 등의 힘도 이런 목표에 포함시키고 있다.

온라인 수업 5가지 단계

온라인 수업의 진행을 위해 시교육위원회는 임시 휴교 기간 중에도 학생
들 및 가정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차근차근 대처해 나갔다. 온라인
수업의 모델을 제시하여 모든 교직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온라인 수업 내내 태블릿 단말기를 사용하지는 않는다. 학생이 노트
에 적은 내용을 태블릿 단말기로 촬영해 제출하면 교사가 태블릿상으로
피드백 하는 방식도 시도됐다.

임시 휴교 기간에 구마모토시가 실시한 온라인 수업은 100년 후 미
래의 주춧돌이 될 아이들에게 필요한 힘을 길러주고자 준비해온 것이었
다. 코로나 시대가 닥치자 “사회적·직업적 자립”을 위한 힘을 어떻게 길러
줄 것인가가 당면과제로 부상했다. 학습은 중단되어서는 안 되며 평상시
수업에서도 ICT 활용을 추진해야 한다. 코로나로 인해 글로벌 직업세계

그림. 온라인 수업을 위한 5가지 스텝



역시 크게 변화했다. 구마모토시는 “주위의 각종 상황을 활용해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실현해 나가는” 아이들의 모습을 지향하고 있다. ICT나 AI 등을 활용하는 것도 이런 목표에 포함시키고 있다.

구마모토시립 북부중학교 사례

구마모토시립 북부중학교는 2018년·2019년도 국립교육정책연구소 및 구마모토시 교육위원회 교육과정연구 「ESD」의 지정교로, “사람과 연결되는, 사회와 연결되는, 미래와 연결되는 ESD~ESD를 통한 학습지도와 평가연구개선~”이라는 연구테마 하에 “지속 가능한 사회실현의 주역을 양성하는 교육” 본연의 자세와 학교 전체에서 ESD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교육과정 편성 및 지도방법 등의 개선책을 연구해 왔다. 북부중학교는 3학년생의 ‘종합적인 학습시간’에 프리마켓 기업 “메르카리”와 연계한 온라인 수업을 실시했다. 「Project 2040~20년 후의 비즈니스모델을 생각해보자」는 명칭의 수업에서는 “20년 후의 비즈니스모델을 생각해보자”는 테마로 과제해결형 학습 프로그램(PBL)을 시도했다. 종래의 가치교환의 변천과 현재의 비즈니스 및 서비스 등을 배운 다음, 20년 후의 미래에 어떤 비즈니스나 서비스가 있으면 보다 나은 사회가 될지 그룹워크를 통해 토론하고 프레젠테이션을 했다.

기업과 연계한 수업에서는 온라인으로 기업 강의를 듣고 학생들 저마다 비즈니스플랜을 세웠다. 각자의 플랜에 대해 기업으로부터 직접 조언을 받은 뒤 학생들은 최종적인 플랜을 가다듬어서 발표했다.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들이 발표됐고, 북부중학교 학생이 고안한 비즈니스모델과 유사한 사례가 최근 TV에서 소개된 바 있다. ■

3학년생의 ‘종합적인 학습시간’에
프리마켓 기업 “메르카리”와 연계한
온라인 수업을 실시했다.

코로나 시대를 맞이한 사이타마 우리와 상업고등학교의 진로교육⁷⁵

05

임시 휴업에 이르기까지의 과정과 대응

사이타마현에서는 매년 2월 하순에 고등학교 입시가 치러지는데 장기간의 임시휴업이 발표되자 향후 대응에 대한 충분한 지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곤혹스럽기 그지없었다. 입시를 어떻게 할지, 졸업식은 어떻게 할지, 재학생들을 어떻게 지도할지, 빠른 시일 내 결정하고 실시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 같았다.

우리와 상고는 전문고등학교인 만큼 이런 상황이 닥치기 전부터 정보 관련 기기와 교육에 내실을 기해 왔지만 Net 통신을 이용한 ICT 지원은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그다지 진척되지 못해, 학생들이 홈페이지(HP)를 보고 정보를 얻는 정도에 그쳤다.

75 이 글은 2020년 11월 '코로나 시대의 진로교육, 한일비교'를 주제로 개최된 제3회 한일진로교육포럼에서 사이타마 현립 우리와 상업고등학교 3학년 주임 후쿠모토 타케후미가 발표한 내용을 재구성한 것임.

학습용 온라인 커뮤니티의 활용

우리와 상고는 그룹웨어로 로그인해 이용하는 「커뮤니티룸」을 급히 설치했다. 학생용 커뮤니티룸은 ICT에 의한 학습지원 시스템으로 학년·교과별 캐비닛이 있어 과제 등을 제공 할 수 있게 했고 질문용 메일주소를 교과별로 만들어 과제에 대해 질문할 수 있게 했으며 학습 이외의 질문이나 상담에 대응할 수 있는 메일주소도 확보했다. 교직원용 커뮤니티룸에는 연락과 자료제공용으로 일별 캐비닛이 설치됐다. 그 후 장기화된 임시 휴업에 대한 대응과 ICT 활용의 실천을 위해 구글 클래스룸 사용을 추진했다. 그 결과 학생들을 위한 ICT 기반 학습지원은 커뮤니티룸에서 클래스룸 활용으로 옮겨갔다. 현재는 앙케트나 진로희망 조사 등에도 클래스룸을 이용한다. 문부과학성이 GIGA 스쿨 구상을 앞당기기로 결정한 가운데 사이타마현의 고등학교 각 교실에 와이파이를 설치하는 등 환경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진로지도의 변화

임시 휴업의 영향은 진로행사를 통한 학생들의 의식계발에도 적잖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기업 견학회도 취소됐다. 기업 견학회는 진로결정에 관한 학생들의 의식향상에 매우 중요한 행사라서 각 기업에 요청해서 6월 상순으로 연기했지만 임시휴업이 재차 연장되면서 결국 취소됐다. 진로 가이던스도, 학생들과의 대면 상담도 불가능한 채로 시간만 자꾸 흘러갔다.

임시 휴업 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등교 할 수 없었지만 개별 진로상담 등은 가능하다고 해서 커뮤니티룸을 통해서 1대1 개별진로상담을 진행했다. 면담 결과 임시휴업으로 인해 학생들의 정보수집이 불가능하다는 것과 당장 뭘 해야 할지 불안해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사실을 재차 확인했다. 이에 「3학년들에게 알림」이라는 제목으로 면담 안내를 제공지하고 3월경부터 전문학교 등에서 실시해 온 Web 설명회나 상담회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올렸다. 진학 희망자와 취업 희망자에게 각각 지금 할 수 있는 일 등에 관한 정보와 문부과학성의 「청소년 학습 응원 사이트」와 전국 고등학교 진로지도협의회의 「집에서 할 수 있는 진로학습!」 사이트

등을 소개하고 수시로 업데이트 하고 있다.

학생들과의 면담을 통해 이들이 정보수집방법을 잘 모른다는 것을 알게 된 후 5월 22일에는 「진로정보 사이트 소개」라는 자료를 제공했다. 여기에는 취업에 관한 기초지식, 구인표 보는 법, 면접대책 강좌, 공무원시험 안내, 진학 희망자를 위한 장학금 안내와 학교조사방법 관련 사이트 링크 등이 포함돼 있다. ■

「사회에 오픈된 교육과정」의

새로운 형태

「커리어 챌린지 데이 On-line Meets」⁷⁶

진로교육 전문기업의 대응

대면 방식의 진로교육에 여러 가지 과제가 제기된 상황에서 기업 측으로 부터는 “교육 지원을 계속 제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는 상담이, 학교 측으로부터는 “사회와 연계된 학습이나 진로교육으로 실시되던 직업체험을 할 수 없게 됐는데 대체 가능한 프로그램이 없냐”는 상담이 쇄도했다.

커리어링크는 동일본 대지진 복구 사업에서 시행했던 「커리어 챌린지 데이(이하 「CCD」)」라는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사회공헌사업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다행히 Society 5.0을 표방하는 오늘날, 문부과학성에서 추진 중인 학교 ver 3.0, GIGA 스쿨 구상에 힘입어 학교의 ICT화가 점차 진전되고 있었기에 “대면이 아닌 온라인으로 CCD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온라인상에서의 CCD를 「커리어 챌린지 데이 On-line Meets」로 통칭하고, 수업실현을 위한 학교 및 기업 대상 설명회를 열어 참가자를 모집했다. 이 구상이 실현되면 학교는 “긴급사태 하에 「사회에 오픈된 교

76 이 글은 2020년 11월 ‘코로나 시대의 진로교육, 한일비교’를 주제로 개최된 제3회 한일진로교육포럼에서 주식회사 커리어링크 대표 와카에 마키가 발표한 내용을 재구성한 것임.

육과정」의 실현”과 “ICT를 활용한 진로교육 추진”을 달성할 수 있게 된다. 또 기업은 학생들의 학습이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긴급사태 하의 가장 중요한 학교 측의 요구(needs)를 충족시키는 교육지원 활동 실적을 쌓게 된다. 학생들로서는 이 같은 사태에도 외부와의 연결관계를 유지하고 진로교육에 필수적인 학습기회를 얻을 수 있으니, 그야말로 일석삼조의 사업이다.

온라인 수업 지원

수업을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 아래의 4가지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병행했다.

학교의 ICT 환경조사와 정비 지원

현재 GIGA 스쿨 구상이 가속화되고 있긴 하나, 중학교의 ICT 환경은 학교(시정촌)에 따라서 천차만별인 실정이다. 그래서 참가 희망 학교 측의 ICT 환경을 꼼꼼하게 청취한 뒤, 교실과 외부를 연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들을 명확히 파악해서 회선의보안성이나 기자재 관련 과제를 해결했다.

학교와 기업이 연결될 수 있는 온라인상의 실시공간 선정과 조정

ICT 환경과 마찬가지로 외부와 접속 가능한 온라인 툴(web 회의 시스템) 역시 각양각색이었다. 하지만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으려면 온라인 툴의 통일이 불가피했기에(어떤 학교에서 사용하는 앱이 다른 학교에서는 사용 불가능한 경우 등이 발생), 커리어링크가 사용하는 온라인 툴(Google Meet)을 쓰기로 결정하고 학교 측과 기업 측이 커리어링크가 제공하는 온라인 툴로 접속할 수 있게 조정했다.

온라인에서 실시하는 콘텐츠 개발과 운영관리

온라인에서 실시하는 콘텐츠는 「CCD On-line Meets」로 통일된 진로교육 프로그램으로 했다. 기존의 대면 방식 CCD를 온라인 실시용으로 시간 배분하는 등 진행을 최적화하고, 학생들의 학습과 기업이 제공하는 콘텐츠를 균질화했다.

코디네이터와 테크니컬 서포트 스태프의 배치

8개의 온라인회장에 8명의 기업 강사와 학교(교사와 학생들)가 접속해서 수업을 실행하려면 당일 수업 진행을 담당할 각 회장=부스별 코디네이터가 필요했다. 종합 코디네이터는 전체 관리 책임을 맡았고, 부스 코디네이터는 교사와 강사 모두 익숙하지 않은 온라인 수업의 원활한 진행을 돕는 중심인물로서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게 했다. 차후에는 당사 스태프 이외의 자격 소지자를 모집해서 부스 코디네이터로 참여시킬 예정이다. 또 인터넷 접속이나 앱 사용에 관한 기술적 문제를 전담하는 전문 스태프를 배치해 당일 수업의 매끄러운 진행을 보조했다.

온라인 수업의 결과

실제로 온라인 수업을 들은 교사와 학생들에게서는 “평소에 접할 수 없었던 기업과 강사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좋았다. 치밀한 준비의 결과다. 보통은 근처 기업에 체험하러 보내는 것으로 끝났지만 직장체험과는 또 다른 관점에서 진로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좋았다”(교사), “내가 관심 있는 분야 이외에도 도전해 보고 싶다”(학생)와 같은 감상이 쏟아졌고, 기업 강사들은 “이번 참가로 저 자신에게도 좋은 경험이 됐다. 매우 심도 있는 질문이 많았고 학생들이 사전학습도 철저히 해와서 뿌듯했다”와 같은 감상을 내놓았다. 제1회 수업은 성공적이었다.

지역자원이 적은 지역(외딴섬이나 과소지역 등)의 학생들도 이제까지는 대면하기 어려웠던 타 지역의 기업, 더 나아가 전 세계 기업들과 직접 연결될 수 있게 됐다. 문부과학성의 GIGA 스쿨 구상이 현실화되면 학교 ver. 3.0을 통해 “1인당 한 대”의 단말기 환경이 갖춰져 최적화된 개별 학습, 유비쿼터스 학습이 실현될 것이다. ■

프롤로그

- 김경옥 (2020). '코로나19로 더 간절해진 마을의 교육력. 김현철 외. 코로나 19 확산 및 이후 사회변화에 따른 청소년정책의 대응방안 (연구보고 20-R26). 세종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장흔성 (2020). 코로나 시대의 다문화가정교육, 새로운 가능성을 보다. 김현철 외. 코로나 19 확산 및 이후 사회변화에 따른 청소년정책의 대응방안 (연구보고 20-R26). 세종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홍문화 (2020). '포스트 코로나, 새로운 질서를 꿈꾸며' 김현철 외. 코로나 19 확산 및 이후 사회변화에 따른 청소년정책의 대응방안 (연구보고 20-R26). 세종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Mintz, Veronique(2020.5.5.). 'Why I'm Learning More With Distance Learning Than I Do in School'. <https://www.nytimes.com/2020/05/05/opinion/coronavirus-pandemic-distance-learning.html>.

I. 코로나 시대 청소년 성장지원, 현황과 방향

1장

- 하자센터 (2020). 제12회 서울청소년창의서밋 우리 사이 괜찮아요? 서울: 하자센터.
- 하자센터 (2020). 코로나시대 청소년 프로그램 긴급매뉴얼, 코로나 시대 하자의 20가지 실험들. 서울: 하자센터.

6장

- 여성가족부 (2020). 서면답변자료 (제382회 국회(정기회) 여성가족위원회). 서울: 여성가족부.

10장

- 교육부(2020. 4. 21.).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한국의 원격수업 사례, 해외 공유 전파' 보도자료.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294&boardSeq=80400&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30&s=moe&m=020402&opType=N>에서 2020. 10. 19. 인출
- 교육부(2020. 6. 1.). '등교수업 관련 현황 자료' 보도자료.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294&boardSeq=80798&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26&s=moe&m=020402&opType=N>에서 2020. 10. 19. 인출
- 김현준 (2020). 미국의 COVID-19 대응 원격학습 현황과 시사점: 학부모, 학생 면담을 중심으로 (이슈페이퍼 CP 2020-11). 충북: 한국교육개발원.
- 오동주, 황홍섭 (2020). COVID-19가 교육에 미친 인식, 행동, 가치 및 태도의 변화 양상. 사회과교육, 59(3), 223-250.
- 이윤주, 김다인, 김주영, 변주영, 이미영, 최홍일, 홍정윤 (2020). COVID-19가 초래한 비대면(언택트)시기, 청소년활동의 재도약: 청소년 참여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활동연구 6(4), 143-172.
- 최희정 (2020). 코로나 상황에서 호주 원격교육의 실태. 교과서연구. 제101호 2020년 가을. 85-91.
- 한국교육개발원 (2020). 교육분야 COVID-19 대응 동향 리포트 -국의 온라인 교육 대응 현황-. 충북: 한국교육개발원.
- Sintema, E. J. (2020). Effect of COVID-19 on the Performance of Grade 12 Students : Implications for STEM Education. Eurasia Journal of Mathematics, Science and Technology Education, 16(7). doi:10.29333/ejmste/7893

11장

- 이윤주, 김다인, 김주영, 변주영, 이미영, 최홍일, 홍정윤 (2020). COVID-19가 초래한 비대면(언택트)시기, 청소년활동의 재도약: 청소년 참여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활동연구 6(4), 143-172.
- 이태동, 김한샘, 고인환. (2018). 동네 민주주의 개념과 적용 연구. 한국정치연구, 27(2), 143-171.

15장

- 김은경, 김경희 (2018). '앱 세대의 사회적 관계와 행복: 사회적 연결망의 규모와 유형 효과'. 한국청소년연구(2018, Vol. 29, No.3). 275-301.
- 김혜원(2020). 고립청년실태조사를 통한 현황과 지원방안(9월 부모교류회 강연 PPT). 한국청년재단.
- 네이버 지식백과 (2020). 코로나 블루.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931743&cid=43667&categoryId=43667>
- 모세중(2020). 사회적 외톨이 지원의 큰 방향에 대한 의견. 광주광역시 세미나 토론회자료.
- 박애선 (2018). 은둔형 외톨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은둔형 외톨이 지원방안 도출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 배영길(2020). 꿈터학교 사례로 본 은둔형 외톨이 현황과 지원방향. 서울시 은둔형 외톨이 현황과 지원방안(2020.8.25. 세미나 자료집).
- 여인중 (2005). 은둔형 외톨이. 지혜문학.
- 여인중 (2018). 한국의 은둔형 외톨이는 누구인가? 은둔형 외톨이 지원방안을 위한 토론회(2018.11.27. 국회의원회관 제9 간담회의실). 더불어민주당.
- 오오토사 미노루 (2020). 해외의 히키코모리 지원 현황: 일본 사례를 중심으로(2020. 08.05., 은둔형 외톨이지원연대 준비모임). 발표자료.
- 윤철경 외 (2016). 학교밖 청소년 이행경로에 따른 맞춤형 대책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윤철경 외 (2020). 서울시 은둔형 외톨이 현황과 지원방안(2020.08.25.). 서울특별시 의회 세미나 자료집. pp.6-54.
- 이영식 (2020). 코로나 시대의 은둔형 외톨이.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학술대회논문집, 79-100.
- 후생노동성 (2016). 은둔형 외톨이 지역지원센터의 개요. http://www.mhlw.go.jp/seisakunitsuite/bunya/hukushi_kaigo/seikatsuhogo/hikikomori/images/hikikomori01.gif(검색일: 2016.6.3.)를 번역함(윤철경, 2016: 275에서 재인용)
- G'L 학교밖청소년연구소 (2020). 「국내외 사회적 외톨이 지원 현황과 쟁점 진단」 세미나 자료집. 사회적 외톨이 지원연대 준비모임.
- Gardner, H., & Davis, K. (2014). 앱 제너레이션: 스마트 세대와 창조 지능. (이수경 역). 서울: 와이즈베리.
- Yuji Genda (2017). 일본의 무업청소년(NEET) 문제. 무업청소년(NEET): 국제적 동향과 대응. 2017 국제심포지엄(2017.9.25.).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pp.144-156.

16장

- United Nations Comprehensive Response to COVID-19, <https://www.un.org/sites/un2.un.org/files/un-comprehensive-response-to-covid-19.pdf>, 2020. 11. 1 인출.
- United Nations Covid-19 Response: Youth Envoy. <https://www.un.org/youthenvoy/2020/04/copingwithcovid-a-webinar-series-on-young-people-and-mental-health/>. 2020. 11. 1 인출.
- United Nations Covid-19 Response: Youth, <https://www.un.org/en/coronavirus/youth>. 2020. 11. 1 인출.
- 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 (2020). Compact for Young People in Humanitarian Action. <https://www.unfpa.org/publications/compact-young-people-humanitarian-action>. 2020. 11. 1 인출.
- STATEMENT ON COVID-19 & YOUTH (2020). <https://www.un.org/development/desa/youth/wp-content/uploads/sites/21/2020/04/IAYND-Statement-COVID19-Youth.pdf>

II. 코로나 시대의 진로교육은? 한국과 일본의 사례

- 김연희 (2020). 코로나 시대의 초·중학교 진로교육 현황 - 현장체험에서 온라인 진로교육까지. 제3회 한일진로교육포럼 '코로나 시대의 진로교육, 한일비교' (자료집 20-S25). 세종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정동순 (2020). 코로나 시대의 고등학생 진로교육 현황 - 진로활동 및 진로체험의 온라인 교육 변화. 제3회 한일진로교육포럼 '코로나 시대의 진로교육, 한일비교' (자료집 20-S25). 세종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유재선 (2020). 코로나 시대의 진로센터 진로교육 현황 - 성북진로센터 온라인 진로지원 동향. 제3회 한일진로교육포럼 '코로나 시대의 진로교육, 한일비교' (자료집 20-S25). 세종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다니카 신이치로 (2020). 코로나 사태 속의 커리어 교육 - 구마모토시의 대응. 제3회 한일진로교육포럼 '코로나 시대의 진로교육, 한일비교' (자료집 20-S25). 세종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후쿠모토 타케후미 (2020). 코로나 시대를 맞이한 본교의 커리어 교육 - 임시휴업 기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실천. 제3회 한일진로교육포럼 '코로나 시대의 진로교육, 한일비교' (자료집 20-S25). 세종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와카에 마키 (2020). 코로나 이후의 커리어 교육 전망 - 「사회에 오픈된 교육과정」의 새로운 형태 「커리어 챌린지 데이 On-line Meets」. 제3회 한일진로교육포럼 '코로나 시대의 진로교육, 한일비교' (자료집 20-S25). 세종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코로나19 확산 및 이후 사회변화에 따른
청소년정책의 대응방안

코로나 시대의 청소년 성장지원

연구보고 20-R26

발행일	2020년 12월 31일
발행인	김현철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D동), 6/7층 www.nypi.re.kr
제작	파츠스튜디오
ISBN	979-11-5654-308-4 93330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청소년과 함께
지속가능한 미래사회를 만들어갑니다.

이 보고서는 친환경 재생지로 만들었습니다.



ISBN 979-11-5654-308-4 93330